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언론의 반응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언론의 반응

이주호 엮음

2006년 3월

KTUG

일러두기

-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한겨레신문을 창간하고 초대 발행인 겸 인쇄인을 지낸 청암 송건호 선생이 임종국, 백기완, 임헌영 등 여러 학자들과 지은 책 이름입니다. 한길사에서는 1979년 10월 15일 제1권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10년간 모두 여섯 권을 발간하였습니다.
- 이 책은 발간된 이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근현대사 이해를 위한 필독서로 널리 읽혀 한국 진보학계와 젊은세대의 역사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당시 10·26 군사정변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종국 선생의 글 ‘친일파와 친일행위의 실태’ 등을 이유로 문화공보부에서 강제 압수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 2004년 5월 28일, ‘책에도 생명·인권 있어... 500여권 돌려달라’)
- 25년이 지난 2006년 2월,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출간 전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 출간되었습니다. 편집을 맡은 박지향 교수는 머리말에서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본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이념’인 ‘민족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을 담고 있으며, 이런 역사 인식이 ‘우리 역사에 끼친 피해’가 작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있는 그대로의 사료를 바탕으로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방 전후사를 재인식해보자는 의도에서 출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일보 2006년 2월 9일,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좌편향’... 역사 다시 썼다)

-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발간 후, 각종 언론에서 쏟아져 나온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옹호 내지는 비판의 글을 모아 둘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시간 순으로 기사를 모아봤습니다.

Copyright © 2006, 각 글쓴이

KTUG, Korean TeX Users Group

차 례

1	영면한 송건호선생 발자취... 운동가·언론인·학자로 올곧은 삶	1
2	송건호 1주기 앞두고 전집 출간	2
3	[뉴 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 (4) 소장 학자들도 나섰다	4
4	[2005년을 빛낼 인물] (2) 한국현대사 재해석 서울대 박 지향 교수	7
5	[2005 문화전망] (5· 끝 학술) 민족주의냐, 탈민족주의냐.	9
6	‘성공’과 ‘통합’의 현대사	12
7	[광복 60주년 기획] ‘제3의 인식’으로 본 해방전후사 ...	14
8	▼‘제3의 인식’ 어떤 연구성과 있나▼	19
9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해전사 좌편향에 반기... 역사 다시 쓰기	21
10	“解前史는 편향”... 이념논쟁 부를 듯	27
11	●해전사란...	32
12	‘解前史’ 맞선 《재인식》 출간...출판계 좌·우 논쟁 ...	32
13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좌편향”... 역사 다시 썼다.....	36
14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편향된 역사접근’ 바 로잡기	39

15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출간]《해방 전후사의 인식》 과 다른점	43
16	뉴라이트관 《해전사》 나왔다	48
17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50
18	여야 ‘해전사 재인식’ 반응	53
19	[TODAY] 역사의 《재인식》…그 책이 주목받는 이유 ..	55
20	‘현대사 해석’ 보-혁 논쟁 점화	57
21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절 바로잡아야 한다	59
22	보수시각 《해전사》 나왔다	60
23	[사설] 생산적 현대사 논쟁 기대한다	62
24	해방전후사 건전한 토론 기대한다	63
25	해방前史 《재인식》 너무 다른 여야	64
26	[시론] 이제 계몽된 역사 상상력이 필요하다	66
27	[기자수첩]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과 언론	68
28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서점가 돌풍	70
29	박지향 [조선] 인터뷰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대통령 발 언에 《재인식》 출판”	71
30	“역사를 현실문제 해결 도구로 봐선 안돼”	73
31	“현대사 시야 넓힌것… 이념적 재해석 아니다”	76
32	역사, 색안경을 벗자 [上] 역사는 하나가 아니다	79
33	역사, 색안경을 벗자 [上] 역사는 하나가 아니다	82
34	역사, 색안경을 벗자 [下] 《해전사》 세대의 자기 극복 .	85
35	역사, 색안경을 벗자 [下] 《해전사》 세대의 자기 극복 .	88
36	새로운 역사쓰기 시도 ‘해전사 재인식’ 불티	89
37	‘해방전후사 재인식’ 이념논쟁 가열	91

38	‘해방전후사 재인식’ 대담	92
39	■ “이광수 친일적 민족주의자 평가도 모순”	97
40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이념논쟁 불 붙을까	98
41	[스포츠라이트] 균형회복 나선 한국현대사	100
42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하루 만에 2쇄	101
43	[포럼]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나	102
44	[기자24시] ‘해전사’ 좌우논쟁은 침소봉대	105
45	해방전후사의 인식 VS 재인식 —두 冊주요필자 지상 ‘대 결’	106
46	[책세상]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 박지향 등 엮음	112
47	“‘해전사’ 읽고 피가 거꾸로...” 노 대통령, 발언한 적 없다	113
48	해전사·재인식 모두 글썫던 이완범 “우리가 좌파 편향 이라고?”	117
49	“盧, ‘《해전사》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고 하지 않았다”	118
50	계간 ‘시인세계’ 논쟁 —친일문학 수용 온당한가	121
51	‘시인세계’ 친일문학특집… 친일문학, 변호와 반론	123
52	[사실] “편향된 역사 다시 쓰기 검증하겠다”	125
53	[시론] ‘解前史’, 그 난폭한 도그마	126
54	[사실]과거사특 활동, 감시와 검증 필요하다	128
55	[문학]대표적 親日소설 ‘야국초’ 새롭게 해석	130
56	새 사회 현상… 역사의식 충돌	133
57	[TODAY] “정권주도 편향된 과거사정리 견제하겠다” ..	137
58	[유승삼 칼럼]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대한 곡해	138
59	해방전후사의 ‘인식’ 뒤집는 ‘재인식’ 출간	142

60	[바로잡습니다] 2월 1일자 1면 '뉴라이트판(版) 해전사 나온다' 기사	144
61	[오늘과 내일/황호택]' 전환시대의 논리'와 非논리	146
62	[사설] 뉴라이트, 역사의 망각을 요구하는가	149
63	한나라당 1.3.5.7에 대한 '재인식'요구	150
64	[시론] '미결사'와 '재인식'	151
65	먹고사는 문제가 으뜸이다	153
66	[특집 논쟁합시다] '解前史의 인식 VS 재인식' 릴레이 공방 (1)	156
67	[특집 논쟁합시다] '解前史의 인식 VS 재인식' 릴레이 공방 (1)	160
68	[새책]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외	164
69	"좌파적 해방전후사 인식 강만길, 최장집교수 책임" ..	164
70	[특집 논쟁합시다] '解前史의 인식 VS 재인식' 릴레이 공방 (2)	165
71	역사를 변혁운동의 도구로 격하	165
72	[중앙포럼] 역사가 뭐길래	168
73	[금주의 베스트셀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단번에 베 스트셀러로	170
74	2월 셋째주 베스트셀러(인문)	171
75	[Book & Life] 해방전후사 재인식과 '뉴라이트 콤플렉스' 172	
76	[특집 논쟁합시다] '解前史의 인식 VS 재인식' 릴레이 공방 (3)	175
77	[하영선 칼럼] 관악산의 봄, 한반도의 봄	177
78	'재인식' 출간으로 '해전사' 관심 급증	179

1. 영면한 송건호선생 발자취... 운동가·언론인·학자로 올곧은 삶

남도영

국민일보 2001년 12월 22일

21일 타계한 송건호 선생은 비뚤어진 시대에 투쟁하며 어렵게 일생을 살았지만 ‘언론의 사표’ ‘해직기자의 대부’ ‘민족지성’ 등의 영광스런 이름으로 불릴만큼 올곧은 삶의 지표를 보여준 지성인이다.

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정보기관에서 당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온몸이 마비되는 파킨슨병을 앓아온 그는 97년 이후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투병생활을 해왔다.

서울대 법대 재학중인 1953년 대한통신을 시작으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은 고인은 자유신문 외신부장, 한국일보 논설위원, 경향신문 편집국장, 조선일보 논설위원,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을 역임하다가 75년 동아일보 기자 150여명이 강제해직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그는 재야 언론인으로서 한층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84년 해직 언론인들을 규합해 민주언론운동협의회를 결성했고, 월간지 ‘말’을 창간해 제도권 언론이 하지 못하던 올바른 목소리를 냈다. 한겨레신문의 창간을 주도해 88년 초대 사장으로 부임했다.

그는 학자로서도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그가 신진 학자들과 함께 저술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78년)은 아직도 대학 신입생의 필독서로 꼽히고 있다. ‘드골평전’ ‘한국지식인론’ ‘민족지성의 탐구’ ‘단절시대의 가교’ ‘한국현대사론’ ‘서재필과 이승만’ ‘한국현대인물사론’ ‘의열단’ ‘해방 40년의 재인식’ ‘한국현대언론사’ ‘한국언론 바로보기 100년’ 등 그의 저서들은 투철한 민족지성과 왕성한 필력을 증명해준다.

2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언론의 반응

고인은 이같은 공로로 금관문화훈장, 한국언론학회언론상, 호암언론상, 심산상, 정일형 자유민주상 등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정순씨(71)와 준용씨(41) 등 2남4녀가 있다. 장례는 24일 오전 8시 사회장으로 치러지며 광주 5·18 묘역에 안장된다. 빈소는 서울중앙병원(02-3010-2400). 정부는 고 송건호선생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2. 송건호 1주기 앞두고 전집 출간

김영화
한국일보 2002년 11월 27일

『근현대사 연구 70년대 큰 반향』

언론인 청암(靑巖) 송건호(宋建鎬) 선생의 1주기를 앞두고 ‘송건호 전집’(전20권 한길사 발행)이 나온다.

고인은 암울했던 독재시절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실천적 지식인이자, 근·현대사 연구의 개척자이기도 하다. 전집은 통일 분야(1,2권) 한국현대사와 현실정치 분야(3~7권) 언론 분야(8~10권) 저술과 지식인론·인물론(11~15권) 칼럼모음집(16,17권) 에세이집(18,19권) 동양고사집(20권) 등으로구성돼 있다.

전집 간행은 청암언론문화재단(이사장 강만길)이 한국언론재단과 한길사의 후원을 받아 진행했다. 강만길 이사장,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김언호 한길사 대표, 백낙청 서울대 교수, 한승헌 전 감사원장, 언론인 성유보씨 등이 간행위원으로 참여했다.

고인은 서중석 성균관대 역사학과 교수와의 대담(1992년)에서 굴곡진 현대사를 연구하게 된 배경을 이렇게 말했다. “어느 출판사에서 학

생운동사를 써달라고 해요. 그런데 해방 후의 자료는 없어요. 이상하다 생각하고 알아봤더니 근·현대역사는 사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기피한다고 하더군요. 다시 알아보니 이승만이 친일파를 감싼 것과 관련이 있더군요.” 그렇게해서 나온 《해방 전후사의 인식》(공저)을 비롯해 ‘한국 민족주의의 탐구’ ‘한국현대사론’ ‘해방 40년의 재인식’ ‘한국지식인론’ ‘민족지성의 탐구’ 등은 1970, 80년대 대학생과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기자시절에는 친구가 와도 찾값이 없어 다방에도 못 갈 정도로 청렴했으며 해직 후에는 중앙정보부의 공작으로 대학 시간강사 자리마저 얻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0여 차례나 정권의 ‘자리’ 제의를 모두 거절했던 옹골찬 지식인이었다.

53년 대한통신사 기자로 출발해 한국일보 외신부 차장, 논설위원 등을 거쳐 경향신문,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한 고인은 75년 동아일보 광고사태 및 기자해임에 항의해 편집국장직을 사임한 뒤 월간 ‘말’지 발행인, 한겨레신문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한 고문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생활을 하던 그는 지난해 12월 21일 타계했다.

청암언론문화재단은 다음달 6일 전집을 출간하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송건호언론상 시상식과 함께 전집출간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3. [뉴 라이트, 침묵에서 행동으로] (4) 소장 학자들도 나섰다

권재현 · 민동용

동아일보 2004년 11월 11일

중도·보수계열의 학자들은 그동안 집단적으로 사회현안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려 왔다. 주로 저술활동이나 신문칼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현실에 대해 발언해 왔을 뿐이다. 그러나 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 후 이런 개별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메아리 없이 묻히자 ‘개인플레이’의 한계를 느끼고 조직화 시도에 나섰다.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좌(左)편향’을 바로잡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움직임은 ‘뉴 라이트’라 할 만하다. 특히 소장학자들이 이런 새로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다만 뉴 라이트 활동에 나선 학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활동이 ‘한국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정 정파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 ▽자유주의를 수원지로

뉴 라이트의 집단적 목소리를 결집하는 최대의 이론적 수원지(水源地)는 자유주의다.

과거 진보성향에서 개혁적 보수로 전향한 386세대의 학자와 전문가 60여명은 23일 ‘자유주의연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자유주의연대는 정치적으로든 북한체제에 비판적인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지향한다.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이 과거 1960, 70년대 민주당 좌파에 몸담았다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공화당으로 전향한 인사들이 주축을 이뤘다는 점에 비춰 보면 자유주의연대 참가자들은 유사한 행로를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옹호하고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유교수협의회’(가칭) 설립 움직임도 있다. 자유교수협의회는 진보성향 교수들의 모임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에 대응하는 의도로 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단체의 발기안을 낸 조성환(曹成煥) 경기대 교수는 “현재 전국 20여개 대학의 사회과학 분야 교수들이 모여 논의 중”이라면서 “참여 교수들의 성향이 다양해 의사결정이 쉽지는 않지만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⑧ ▽1980년대식 좌편향 인식 극복 시도

1980년대의 좌파적 민족주의 인식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대 박지향(朴枝香·서양사) 이영훈(李榮薰·경제사), 연세대 김철(金哲·국문학), 성신여대 김영호(金映浩·국제정치학) 교수 등은 1980년대 대학가의 필독서였던 ‘해방전후사의 인식(해전사)’이 대학생들에게 낡은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가제) 출간을 준비 중이다.

자유주의연대에서 준비 중인 ‘신(新) 북한 바로알기 운동’도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유주의연대 발기인들은 1980년대 말 대학가를 휩쓴 ‘북한 바로알기 운동’이 냉전시대 ‘북한 때리기’의 시각을 넘어서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한다는 슬로건과는 달리 북한 사회의 긍정적 측면만 너무 부각시켜 북한의 현실을 장밋빛으로 치장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통해 북한의 김정일(金正日) 독재체제가 낳은 끔찍한 인권침해와 경제난 등 북한의 잿빛 현실을 대중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⑧ ▽교육과 미래에 대한 투자도

미래 한국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을 시키기 위한 학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3월 출범한 사단법인 ‘옳은 생각’(이사

장 서승환·徐昇煥 연세대 교수)은 인터넷사이트(www.r-thinking.org)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념을 심어줄 수 있는 글들을 초중고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가공해 제공하고 있다. ‘옳은 생각’에는 경제 정치 사회학 분야 70여명이 자문교수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왼쪽’으로 기우는 편향성을 바꾸기 위한 대국민 계몽 활동에 나선 기존단체들도 있다. 공동체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안민정책포럼’(회장 장오현·張五鉉 동국대 교수)은 올해 들어 정치 법률 철학 외교안보 경제 근대사 등 학계 각 분야에서 편향된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규모 청소년강좌를 실시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외교사분과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도 현재의 근현대사 교육이 한국의 정통성을 제대로 조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청소년 역사강좌에 열의를 쏟고 있다.

대학총장이나 석좌교수 명예교수 등 중도와 보수성향 학자들이 주축인 한국미래학회(회장 김형국·金炯國 서울대 교수)는 최근 회원 연령을 대폭 낮추기로 결정하고 ‘2030 한국사회 변화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소장학자들이 중심이 돼 균형 잡힌 시각에서 2030년 한국 사회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4. [2005년을 빛낼 인물] (2) 한국현대사 재해석 서울대 박지향 교수

민동용

동아일보 2005년 1월 4일

1980년대 대학생들에게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교양 필독서였다. 《해전사》라고 불린 이 책을 읽은 학생들은 한국현대사가 초중고 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다르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다. 당시 해전사를 탐독한 386세대 정치인들은 그 책의 인식 틀을 바탕으로 요즘 과거사 규명과 청산을 외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학계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 해전사의 내용을 반박하거나 뒤집는 논문들이 쏟아졌다. 다만 일반인들이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이를테면, 지주에게만 이로웠다고 평가받던 이승만 정권의 농지개혁이 사실은 ‘북한의 토지개혁보다 나은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고, 이광수나 서정주의 작품을 친일이 아닌 다른 시각에서 해석한 연구도 나왔다.

박지향(朴枝香·52·서양사학) 서울대 교수는 해전사가 과연 객관적 역사서술인지 오래전부터 의문을 갖고 있었다. 박 교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해전사의 《재인식》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도 이런 의문을 학문적으로 풀기 위해서였다. 뜻을 같이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공 교수들과 팀을 이뤄 1930~50년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학 사회 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해석을 더한 논문들을 모아 4월 초 3권의 책으로 펴낼 예정이다. 책 제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

“우리 책의 의도는 좌우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자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현대사를 보는 시각이나 학문적 성과들이

사실과 동떨어졌거나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었거든요. 절대 우익 이데올로기의 대변도 아니고 좌익 비판도 아닙니다.”

박 교수는 영국 근대사를 전공했지만 신문 칼럼 등을 통해 한국 현대사와 사회에 대한 발언을 계속해 왔다. 2003년에는 19세기 후반 영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과 일본의 근대를 냉정하게 비교한 ‘일그러진 근대’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그의 발언을 못마땅하게 보기도 하지만 그는 단호하다. 자신은 서양사학자도, 영국사학자도 아닌 ‘역사학자’라는 것이다.



그림 1: 박지향 서울대 교수

“역사는 일직선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힘들이 작용하는 알기 힘든 현상이에요. 그런 모습을 될 수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역사가의 역할입니다. 동서양을 아우르는 역사학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는 지난해 영국의 저명한 사학자인 에릭 홉스봄의 저서 ‘만들어진 전통’을 장문석 박사(서울대 강사)와 함께 번역했고, 한 학회에서 ‘국사의 해체’를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가 역사의 주도세력이자 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지요.”

그가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왜 개인이나 인류라는 개념보다 민족이 압도적이고 절대적 가치가 돼야 하느냐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가 민족주의에 집착하는 행태의

이면에는 역사 피해의식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고 진단한다.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책임을 남에게 미루려고 하는 측면이 강했어요. 무엇이든 남의 탓으로 돌리면 정작 우리의 책임은 없어지고, 결국 역사에서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박 교수는 올해 하반기에는 한국 현대사의 또 다른 중요한 시기인 1960, 70년대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는 “박정희 시대의 공과를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보여주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 해석에 대한 박 교수의 도전은 2005년에도 계속된다.

5. [2005 문화전망] (5· 끝 학술) 민족주의나, 탈민족주의나

김범수

한국일보 2005년 1월 14일

올해 학계 최대의 이슈는 지난해에 이어 ‘역사’와 ‘민족’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으로 한껏 달아올랐다가 잠시 수그러들던 민족감정은 올해 일본 우익의 역사교과서문제로 재점화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강해지는 한편에서, 탈민족·탈근대를 표방하는 지식인들의 목소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제국주의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 100주년이면서 광복 60주년,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한 한일기본조약 체결 40주년이다. 이에 맞춰 여러 학회, 연구소들이 한일 과거사를 되돌아보는 학술행사를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

☞ 광복 60년 등 맞아 국제학술회의 잇달아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는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센터와 함께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 ‘한국 병합의 역사적·국제법적 재검토’를 주제로 한·미·일 공동학술회의를 연다.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도 2월 18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을사늑약, 그 100년의 기억’을 주제로 을사조약 100주년 심포지엄을 연다. 연구소는 또 8월 11, 12일에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세계 식민지 해방운동과 한국독립운동’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식민지 경험이 있는 해외 각국의 사례를 현지 학자들을 통해 직접 듣는 자리여서 이집트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 해외 학자들이 다수 참여한다. 역사학회가 주도하고 국내 역사학 관련 학회들이 대거 참가해 5월에 여는 전국역사학대회의 올해 주제도 ‘을사조약’. 대회에서 한국사연구회는 분과 주제로 ‘1965년 한일회담의 성격’을 놓고 토론할 계획이다.



그림 2: 광복 직후 거리에 나와 환호하는 군중들과 한일기본조약에 서명하는 박정희 대통령

국사편찬위원회가 8월 15일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에서 여는 광복 60주년 기념 남북학술대회는 북한과 재중동포학자들이 참가해 의미가 깊다.

동북아지역의 반일 공동투쟁과 광복의 의미, 일본 패전 이후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재조명한다. 국사편찬위는 또 10월에 역사 관련학회들과 함께 광복 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광복 이후 한국 현대사를 입체적으로 되짚어 보는 작업이다. 이밖에 한국일본학회, 현대일본학회, 한일관계사학회 등이 한일 수교나 한일관계 재정립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중이다.

중국의 역사왜곡을 둘러싼 한·중 갈등은 지난해 ‘열전’에서 올해는 ‘냉전’의 형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연구재단은 지난해 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사회과학원과 처음으로 고구려 관련 학술대회를 연데 이어 올해 서울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연다.

고구려연구회는 11월 말에 칭화(淸華)대 한중역사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중·일 3국 학자들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세계 속의 고구려와 발해’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북한 사회과학원의 고구려연구실장과 발해연구실장도 초청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깡 “적대적 민족주의 깨야” 목소리 높아질듯

민족주의가 거세질수록 탈민족을 부르짖는 학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사실을 존중하고, 자민족이나 자국중심주의이라는 편협한 사고의 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충분히 귀 기울일만하다.

‘역사 해체’ ‘탈국경’ 등을 주장하며 화제를 모아온 한양대 임지현 교수는 4월 23, 24일 한양대에서 ‘과거사 짚어보기(Mastering Past)’를 주제로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과 남북한 친일파 청산의 담론을 비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경제사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일제의 한국 근대화 기여에 무게를 실어온 낙성대경제연구소는 10월쯤 미국에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알리는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최근의 연구성과를 통해 해방 이후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자는 뜻으로 진행되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간행 작업도 주목할만하다. 서울대 박지향(서양사학) 이영훈(경제학) 교수 등이 주도하는 이 작업은 1980년대 이후 대학생 필독서로 자리잡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교정하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어 현대사는 물론 정치·경제학계에 적잖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임지현 교수는 “올해도 전통적인 민족주의 흐름이 강화돼 한·중·일 3국에서 적대적인 민족주의가 증폭되겠지만, 이런 구도를 무너뜨리려는 각국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연대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6. ‘성공’과 ‘통합’의 현대사

이선민

조선일보 2005년 1월 27일

드디어 한국현대사 해석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이 시작됐다. 25일 창립 행사를 가진 ‘교과서포럼’은 직접적으로는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들의 내용을 문제삼고 있지만, 그 발족이 갖는 의미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 교육과 교양서, 언론 등을 통해 국민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국현대사 인식의 본질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던진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몇 차례 고교 현대사 교육의 좌(左)편향이 지적된 적은 있지만, 학계에서 체계적인 분석과 비판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 * *

앞으로도 40~50대 보수·우파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국현대사의 좌편향적 해석을 비판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한국현대사강좌’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가제) 등이 잇달아 출간될 예정이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의 핵심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성공’으로 보느냐, ‘실패’로 보느냐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비중있는 학자들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나선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들이 밝히는 새로운 한국현대사 서술의 방향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부정적으로 보는 좌편향적 서술이 안고 있는 사실의 오류와 의도적 누락, 폐쇄적 민족주의에서 빚어지는 관점의 협소함, 남북한 평가의 이중 잣대 등을 먼저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이룩한 ‘국력(國力)의 신장’ ‘삶의 질의 향상’ ‘민주주의와 기본권의 확산’을 강조하는 대안적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다음 목표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실패파’의 한국현대사 해석을 허물고,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성공파’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지난해 가을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된 금성출판사 교과서와 현대사를 다루는 방송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은 ‘좌편향성’과 함께 ‘낮은 수준’에 있다. 200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은 1980년대 초반의 연구 결과를, 그것도 한쪽 성향의 것만을 담고 있다. 이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지식과 역사 인식이 20대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그 이후 국내외에서 나온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과 세계사적인 안목, 학자적인 균형감각에 따라 대한민국이 걸어온 성공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다.

* * *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다시 쓰여지는 한국현대사는 ‘성공’과 함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좌편향적 서술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역사 해석을 거꾸로 뒤집는 우(右)편향적 서술이 해당될 수는 없다. 한국현대사는 분명 ‘성공의 역사’이지만, 분단·전쟁·냉전으로 이어지는 악조건 속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치유하고 실수를 바로잡으며 피해자와 탈락자를 끌어안는 보다 성숙한 역사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성공의 역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다. 좌편향적 현대사 해석이 위력을 떨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그늘’과 ‘부채’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이번 기회에 실력있고 양식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국민 모두가 자손에게 들려줄 수 있는 ‘한국현대사’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7. [광복 60주년 기획] ‘제3의 인식’으로 본 해방전후사

이광표

동아일보 2005년 8월 11일

《우리의 해방전후사(解放前後史)는 과연 불임(不妊)의 시기였는가. 광복에서 6·25전쟁에 이르는 이 시기는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단, 전쟁, 가난 등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이 시기를 놓고 좌우로 편향된 시각과 평가가 대립하면서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깊게 해온게 사실이다. 1970년대까지는 우파적 시

각에서, 1980년대에는 좌파적 시각에서 해방전후사를 주로 평가했다. 그러나 광복60주년을 맞아 해방전후사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가 객관적이었는지, 편견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교정해 새롭고 건강한 시각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일고 있다. '제 3의 시각'에서 해방전후사를 재인식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평가되는 해방전후사

해방전후사 평가에 있어 주요 테마는 분단의 책임 소재, 농지 개혁에 대한 평가, 6·25전쟁의 기원과 책임 문제, 이승만에 대한 평가 등이었다.

이런 주제들을 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우파적인 시각(전통주의)이 득세했다. 특히 이승만 박정희 정권 아래서는 해방전후사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나마 관변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다 1980년대 학생·노동운동이 확산되면서 우파의 시각을 뒤집는 견해들이 대거 등장했다. 특히 6·25전쟁의 책임이 소련과 북한에 있기 보다는 미국과 남한에 더 많이 있다는 미국 시카고대 브루스 커밍스의 이론이 소개되면서 좌파적 시각(수정주의)이 세력을 얻어갔다. 그 결과 해방전후사 및 현대사는 반(反)민중 반민족 반민주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라는 시각이 확산됐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부터 기존의 우파적, 좌파적 견해 모두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 되기 시작했다. 그같은 자성이 실증 사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방전후사를 바라보려는 움직임으로 발전하면서 '해방전후사에 대한 재인식'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전상인(全相仁·사회학) 한림대학교수는 “이승만 박정희 시대의 우편향, 1980년대의 좌편향을 경험한 한국 사회가 이제 객관적 사료를 바탕으로 균형있고 종합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방전후사를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 다시 평가되는 쟁점들

④ ▽분단 책임 문제

좌파는 남측(이승만)과 미국에 분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광복 직후, 좌익과 중도파의 통일정부 수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미국이 1948년 단독정부를 수립해 분단이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반면 우파는 광복 직후 소련의 스탈린이 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시하고 곧이어 북한5도를 관할하는 '북조선 제(諸) 행정국'을 만드는 등 북측(김일성)과 소련이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분단을 초래했다고 반박한다. 우파의 주장은 소련의 비밀문서 등으로 입증됐다. 1948년의 남북협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소련공산당의 결정과 지령에 충실한 김일성 세력의 주도 아래 추진됐음도 소련의 자료로 입증됐다.

최근 들어서는 당시의 국제정치 역학관계속에서 양측의 책임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일영(金一榮·정치학) 성균관대 교수는 “이승만과 김일성은 단독 정부를 먼저 수립한 뒤 남진통일 북진통일을 추진했던 2단계 통일론자였다는 점에서 등가(等價)인 셈”이라면서 “당시의 엄혹했던 국제적 냉전질서와 국내의 좌우 대립 속에서 중간파의 통일정부 추진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였다”고 평가했다. 즉 단독정부는 불가피한 차선택이었다는 말이다. 이는 민족 민주 통일이라는 도덕적 명분의 잣대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미국

과 소련이 대립했던 당시의 냉전 현실을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⑧ ▽남측의 농지 개혁에 대한 평가

이승만 정권은 1949년 농민들에게 농지를 배분하는 농지개혁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좌파는 농지를 나눠줬지만 6·25전쟁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며 농민을 또다시 피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반면 우파는 농민들에게 삶의 토대를 제공한 개혁이라고 평가해왔다.

이에 대해 최근에는 농지개혁을 '건국(建國)과 부국(富國)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최근 제기됐다. 농지개혁이 농민들에게 땅을 제공해 한국인이라는 국가적 소속감(또는 정체성)을 심어주었다는 평가다.

김일영 교수는 “농지 배분을 통해 지주계급을 몰락시켰기 때문에 1960년대 지주 계급의 저항 없이 경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⑨ ▽6·25 전쟁의 책임 문제

1980년대 성행했던 북침설이나 남침 유도설 또는 내란설은 그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 1990년대 중반부터 소련과 중국의 남침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면서 수정주의 시각의 근거들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최근엔 6·25 전쟁에 대한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의 접근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 하나가 6·25 전쟁이 남한의 국가 건설 과정에서 끼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시도다. 전쟁을 통해 남한 국민의 통합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같은 시각은 냉전시대가 종식되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 그같은 정체성(통합 의식)을 긍정적인 정체성으로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전쟁을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김귀옥(金貴玉·사회학) 한성대 교수는 “분단과 전쟁은 정치적 거시적 시각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며 “보통 사람들의 전쟁 경험을 통해 미시사적 생활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데올로기를 넘어·불임(不妊)이 아니라 맹아(萌芽)의 시기

해방전후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우리 현대사를 좌우 이데올로기의 시각을 뛰어 넘어 객관적 사료를 토대로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과거 독재정권하의 우파적 시각이나 1980년대 이후 좌파의 시각 모두 정치 이데올로기의 굴레에 갇혀 인간을 외면해 버렸다는 자성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해방전후사에 대한 재평가는 이 시기를 암흑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이어진다. 김영호(金暎浩·국제정치학) 성신여대 교수는 “80년대의 좌파식 견해는 자칫 한국의 해방 전후사를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민주화를 거쳐 자유주의의 완성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사의 긍정적 요소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이뤄지는 해방전후사 재인식 작업에 대한 반론도 있다. 박태균(朴泰均·한국사) 서울대 교수는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증적인 자료에 기초한 그같은 연구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실재론 그리 새로운 것이 없는데다 너무 결과를 놓고 과거를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결과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시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말이다.

박 교수는 또 “인권이나 평화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결과만으로 역사를 바라본다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막아낼 논리가 사라질 것”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일영 교수는 “역사 평가에 있어 현실적인 결과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과거의 잘못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준으로 해방전후사의 명암을 제대로 판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덧붙였다.

“해방전후사는 분명 암울한 시기였다. 그러나 오로지 불임의 시기는 아니었다. 해방전후사엔 1960년대로 이어지는 맹아(萌芽)의 측면도 있었다.”

8. ▼‘제3의 인식’ 어떤 연구성과 있나▼

이광표

동아일보 2005년 8월 11일

해방전후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말. 당시 저작물로는 유영익(柳永益·역사학) 연세대 석좌교수 등이 펴낸 ‘수정주의와 한국 현대사’ ‘이승만 연구’(이상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전상인 한림대 교수의 ‘고개 숙인 수정주의’(전통과 현대)를 들 수 있다. 전 교수는 좌우 이데올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방법론을 모색하면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 특히 서울 사람이 아니라 지방 사람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 말엔 차상철(역사학) 충남대 교수의 ‘한미동맹 50년’, 김일영 성균관대 교수의 ‘건국과 부국’(이상 생각의 나무) 등이 나왔다. 김 교수는 단독정부 수립과 6·25전쟁 등을 국가 형성과 경제 성장 과정으로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이달 말 출간 예정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푸른 역사)도 눈길을 끈다. 1980년대 386세대를 사로잡았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 시리즈(한길사)가 좌편향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된 책. 박지향(朴枝香·서양사) 이영훈(李榮薰·경제학) 서울대 교수, 김철(金哲·국문학) 연세대 교수, 이정식(李庭植·정치학)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 김남영(경제학) 동국대 교수, 카터 에커트(정치학) 미 하버드대 교수, 차상철, 김일영 교수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30여 명이 필자로 참가했다.

9.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해전사 좌편향에 반기... 역사 다시 쓰기

김남중

국민일보 2006년 2월 9일

1979년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이 출간된 지 27년만에 그 내용을 전면 비판하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 나왔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세력의 역사 교과서이자 '386'으로 대표되는 한국 진보주의자들의 역사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인식'의 역사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재인식》은 출간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책은 국내 이념대립의 단골 주제인 과거사 청산 문제와 친일 청산, 한국전쟁의 책임론, 한미동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에 대해 국내 보수진영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 ◇주요내용

두 권을 합해 총 1400쪽이 넘는 《재인식》은 식민지 시대와 그 후 1950년대를 무대로 민감한 논점들을 짚어간다. 먼저 《재인식》은 일본 식민지 시대를 산 사람들을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에서 대표적 친일파로 낙인찍힌 소설가 이광수를 일본의 힘을 빌려 조선인이 강력한 민족으로 재창하기를 간구했던 민족주의자로 재규정하는가 하면,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 민족운동단체로 알려진 '조선어학회'가 사실은 조선총독부와 항상 적대적인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둘이 협조했던 사례가 있다고 제시한다.

전쟁과 분단의 책임을 이승만과 미군정에 돌리는 '인식'의 역사 해석에도 반대한다. 이정식(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 김영호(성신여대 정치외교학) 등의 논문을 통해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할 의향을 밝히기 전인 1945년 9월에 스탈린이 북한의 소련군정에 독자적인 행정기구를

22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언론의 반응



그림 3:

구축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고, 한국전쟁은 스탈린의 세계전략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또 '인식'이 독재자로 묘사한 이승만을 '한국판 마키아벨리'로 평가하고, 한·미동맹의 기본이 된 한미상호보호조약 체결은 그의 최대 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역사 해석은 1950년대에 대한 시각 교정도 요구한다. 그 시기를 외세에 좌우되던 어둡고 정체된 시기로 기술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만족스럽지는 못해도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시도하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교육을 확대하는 등 나름의 진보가 이뤄졌다”고 의미 부여한다.

④ ◇출간 의미

'인식'이 반공주의로 얼어붙은 1970년대 말 우리사회의 이념추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데 기여했다면,《재인식》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

치며 이념추가 좌측으로 너무 치우쳤다는 판단 아래 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재인식》의 편집위원들은 '인식'이 근현대사를 좌파적·민족지상주의적으로 해석했다고 규정하고, 이런 시각이 그동안 우리 지식계를 압도해 왔다고 진단한다.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머리말에서 “우리는 '인식'의 역사 인식이 너무도 편협하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음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출간 의의를 설명했다.

또 《재인식》은 '인식'의 역사 서술이 일국적인 한계를 가지고 이데올로기에 편향돼 있어서 비교사적 관점과 실증적 태도를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재인식》은 '인식' 출간 이후 20여년간에 걸쳐 축적된 근현대사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식민지 경제의 발전을 조선 경제의 발전으로만 해석할 수 없듯이 그 성장의 과실을 모두 일본인이 차지하고 조선인은 거기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역설한다. 또 북한이 해방 후 내걸었던 '혁명적 신인간'이란 일제가 전시에 내걸었던 '혁신적 국민'의 재판에 불과하며, 일제의 전시 통제경제체제가 지금까지 계승되었다고 분석한다.

한편 '인식'을 출간한 한길사의 강옥순 주간은 “《재인식》 편집진이 '인식'에 담긴 시각을 좌파로 몰고 가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한 뒤 “'인식'에 깔린 역사의식은 민족주의 그 자체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인식》의 편집진이 그들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를 독자적인 형태로 발간하지 못하고 '인식'을 걸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해전사〉 어떤 책인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1979년 10월 15일에 첫 권이 출간됐으며, 이후 10년에 걸쳐 6권으로 완결됐다. 지금까지 모두 합해 50여만부가 판매됐다. '인식'은 10·26으로 판금되었다가 1980년 서울의 봄으로 해금됐다. 5·17 이후 저자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조사받았으며 대학으로부터 쫓겨나는 등 수난을 겪었다. 한길사는 2004년 '인식'의 출간 25주년을 맞아 재출간을 하면서 “친일 군상부터 반민특위, 미군정, 분단에 이르기까지 해방 전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처의 흐름을 매우 사실적으로 진단하는 동시에 오늘의 역사, 사회의 현실적 맥락이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적확하게 해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인식'에 참여한 필자들은 그동안 사회와 학계, 그리고 정부에서 활약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망라됐다. 강만길 임헌영 염무웅 이종석 최장집 송건호 백기완 김윤식 조동길 등 50여명에 이른다. 이 중 강만길 교수는 현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며, 이종석은 NSC 사무처장을 거쳐 통일부장관에 내정됐다. 임헌영 중앙대 문창과 교수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이며, 최장집 고려대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에 큰 역할을 했다.

출간 과정·저자 면면

재인식'은 2004년 초가을 처음 기획되었다. 박지향(서울대 서양사) 교수는 머리말에서 “그 무렵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지면을 통해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른바

386세대를 대표하는 노 대통령의 역사 인식에 대한 견제와 반발 의식이 직접적 집필 계기였음을 숨기지 않았다.

박 교수는 이어 “20여년간 학계의 부단한 연구로 ‘인식’에서 제기된 주장들의 잘못이 지적되고 수정되어왔는데도 그런 사실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그간 진척된 수준 높은 학술 논문들을 선정, 대중에게 알기 쉽게 재시해주자는 목표로 책을 냈다”고 밝혔다. 그 해 겨울 박 교수는 김철(연세대 국문학) 김일영(성균관대 정치외교학) 이영훈(서울대 경제사) 등 4인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했다. 참가한 필자는 모두 20명.

이 중에는 카터 J 에커트(하버드대 한국학), 기무라 미쓰히코(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 등 외국 필자뿐만 아니라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 신형기(연세대 국문학) 등 ‘인식’ 필자들도 일부 참여했다. 편집위원회는 기존에 발표된 논문들 중 우수한 것을 골라 뽑은 뒤 필자들에게 수정을 요구해 수록했다.

《재인식》은 출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처음부터 작업을 함께했던 출판사가 구체적인 이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출판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런 일을 두 번이나 겪었다. 이 일에 대해 편집위원들은 우리 지식계와 출판계의 편향성, 그리고 비판과 토론을 수용하지 않는 편협함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새삼 실감했다고 밝혔다.

출판사를 두고 돌던 원고는 책세상 출판사를 통해 빛을 보게 됐다. 김광식 책세상 주간은 “나 역시 《재인식》의 취지에 모두 공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학자들의 합리적 발언이 봉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출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26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언론의 반응

그림 4:

10. “解前史는 편향”... 이념논쟁 부를 듯

김범수

한국일보 2006년 2월 9일

解前史의 우파 버전《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필독서로 꼽혔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해 발행 진부터 관심을 끌었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 8일 출간됐다. 박지향 이영훈(이상 서울대) 김철(연세대) 김일영(성균관대) 교수가 편집을 맡아 책세상 출판사에서 2권으로 나온 이 책은 서두에서부터 《해전사》를 '좌파민족주의'의 영터리 역사학으로 몰아붙여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진영간 이념적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글 '왜 다시 해방전후사인가'에서 이영훈 교수는 《해전사》를 '1980년대 좌파민족주의 진영의 정치학에 충실한 실천적 역사쓰기'에 다름 아니라고 혹평했다.

책에는 최신 연구성과를 반영한 전문 연구자들의 논문 30편과 편집위원 대담 1편이 실렸다.

박지향 교수는 머리말에서 《해전사》는 '본래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이념'인 '민족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을 담고 있으며, 이런 역사인식이 '우리 역사에 끼친 폐해'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인식》은 '있는 그대로의 사료를 바탕으로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해방 전후사를 재인식해보자는 의도에서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그림 5: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현실 조건을 잘 활용한 마키아벨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해방 직후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을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구체적으로 일제시대 및 친일파와 관련해 《해전사》가 친일 대 반일, 애국 대 매국, 수탈 대 꺾박이라는 이분 구조를 강조한다면, 《재인식》은 단순 이분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태의 이면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분단과 한국전쟁에 대해 《해전사》가 이승만과 미군정에 책임을 돌린다면, 《재인식》은 미소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스탈린의 세계 전략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농지개혁의 경우 《해전사》가 지주제를 온존시키고 영세농민만 만들었다고 폄하한데 반해, 《재인식》은 농지개혁 덕분에 남침한 북한군

이 기대했던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승만 정권과 1950년대에 대한 평가는 특히 엇갈린다.

《해전사》는 이승만을 개인적 탐욕으로 분단에 앞장섰고 장기집권으로 결국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는 식으로 서술하는 반면, 《재인식》은 약소국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방위조약, 수입대체 산업화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마키아벨리 같은 인물로 그렸다.

《재인식》의 역사 해석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1979년 출간돼 베스트셀러가 됐던 《해전사》 제1권 필자인 조동걸 한양대 명예교수는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해전사》의 필진이면서 《재인식》에도 자신의 논문 게재를 허락한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편집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자는 이념 성향을 논할 필요가 없는 전문 연구자들이고 《해전사》 이후의 연구성과를 반영한 이런 책일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면서도 “《해전사》를 좌파 편향으로 매도하거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편집위원들의 지적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수진영 '새 역사책' 필요

▽ ‘... 재인식’ 왜 나왔나—“균형잡힌 시각” 강조 불구 편집위원 대부분 보수파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어쩌면 많은 연구자들이 벌써부터 기다려온 책일지도 모른다. 1979년 첫 권을 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94년 제6권으로 마무리될 즈음부터 국내 학계의 근현대사 연구가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시대적인 소용에도 불구하고 《해전사》는 이 물리적인 ‘시차’ 때문에 일찍이 속편을 봐야 하는 책이었다. 문제는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재인식'의 쟁점별 입장차

해방전후사의 인식	분량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6권(논문 58편)	조선어학회 활동	2권(31편)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민족운동이다	일제 잔재 청산	조선어학회도 일제에 협조, 제국의 틀 안에서 차별을 완화하고 이익을 확보하는 수준이다.
북한의 일제 잔재 청산은 완벽했다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의 실패	남북한 모두 일제와의 단절보다 연속이 해방전후사를 지배했다
미군정의 적대정책 때문이다	농지 개혁	노동계급의 성숙도를 믿지 않고 강경노선으로 치달은 결과다
지주제가 옳았었고 영세농민만 만들어냈다	분단과 한국전쟁	농지개혁의 성공 덕에 남침한 북한군이 기대했던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승만과 미군정에 책임이 있다	이승만 정권	미소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스탈린의 세계전략이다
개인적 탐욕으로 분단에 앞장섰고 장기집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	1950년대	약소국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하려고 한미방위조약, 수입대체 산업화라는 목적을 정하고 그것을 위해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마키아벨리다
외세에 좌우된 어둡고 정체된 시기다		의회·정당 정치를 확립하고 국민교육을 확대하는 등 나름의 진보가 있었다

그림 6:

《해전사》에 대한 비판을 자임하면서, 한편으로 《해전사》의 속편으로 볼 수도 있는 《재인식》이 근현대사에 대한 보수적 인식을 대변하는 책으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출간 전부터 편집위원들이 일제시기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 근현대사를 《해방 전후사의 인식》보다 좀 더 균형잡힌 시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수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그런 혐의를 살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책에 실릴 논문을 고른 편집위원 4명 중 김일영 교수는 '뉴라이트 싱크넷'이라는 모임에, 이영훈 교수는 '교과서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교과서포럼'은 현 국사교과서가 사실 오류에서 이념 편향까지 문제가 적지 않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결성된 단체다.

둘 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신보수주의' 학술·사회단체 중 하나다. 책에 실린 '왜 다시 해방전후사인가'에서 이영훈 교수는 《해전사》를 좌익민족주의를 대변하는 책으로 심하게 몰아세우고 있다.

또 박지향 교수는 '2004년 초가을 노무현 대통령이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보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 이 책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실린 글들이 한결같이 균형 감각을 갖췄느냐는 것도 따져볼 문제다. 한국전쟁 이후 현대사를 전공한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는 “한미방위조약 체결은 긴 교섭기간 전체를 놓고 공과를 평가해야 하며, 경제에 무관심했던 이승만의 수입대체산업화를 업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 동안 이승만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건 사실이나 이런 식의 종합적이지 못한 평가가 균형 잡힌 역사 서술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11. ●해전사란...

박광희

한국일보 2006년 2월 9일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1980년대 한국 진보학계와 젊은 세대의 역사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대중 역사서이다. 1979년 10·26 직전 제1권이 나왔으며 89년 제6권 출판으로 완간됐다. 책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해방 전후 한국 사회를 종합적으로 조명했으며, 특히 친일문제 등 제도권이 다루지 않은 주제를 집중 소개해 큰 반향을 일으키며 대학가의 필독서로 떠올랐다.

지금까지 50만~60만권 정도 판매됐는데, 이 가운데 1권이 40만권 정도 된다. 1권의 파급력이 그만큼 강렬했던 것이다. 1권은 초판 출판 직후 판금 조치 당했으나 80년 원고 일부가 삭제된 가운데 신군부의 검열을 통과, 합법적으로 판매됐다.

서울대 김학준, 이화여대 진덕규, 성균관대 이동화, 영남대 염무웅, 중앙대 유인호 이종훈 교수와 언론인 송건호, 친일문제연구가 임종국, 재야운동가 백기완, 문학평론가 임현영씨(이상 당시 직책) 등이 저자인데 지금 보면 우파 인사도 적지 않다.

12. ‘解前史’ 맞선 《재인식》 출간...출판계 좌·우 논쟁

조운찬·도재기

경향신문 2006년 2월 9일

최근 이른바 뉴라이트와 뉴레프트를 표방하며 활발한 조직 결성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국내 지식인들의 좌·우 논쟁이 출판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영훈(서울대)·김일영(성균관대) 교수 등 보수

**'해전사'와 '재인식'의
역사인식 비교**

해방전후사 인식		해방전후사 재인식
침략·수탈로 자본주의 싹 제거	일본제국주의 성격	경제력 발전, 근대화에 기여
남한은 불철저, 북한은 청산완료	일제잔재 청산	남북한 모두 일제잔재 청산 실패
이승만과 미군정에 책임	분단과 한국전쟁	스탈린의 세계 전략에 기인
일제에 저항한 민족운동	조선어학회 활동	조선총독부 정책에 협조
불철저한 개혁, 자주제 온존	농지개혁	성공적인 개혁
부일 세력 끼고 집권, 분단 초래	이승만 정권	대한민국의 성장 기반 마련
정치적 혼란기	1950년대	의회정치·정당정치 확립기

그림 7:

진영의 학자 20여명은 8일 1990년대 이후 해방 전후사의 연구성과를 모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전2권·도서출판 책세상, 이하 《재인식》)을 출간했다.

이·김교수와 함께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박지향 서울대 교수는 머리말에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해전사》의 인식을 극복할 현대사 연구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교수는 또 “지난 20여년간 학계의 부단한 연구로 《해전사》에서 제기된 주장들의 잘못이 지적되고 수정돼 왔는데도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심각하게 왜곡돼 있는 역사인식을 균형있게 되

돌려 놓는 일이 시급했다”고 출간 취지를 밝혔다.

편집위원들은 《재인식》은 이러한 취지에 맞도록 《해전사》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을 살펴보면 과연 얼마나 균형 감각을 갖추었는가에는 의문이 적지 않다. 게다가 일부 글에는 국내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가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 우편향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인식》은 먼저 《해전사》의 역사관을 민족지상주의·민중혁명 필연론으로 규정, 이들 사관이 우리 역사 해석에 미친 피해를 지적하고 있다.

이영훈 교수는 《해전사》의 해방 전후사 서술이 80년대 좌파민족주의적 인식과 연관이 있다면서 《해전사》 필자로 참여한 최장집·정해구 교수의 논문을 ‘좌파 민족주의 진영의 정치학에 충실한 실천적 역사쓰기’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 책은 또 《해전사》가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운동사라고 비판한 뒤 《재인식》은 이데올로기적 편향 없이 당시 사회를 실증적으로 서술했다고 밝혔다.

편집위원들은 또 《해전사》가 일제시대와 친일과 문제를 친일 대 반일, 애국 대 매국의 이분법적 구분을 취한 데 반해 《재인식》은 이 분법을 뛰어넘어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면 탐구의 성과를 담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비판에 대해 《해전사》 집필진과 이 책을 발간한 출판사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전사》 1권에 필자로 참여한 문학평론가 임현영씨는 “우리 현대사 연구가 황무지였던 20여년 전 진지하고 양심적인 학자들이 객관적

으로 조명한 게 《해전사》였다”면서 “학문사적인 의의가 큰 《해전사》를 민중혁명론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임씨는 “《재인식》의 내용을 분석, 《해전사》 비판이 이데올로기에 편향돼 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전사》를 출간한 도서출판 한길사도 발끈하고 있다. 한길사의 한 관계자는 “《해전사》에는 송건호, 염무웅, 유인호, 백기완, 김학준 씨 등 민족주의자들이 주요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해전사》를 이데올로기의 운동사로 규정한 《재인식》의 편집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길사는 《해전사》를 좌파로 매도하는 일부 학자들과 보수언론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10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해전사》에 모두 3편의 글을 실고 《해전사》 제6권 기획자이면서도 이번 《재인식》에 논문을 기고한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해전사》를 일국사적 관점에서 저술하고, 좌파편향적이라는 《재인식》 일부 편집위원들의 지적을 강력 비판한다”며 “일부 우파성향의 연구자도 있지만 나를 비롯해 각 필자들의 입장은 모두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재인식》의 또다른 필자는 “이 책은 수십명의 학자가 연구해온 지적 산물을 모은 것일 뿐”이라며 “어떤 정파적 이데올로기를 표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전사》는 어떤 책… 민족주의 시각의 ‘재야 역사교과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1979년 첫권이 출간된 이후 89년까지 모두 6권으로 완간됐다. 80년대 지식인층의 ‘재야 역사교과서’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지금까지 모두 50여만권이 팔려나가며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책은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미군정, 분단, 반민특위활동, 친일파, 농지개혁, 건국준비위원회 등 해방 전후의 주요 사건을 다루며 그동안 연구 사각지대였던 해방 전후시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제1권은 초판 직후 판금 조치를 당했으나 80년 들어 원고를 일부 삭제해 합법적으로 재출간됐다. 주요 필자는 언론인 송건호씨, 정치학자 진덕규·김학준씨, 경제학자 유인호·이종훈·박현채씨, 문학평론가 임현영·염무웅씨 등이며 정치학자 최장집·정해구·박명림 교수 등 필자의 상당수는 학계의 중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13.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좌편향”... 역사 다시 썼다

안석호

세계일보 2006년 2월 9일

보수진영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1980년대 이후 한국 근현대사 이해를 위한 필독서로 불린 《해방 전후사의 인식》(한길사·이하 《해전사》)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해 출간 전부터 논란을 일으킨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이하 《재인식》)이 8일 출간됐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의 역사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해전사》가 진보세력의 역사관을 대변한다면 《재인식》은 보수 세력 역사관을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은 특히 양 세력 간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는 친일청산과 한국전쟁의 책임, 한·미 문제 등에 있어서 보수주의 목소리를 대변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재인식'의 쟁점별 입장차

해방전후사의 인식		
	6권(논문 38편)	분량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인 민족운동이다		조선어학회 활동
북한의 일제 잔재 청산은 완벽했다		일제 잔재 청산
미군정의 적대정책 때문이다		조선노동조합전국 평의회(전평)의 실패
지주제가 온존했고 영세농민만 만들어냈다		농지 개혁
이승만과 미군정에 책임이 있다		분단과 한국전쟁
개인적 탐욕으로 분단에 앞장섰고 장기집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았다		이승만 정권
외세에 좌우된 어둡고 정체된 시기다		1950년대

그림 8:

《재인식》에는 최신 역사 연구 내용을 담은 논문 30편과 서울대 박지향 이영훈 교수 등 편집위원들의 대담 1편이 실려 있다. 이 책은 서두에서부터 《해전사》가 편협하고 균형 감각을 잃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박지향 교수는 머리말에서 《해전사》는 본래 배타적이고 폭력적 이념인 민족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을 담고 있으며 이런 좌파적 역사 인식이 야기한 부정적 효과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재인식》은 있는 그대로의 사료를 바탕으로 이분법적인 시각이 아닌 공평하고 객관적 시각에서 해방 전후사를 재인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했다고 설명했다.

총 2권으로, 1400쪽이 넘는 《재인식》은 식민지 시대와 그 후 1960년대까지 친일과 민족주의, 일제잔재 청산, 분단과 한국전쟁, 한미동맹 등 좌우의 논란의 핵심이 된 사안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재인식》은 우선 일본 식민시대를 겪은 세대를 친일·반일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데 반대한다. 당시 대중들의 심리상태가 일제에 종속된 데 대해 분노함과 동시에 처음 경험한 근대성에는 기쁨을 느끼는 등 매우 복잡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 친일파로 불리는 소설가 이광수는 일본의 힘을 빌려 민족 재생을 꾀한 민족주의자로 재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제에 저항한 대표적 민족운동인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 보급 등은 오히려 총독부의 필요에 맞아떨어진 정책이었다고 주장한다.

한국 전쟁과 분단의 책임에 있어서도 《해전사》는 이승만을 개인적 탐욕으로 분단에 앞장섰고 장기집권을 획책하다 결국 민중의 심판을 받은 인물로 서술하지만, 《재인식》은 약소한 대한민국의 생존을 확보하려고 한미방위조약과 수입대체 산업화를 위해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마키아벨리 같은 인물로 그렸다. 농지개혁은 《해전사》가 지주제를 온존시키고 영세농민만 만들었다고 깎아내린 데 반해, 《재인식》은 농지개혁 덕분에 남침한 북한군이 기대한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재인식》의 역사 해석에 대한 학계 반응은 갈렸다. 《해전사》의 필자인 조동걸 한양대 명예교수는 “수궁할 부분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전사》와 《재인식》 모두에 글을 실은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편집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자들은 이념 성향을 논할 필요가 없는 전문 연구자”라며 “《해전사》를 좌파 편향으로 매도하고 역사인식을 문제삼는 편집위원의 지적은 수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1979년 10월 15일 도서출판 한길사에서 첫 권이 출간됐으며, 이후 10년에 걸쳐 6권으로 완결됐다.

10·26사태 이후 판금됐다가 1980년 ‘서울의 봄’으로 해금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50여만부가 판매됐다.

이 책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해방전후 한국 사회를 종합적으로 조명했으며, 특히 친일문제 등 제도권 사학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집중 조명해 대학가의 필독서로 자리잡았다. 5·17 이후 저자들이 대거 구속되거나 조사 받았으며 대학에서 쫓겨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14.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편향된 역사접근’ 바로잡기

권재현

동아일보 2006년 2월 9일

한국 사회, 특히 현 집권세력과 이른바 386세대의 현대사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친 《해방 전후사의 인식》(약칭 해전사)으로 상징되는 ‘좌파적 역사인식’의 편향성을 극복하고 현대사 해석의 균형추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책이 우여곡절 끝에 8일 출간됐다.

《해전사》식 역사인식의 좌편향성과 이분법적 접근을 비판하며 한국현대사 이해의 중층성과 복합성, 역동성을 강조하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약칭 재인식·책세상)이다.

서울대 박지향(朴枝香·서양사학), 이영훈(李榮薰·경제사), 연세대 김철(金哲·국문학), 성균관대 김일영(金一榮·정치외교학)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재인식》은 《해전사》가 민족지상주의와 민중



그림 10:

혁명 필연론에 사로잡혀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국내의 논문 28편과 편집위원의 대답을 정리했다.

박지향 교수는 서문에서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노 대통령이 2004년 8월 25일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에서 ‘반민특위의 역사를 읽는 많은 젊은 사람이 가슴 속에 불이 나고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을 다 한 번씩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임)을 보도를 통해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재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왜곡된 역사인식을 조금이라도 교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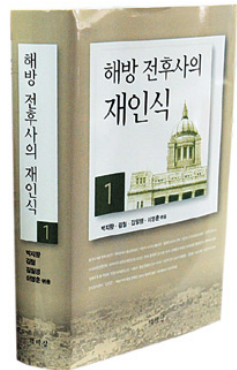


그림 9:

《재인식》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의 삶과 광복 후 친일 청산 문

제를 다룬 1권(15편의 논문·780쪽), 광복 이후 분단과 6·25전쟁의 책임 및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를 다룬 2권(13편의 논문과 편집위원 대담·696쪽)으로 이뤄져 있다.

필자 중에는 《해전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수정주의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부인인 우정은 미시간대 정치학과 교수, 《해전사》의 필자였던 이완범(李完範·정치학)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신형기(辛炯基·국문학) 연세대 교수도 있다.

《재인식》은 그 책의 내용 못지않게 기획과 출간과정에서 우리 지식인 사회가 이념과 비지성적인 편견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함을 확인시켜줬다.

이 책의 편집위원들은 처음부터 “《해전사》의 역사인식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정치색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는 글들만 엄선한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그러나 필자 섭외 과정에서 많은 학자들이 기고를 회피했다.

박지향 교수는 “준비 과정에서 외국에서 발표된 훌륭한 연구물을 실으려 했는데 거절당한 경우가 있었다. 연구자가 국내 반응과 분위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며 “사실을 사실대로 탐구하는 연구조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담에서 밝혔다.

최근엔 한 언론이 ‘역사 연구가 특정 이념이나 정책적 목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선 안 된다’는 재인식 출간 취지를 무시한 채 ‘뉴라이트판 해전사’라고 보도해 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책이 인쇄돼 나올 때까지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하기도 했다.

현대사에 관한 한 좌파적 역사관이 득세하며 성역처럼 굳립하고 있는 지식인 사회의 굴절된 단면은 책 출판 과정에서도 엿보인다. 이 책은 2004년 11월 본보가 그 출간 기획 소식을 처음 보도한 뒤 학계와 출판

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당초 책을 내기로 했던 출판사로부터 두 번이나 보이콧을 당했다.

지난해 초 출판의사를 밝혔던 한 출판사는 기획과정에서 “정치색이 너무 뚜렷해지는 바람에 진보적 시각을 유지해온 우리 출판사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출판을 거부했다. 또 다른 출판사는 출판계약까지 해놓고는 책이 발행되기 보름 전에 돌연 이를 덮어버렸다. 일부 편집위원들의 반대로 책 출간을 포기한 또 다른 한 대형 출판사 관계자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일부 위원들이 역사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출판계에서는 이들 출판사가 민족주의와 통일 지상주의 성향이 강한 역사학 필진을 의식해 이를 거부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완범 교수“재인식 출간 정치적악용 말아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재인식)을 꼭 《해방 전후사의 인식》(해전사)에 대한 공격과 비판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전사》가 열어젖힌 지성사적 사건의 연장선에서 한 차원 높은 학문적 논의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해전사》와 《재인식》에 모두 필자로 참여한 이완범(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두 책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 교수는 《해전사》에 3편의 글을 기고해 임헌영(任軒永·국문학) 중앙대 교수와 함께 가장 많은 글을 기고한 학자다. 그는 《해전사》의 마지막 책인 6권 기획에도 참여했다.

“저는 《해전사》가 처음 출간된 1979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 영광 없는 《해전사》 세대라고 해야겠지요. 《해전사》를 대학 1학년 시절 처음 읽었을 때 감동은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그동안 흐른 세월을 감안한다면 《해전사》는 이제 박물관에나 가야 할 책이 되지 않았느냐”며 《재인식》의 출간을 비판이 아니라 창조적 극복으로 바라봤다.



그림 11: 이완범 교수

이 교수는 “《재인식》의 출간이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면서 “이 책의 출간을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잡아 가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15.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출간]《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다른점

김희경·전승훈

동아일보 2006년 2월 9일

《8일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약칭 재인식)에 실린 논문들은 ‘탈(脫)민중민주주의’ ‘이데올로기에 치우치지 않은 실증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을 공통의 기조로 내세운다. 1979년부터 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약칭 해전사)의 역사해석이 민족·민중주의적 관점의 지향성이 뚜렷한 반면 《재인식》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해전사》와 《재인식》이 대비되는 주요 주제는 농지개혁, 분단과 6·25전쟁의 원인, 이승만 정권 평가 등이다. 《해전사》가 한국사의 질곡으로 지적해 온 대상들에 대해 《재인식》은 오히려 근대화를 이르게 한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까닭에 《해전사》와 《재인식》은 상호 보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제대로 된 독법(讀法)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④ ▽친일과 일제 잔재

=《해전사》는 친일 군상의 실태를 고발하면서 일제 잔재의 미청산을 역사 왜곡의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했었다. 반면 《재인식》은 일제강점기의 사회상이 친일-반일의 도식적인 구도로 쉽게 이분화되지 않을 만큼 복잡적이었다고 주장한다.

한 예가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펼쳐진 한글운동에 대한 평가다. 이 운동이 민족주의 운동의 최후의 보루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지만 《재인식》에서 이해령(국문학) 성균관대 강사는 조선어학회가 추진하는 철자법 개정, 교과서 개정 등 조선어문 통일을 조선총독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형식적 민주주의를 도입했을 뿐 일제 잔재를 남겨 놓았지만 북한에서는 일제 잔재 청산이 철저히 이뤄졌다는 진보학계의 시각에 대해 《재인식》에서 기무라 하쓰히코(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농업 부문의 생산책임제 강제수매제 등 일제가 구축한 전시 통제경제 체제가 해방 후 북한에서 거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승됐다”고 지적했다.

신형기(국문학) 연세대 교수는 “해방 후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이 ‘혁명적 신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지만 그것은 결국 일제가 전시에 내 걸었던 ‘혁신적 국민’과 다를 바 없었다”며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동원 체제로부터의 해방을 뜻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④ ▽농지개혁

《해전사》는 미군정의 토지정책이 반봉건적 지주제를 온존시켰으며 이를 원형으로 한 정부 수립 이후의 농지개혁은 지주의 이익을 대변한 타협적 해소책에 불과했고 영세소농경영체제의 고착이라는 결과를 낳

해방전후사의 인식 (1979~1989년 발간)	◀VS▶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006년 발간)
1945~1953년	다른 시대	1930~1950년대
운동사-이념사 강조 역사 진행의 과정에 초점	특징	일상사-비교사 강조 역사적 선택의 결과에 초점
민족주의 민족주의 수정주의 이상주의	핵에서 드러난 역사관	탈민족주의 실증주의 현실주의
친일 대 반일, 애국 대 배국, 수탈과 핍박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이 강함	일제강점기 친일문제	일제를 적으로 삼으면서도 모범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모순적 중층적 상황이 지배적이었음
북한의 일제 잔재 청산은 철저한 반면 남한의 일제 청산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	남북의 일제 잔재 청산	북한은 일제의 친황제 파시즘과 전시 통제경제체제를 수정제 파시즘으로 계승. 남한은 일제의 전시경제체제를 허물고 자유시장경제로 이행
김구와 여운형의 좌우합작 노선이 옳았다는 입장	해방공간의 노선갈등	이승만의 단정노선이 현실적 대안이었다고 봄
미군정과 이승만에게 있다고 주장	분단의 책임	1945년 9월부터 이미 분단을 확정하고 남침을 지시한 스탈린과 이를 부차담한 김일성의 책임이 큼
북한의 농지개혁은 성공한 데 반해 남한의 농지개혁은 실패했다고 봄	농지개혁	남한은 농지개혁으로 농민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켰고, 자주제를 해체하고 자작농을 육성했기에 6·25전쟁 때도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았음
권력유에 사로잡힌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한의 미국 종속화를 낚음	이승만 정권의 평가	독재를 했지만 국민의 공산화를 막아내고 한미동맹과 미국 원조를 끌어내 민주화와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노획한 마카(마릴리스트)였음

그림 12: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인식》에서 김일영(정치외교학) 성균관대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은 지주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 지주가 산업자본가로 전신(轉身)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했다”며 “이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봉건적인 지주-소작인 관계의 해체를 꾀한다는 점에서 분명 개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북한이 6·25전쟁 때 점령정책으로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의 호응을 유도하려 했지만 이미 1950년 3~5월에 농지를 분배받은 남한의 농민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분단과 6·25전쟁=《해전사》는 분단의 원인에 대해 북한이나 소련보다는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에 더 비중을 두었다. 6·25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보다 북한을 오판하여 남침하도록 만들었다는 ‘함정설’ 또는 ‘제한전쟁설’ 등이 더욱 중요하게 다뤄졌다.

그러나 《재인식》에서 이정식(정치학)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는 1945년 9월 20일 ‘소련이 점령한 북한지역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것’을 지시한 스탈린의 지령 등 새로 공개된 소련문서를 통해 6·25전쟁이 미소(美蘇) 냉전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위한 스탈린의 세계 전략에 기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스탈린은 중소(中蘇)방위조약을 체결한 다음, 미국의 봉쇄선인 38선을 돌파하여 남한을 소련의 영향권으로 편입함으로써 미국의 국제 위신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자 했다”며 “스탈린의 이러한 세계 전략을 부추긴 것은 김일성의 무력통일 의지였고, 여기에 중국의 참전 의지가 전달됨으로써 6·25전쟁이 실천에 옮겨졌다”고 말했다.

⑧ ▽이승만 정권 평가

《해전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 분열과 분단에 앞장서고 남한의 미국 종속화를 낳은 친미주의자이며, 개인적 탐욕과 장기집권으로 민중의 심판을 받은 지도자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재인식》은 이 대통령이 확고한 반공, 반일주의자였고 북진통일과 한미방위조약, 수입대체 산업화라는 목적을 위해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했던 마키아벨리스트였다고 평가했다. 흔히 이승만의 독재정치가 시작되는 계기로 알려진, 6·25전쟁 중 임시수도 부산에서 벌어졌던 ‘정치피동’과 ‘발췌개헌’에 대해 김일영 교수는 “북진통일을 목표로 한 이승만이 미국의 전쟁 수행과 동아시아 정책을 놓고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의회 및 야당의 지도자와 정치적 헤게모니를 다툰 사건”으로 정치사적 의미를 해석했다.

특히 대표적 수정주의 이론가인 브루스 커밍스 미 시카고대 교수의 부인인 우정은(정치학) 미시간대 교수는 《재인식》에서 “이승만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담보로 초강대국인 미국으로부터 최대한의 ‘지대(rent)’를 우려냈고 그렇게 얻어낸 자본을 강한 국가 유지를 위해 재투자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권재현

동아일보 2006년 2월 9일

1979년 제1권이 출간된 뒤 10년간 6권이 발간된 ‘해방전후사의 인식(해전사)’은 1970년대까지 학계에서 외면해 온 1945~53년의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본격 조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현대사를 외세에 의한 분단, 친일과 청산의 좌절, 민족 통일의 염원을 외면한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등 오욕이 점철된 역사로 각인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해전사》는 1980년대 대학가에서 ‘의식화 교육’의 필독 교재로 쓰이면서 386세대에게 큰 충격과 함께 현실 변혁의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이 됐다. 학술논문을 편집한 책이었지만 1권이 40만 부 이상 팔렸다. 1권은 초판 출판 직후 판매금지 조치를 당해 원고 일부를 삭제한 뒤 1980년 신군부의 검열을 통과했다. 《해전사》 기획을 주도한 학자들 가운데는 강만길(姜萬吉)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2권), 최장집(崔章集) 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4권),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내정자(5권) 등이 있다.

16. 뉴라이트판 《해전사》 나왔다

배영대
중앙일보 2006년 2월 9일

“2004년 초가을,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괴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지면을 통해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머리말에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이하 《재인식》)이 8일 출간됐다. 《재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한길사.이하 《해전사》)을 비판할 필요성에 공감한 국내외 학자 28명이 1년 넘게 준비해 내놓은 책이다. 그들이 비판하고자 한 《해전사》는 1979년 발간된 진보.좌파적 시각의 역사 논문집이다. 《해전사》는 진보적 성향의 386세대들이 역사교과서처럼 중시했던 책이다.

《재인식》 발간에 앞장선 학자는 보수.우파 지식인 모임인 뉴라이트 네트워크 소속 이영훈(서울대), 김일영(성균관대) 교수와 탈민족주의 이론가인 박지향(서울대) 교수 등이다. 이영훈 교수는 총론 격인 첫번째 논문 ‘왜 다시 해방전후사인가’에서 《해전사》식 역사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해전사》를 80년대 좌파 운동권과 주사파 탄생의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해전사》를 읽은 80년대 진보세력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수립된 남한 정권을 ‘반혁명 세력’으로 규정하고, 반대로 김일성이 소련의 사주를 받아 만든 북한 정권을 민족통일을 위한 ‘민주기지’로 여겼다는 지적이다. 진보세력이 《해전사》식 역사인식에 따라 민주기지(북한)와 연대해 반혁명세력(남한)을 몰아내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꾀했다는 결론이다.

해방전후사의 인식(1979년) 	재 해방전후사의 인식(2006년) 
미 군정과 이승만	분단 책임 스탈린과 김일성
내전	한국전쟁 스탈린이 주도
미국 이익 대변, 분단 앞장	이승만 평가 대한민국 생존에 기여
북한은 성공, 남한은 실패	친일 진세 청산 남북 모두 일제 영향 지속

그림 13:

머리말을 쓴 박지향 교수는 “지난 20여 년간 학계의 부단한 연구로 《해전사》에서 제기된 주장들의 잘못이 지적되고 수정돼 왔는데도 그런 사실이 일반 대중에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재인식》 출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재인식》은 《해전사》의 민족지상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이 우리 역사 해석에 끼친 폐해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창립된 뉴레프트(신진보) 싱크탱크인 '좋은정책포럼'의 김형기(경북대 교수·노동경제학) 공동대표는 “과거 《해전사》에 어떤 편향이

있었다면 본격 논쟁을 통해 편향을 해소하며 보다 발전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재인식》도 특정 이념에 집착해 비판하는 것이라면 또 하나의 편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17.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이한우

조선일보 2006년 2월 9일

『좌편향 현대史』 균형 잡는다

1979년 첫 권이 나온 이래 6권까지 발간되며 한국 현대사에 대한 좌파 수정주의 사관을 학계와 일반인에게 확산시킨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 이 책의 ‘오류와 편향을 바로잡은’ 새 책이 8일 출간됐다.

서울대 박지향(서양사), 이영훈(경제사), 연세대 김철(국문학), 성균관대 김일영(정치학)교수 4인이 책임편집을 맡고 28명의 학자가 집필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총 2권·책세상·이하 《재인식》)이다. 20여년간 연구성과를 총결집한 이 역사서의 출간으로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현대사의 주요 쟁점들을 둘러싼 좌우 진영 간의 학술논쟁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먼저 《해전사》는 민족지상주의와 민중혁명론이라는 70년대 한국 좌파 지식인들의 코드에 맞춘 우리 현대사에 대한 인식을 집대성한 책이다. 80년대 386 운동권들의 필독서였고 80년대 말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도 대표적인 현대사 교양서로 자리잡았다.

《재인식》의 1권은 일제시대와 북한 친일파 청산의 실상을 재조명한다. 일제하 조선인들의 삶을 다양한 각도로 조명하면서 독립운동가/친일파라는 이분법으로 도저히 잡아낼 수 없는 다수 민초들의 삶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자기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이라는 숙명에 좌절해야 했던 이중성이 대다수 주민들의 실상이었다는 것이다.

《재인식》은 현재 몇몇 좌파 진영에서 진행중인 ‘친일 청산’에 대해서도 비판의 화살을 날린다. 이영훈 교수는 “현재의 법에 따르면 30~40%가 넘는 고리대에 시달리던 조선 농민들에게 7~8%의 저리대출을 해주는 업무를 했던 식산은행의 근무사실만으로도 친일파로 몰아세운 법이 제대로 시행될 리 없다”고 말한다.

‘북한은 친일 청산을 완벽하게 했다’는 세간의 믿음도 《해전사》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재인식》은 그것은 “만들어낸 역사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북한의 경우 친일파라도 사회주의에 동조할 경우 문제삼지 않았고, 더불어 방조의 형식으로 지주 자본가 계급을 대거 남쪽으로 내려보냄으로써 ‘완벽한 친일 청산’이라는 허구를 창조해냈다는 것이다.

《해전사》에 비해 《재인식》이 특징적으로 다른 점은 50년대 이승만 시대에 대한 적극적 해석이다. 편집 책임자인 박지향 교수조차 “나도 이승만 하면 부정선거와 4·19만을 떠올렸으나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그가 정치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경제적으로 미국의 달러를 끌어들이며 수입 대체화 산업을 일으켰으며 사회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과 국민교육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털어놓았다.

《재인식》은 또 이광수에 대한 새로운 해석, 친일파 청산문제, 분

 <p>해전사(1979~1989)</p>	<p>해전사와 재인식의 중요 차이점 정리</p>	 <p>재인식(2006)</p>
6권 58편	분량	2권 31편
일국사적 관점	관점	비교사적 관점
민족 지상주의, 민중혁명 필연론, 좌편향 운동사	역사관	탈민족주의·탈이데올로기 실증을 바탕으로 한 역사관
해방 직전부터 1950년대 까지 연대별 분류없이 6 권에 담음	연대별 분류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해 방 전사를 다룬 1권과 해방 후 사를 다룬 2군으로 분류
친일 대 반일/애국 대 때 국/수탈과 핍박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일제시대 및 친일파 문제	이분법으로 재단되지 않는 복잡 하고 다층적인 이면 탐구
북한의 일제 청산은 완 벽했다	일제 잔재 청산	남북한 모두 일제와의 단절보다 는 연속이 해방 전후사를 지배 했다
이승만과 미군정에 분단 과 한국전쟁 책임이 있다	분단과 한국전	미소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스 탈린의 세계 전략에 기인한 것
자주제가 온존했고 영세 농민만 만들어냈다	농지개혁	농지 개혁의 성공 덕분에 남침 한 북한군이 기대했던 남한내 민중 봉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분단에 앞장, 장기 집권, 민중의 심판	이승만 정권	한미방위조약, 수입대체산업화 라는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 해 기회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
외세에 좌우된 어둡고 정체된 시기	1950년대	의회정치와 정당정치를 확립하고 민주주의·국민교육을 확대하는 등 나름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14:

단의 책임문제, 농지개혁의 성공, 좌익노조인 전평(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의 실패 원인, 부산정치파동의 배경 등을 둘러싼 새로운 자료와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다양한 논쟁들을 발화시킬 전망이다.

이번 《재인식》은 단순히 좌편향 《해전사》에 대한 우파의 반격이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선다. 무엇보다 국내외 일류학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카터 에커트(하버드대 한국학), 기무라 미쓰히코(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 등 외국학자들을 비롯해 연세대 유명익 석좌교수(한국사), 이만갑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이정식 미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정치학) 등 국내 원로학자들과 동국대 김낙년, 서울대 전상인, 충남대 차상철 교수 등 중진 학자는 물론이고, 《해전사》의 필자였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완범 교수(정치학)와 연세대 신형기 교수(국문학), 그리고 커밍스의 부인인 우정은 교수(미국 미시간대 정치학)가 쓴 글까지 들어 있다.

한편, 박지향 서울대 교수는 편집진을 대표해 머리말에서 “1980년대 출간된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지면을 통해서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 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번 《재인식》이 제목으로 보나, 성향으로 보나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근현대사를 해석하는 일종의 준거 구실을 하고 있는 《해전사》에 대한 과상공세의 일환임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18. 여야 ‘해전사 재인식’ 반응

황재훈·송수경
연합뉴스 2월 9일

진보 386 세대들의 현대사 인식에 큰 영향을 미쳤던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에 맞서 현대사를 재조명하겠다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 발간됨으로써 학계의 뜨거운 논란이 시작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은 신중한 입장 속에서도 ‘재인식’ 발간이 뉴라이트 운동 등 일련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반면 한나라당은 편향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을 계기가 마련됐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그러나 정파와 관계없이 세대·출신에 따른 다양한 시각들도 표출됐다.

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9일 "역사적 진실은 사학자가 연구할 문제로 그것을 읽는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정치권이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없다"고 신중론을 견지했다.

하지만 386운동권 출신으로 80년대 전대협 2기 의장을 지낸 우리당 오영식(吳泳食) 의원은 "'해전사'는 일제시대 식민사관을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역사관을 찾기 위해 근현대사를 관통한 민족주의를 조명한 책"이라면서 "함부로 폄하하거나 소홀히 할 가치는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같은 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은 "'재인식'은 뉴라이트 운동 등 보수 수구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쓴 것 같다"면서 "'해전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쓴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쓰게 된 것은 역사를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목적을 갖고 해석하는 것은 국가와 미래의 장래를 오도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많은 국민에게 역사를 바로 알리기를 기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같은 당 김재원(金在源) 의원도 "대학에 가서 처음 읽은 책이 ‘해전사’였고, 그것을 읽으면서 비분강개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20년을 더 살아보면서 그 책이 갖고 있는 연사 인식과 접근 방법이 영터리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재인식’ 발간에 기대를 드러냈다.

부산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세대 이성권(李成權) 의원도 "다양한 역사관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 "그 당시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학문적 오류 부분을 재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80년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고진화(高鎭和) 의원은 "‘재인식’은 좌우의 대결이 아니라 좌우 통합을 지향했어야 한다는 그 당시에 대한 대체적 평가들에 반하는 책"이라면서 "민족주의라는 것을 배제하고 좌우의 이념대립적 시각에서 보려는 것은 극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9. [TODAY] 역사의 《재인식》...그 책이 주목받는 이유

윤정현

헤럴드경제 2006년 2월 9일

『우파적 관점서《해전사》논리 정면비판... 한국사에 대한 균형시각 제공
주목』

1970년대 대학가에 ‘전환시대의 논리’가 있었다면 80년대는 《해방 전 후사의 인식》(해전사)이 대학생들의 필독서였다. 79년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에서 등장한 《해전사》는 오랫동안 역사 연구의 빈 자리로 남아 있던 8·15 전후의 상황을 처음으로 집중 조명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90년대 중반 이후 운동권의 퇴조와 함께 대학가에서

의 열기도 시들해졌지만 현 정부의 주도적인 세력인 386세대의 현대사 인식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그로부터 27년 후인 오늘 해방전후사에 대한 새로운 진단이 나왔다. 서울대 박지향(서양사) 이영훈(경제사), 연세대 김철(국문), 성균관대 김일영(정치외교) 교수가 편집위원으로 출간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재인식)은 역사 인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책은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를 뒤흔들며 등장한 《해전사》를 다시 한 번 뒤집어 생각하는 통로를 열어줬다.



그림 15:

재인식이란 ‘고쳐서 달리’ 인식한다는 뜻. 《재인식》은 복잡하게 얽힌 한국의 현대사의 중층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해전사》의 좌파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한다. 역사인식의 편향성을 극복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다. 《해전사》가 좌파 민족주의를 일으켰다면 《재인식》은 민족이란 ‘20세기에 만들어진 신화’라고 규정하며 새로운 우파 탈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해전사가 해방 이후의 청산을 강조했다면 재인식은 남북 모두 단절보다는 식민지시대와의 연속성에 주목한다. 이는 한국전쟁과 이승만에 대한 평가 및 시각의 차이로까지 이어진다. 탈민족주의가 중심에 있는 점에서는 기존의 보수와 차별화되지만 《재인식》의 뿌리는 우파라는 중심점을 확고히 하고 있다. 보수·우파 지식인 모임인 뉴라이트 네트워크 소속의 이영훈, 김일영 교수의 참여도 이를 설명한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 역사를 보는 눈은 늘 좌나 우, 한쪽 눈을 가린 채였다. 역사를 보는 새로운 눈을

제공한 《재인식》의 출간이 역사학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터져 나오는 논쟁과 토론이 편향을 넘어서 한국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넓은 시야를 제공해 줄지 주목된다

20. ‘현대사 해석’ 보·혁 논쟁 접화

엄주엽

문화일보 2006년 2월 9일

◀《해방 전후사의 인식》 뒤집는 우파의 《재인식》 출간

8일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전 2권·책세상·문화일보 1일자 35면 보도)은 1980년대 소위 ‘운동권의 역사교과서’였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전 6권·한길사·1979년 1권 출간된 뒤 6권까지 발행)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쓴 역사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이번 책에 실린 상당수 논문들은 좌파적 입장이 주류였던 《해전사》와 비교해 우파적인 입장을 견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일본군성괴해여성 문제나 한글보급, 일제시기 경제발전과 친일파, 해방후 농지개혁과 한국전쟁, 국가건설 등의 여러 부분에서 완전히 상반된 논지를 펼치고 있어 학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해전사 재인식’의 편집위원은 ‘뉴라이트(New right·신보수)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영훈(서울대 경제사), 김일영(성균관대 정치학) 교수와 탈민족주의 이론의 입장에 서온 박지향(서울대 서양사), 김철(연세대 국문학) 교수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들 편집위원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의 학자를 포함한 28명의 논문이 실려있다.

《해전사》는 분단의 원인에 대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에 비증을 뒀지만, ‘해전사 재인식’에서 이정식(펜실베이

니아대 정치학) 명예교수는 “소련이 점령한 북한지역에 단독정부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스탈린의 지령 등 새로 공개된 소련문서를 통해 6·25전쟁이 미소(美蘇)냉전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위한 스탈린의 세계전략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평가에서도 《해전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민족 분열과 분단에 앞장 선 친미주의자로 기록한 반면, ‘해전사 재인식’은 이 대통령이 확고한 반공·반일주의자였고 북진통일과 한미방위조약 등을 최대한 활용했던 마키아벨리스트라고 평가했다.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의 부인인 우정은(미시간대 정치학) 교수는 ‘해전사 재인식’에서 “이승만이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담보로 미국으로부터 최대의 ‘지대’를 우려냈고 그렇게 얻어낸 자본을 강한 국가 유지를 위해 재투자했다”고 평가했다. 그 중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일본군성피해여성 문제다. 일본인 학자 후지나가 다케시(오사카산업대 교수)는 ‘상하이의 일본군 위안소와 조선인’이라는 논문에서 1930년대 상하이에 조선인 댄서와 카페 여급, 사창 등이 출현했고 나중에 이 들중 상당수는 ‘일본군 위안부’로 변했으며 적지 않은 조선인들이 일본군 위안소를 위탁경영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소정희(샌프란시스코주립대)교수는 조선인 일본군성피해여성의 개인적 정체성에 주목하면서 “(이들에게)개인적 열망을 실현할 삶의 기회가 박탈된 것이 오로지 전시군대의 성노예로서 갖게된 끔찍한 상처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조선사회의) 지독한 양성적 불평등과 가정폭력이란 관행 때문에 일본군성피해여성으로서 시련을 겪기에 앞서 이미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제하에서 한글보급운동과 관련해 이혜령(성균관대 강사)씨는 “조선총독부는 한글 운동 과정에서 항상 적대자로 인식된 것은 아니었

다”며 “오히려 언문철자법의 개정, 거기에 근거한 각급 학교 교과서의 개정 등 총독부의 전면적인 행정력은 조선 어문통일을 정당화하는 실제적인 권위의 근거로 참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식민지 시대의 한글보급운동이 조선어학회만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에 의해서도 추진되었다는 것으로 역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21.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절 바로잡아야 한다

사설

문화일보 2006년 2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라고 재단하는 취임사로 현 정부를 출범시킨 이후 지난 3년은 이념적 혼돈과 국가 정체성·정통성 위기의 간단없는 연속이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본령(本領)조차 침식하는 각종 정책의 남발과 소모적인 갈등만 유발시켜온 과거사 헤집기는 지금도 엄연한 ‘현재진행형’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이 이렇듯 흔들리는 것은 정치·사회 각 부문의 주도권을 잡은 세력의 좌편향 역사인식에 그 근원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많은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업을 이룩해낸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하지만 그 역사를 거슬러 가급적 어두운 단면을 굳이 찾아내고 집중 조명하는 자해(自害)와 자학(自虐)의 사관은 거꾸로 북한의 전체주의에 대해서는 그 역사적 근원도 현실적 문제점도 대범하게 봐넘기고 있다. 이것이 일컬어 관변의 시류 역사관이다.

이런 자해·자학의 사관 그 오류를 지적하는, 굴절된 근현대사와 현

대사를 바로잡으려는 각계의 근래 노력이 주목된다. 비근한 예가 8일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으로 꼽힌다. 당대의 주도세력과 추종세력들이 유지해온 굴절된 사관을 탈수정주의 관점에서 교정하려는 치열한 학문적 노력의 소산임을 우리는 각별히 주목한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비교사적 관점은 5000년 역사상 초유로 절대빈곤을 탈출하고 국제무대에 떳떳하게 진출해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국민적·국가적 역량이 발현돼온 지난 날과 오늘날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는 역사담론의 새 전기일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성장과 분배를 흑백으로 나누고 분배의 가치를 우선하는 제반 경제정책의 토양 역시 집권세력의 좌편향 역사관이 빚어온 잘못이다. 점점 그 수위가 격정스러운 반(反)기업정서 확산도 그렇다. 경제단체들이 올해를 반기업정서 해소 원년으로 삼고 국민경제교육 예산을 늘리는 것도 좌편향 경제시각이 심상찮아지기 때문이다.

각계의 이같은 노력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절을 바로잡기 위한 의미깊은 시도임에 틀림없다.

22. 보수시각 〈해전사〉 나왔다

장세만

SBS 8시 뉴스 2006년 2월 9일

양 앵커

지난 80년대 좌파적 입장에서 쓰인 역사서 가운데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게 있습니다. 일명 《해전사》라고 불리는데, 이 책의 역사인식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책이 출간됐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 기자

1979년 나온 《해방 전후사의 인식》 약칭 《해전사》로 불린 책은 재야의 역사교과서로 인식되며 50만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그로부터 27년, 해전사의 역사인식을 좌파적이라며 전면비판하는 책이 발간됐습니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서울대 박지향 교수등 20여명이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해전사 재인식’은 친일과 문제에 대해서 종전 해전사가 친일과 반일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에 빠져있으며, 분단과 전쟁은 미소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스탈린의 세계 전략에 기인한다고 주장합니다.

✎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이 책이 성취할 수 있는 업적은 70 80년대의 학문적 성과를 한 단계 도약시키자는 것이죠.”

원저인 해전사의 저자들은 역사관의 차이를 옹고 그림으로 가를 수 없다며 정치적인 접근을 경계했습니다.

✎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해전사》 공저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최고 수준이었고, 그 연구가 해방 전후사를 연구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해방전후사에 대한 해석 문제는 좌우 이념 갈등을 부르는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출간이 현대사 이해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지 주목됩니다.

23. [사설] 생산적 현대사 논쟁 기대한다

사설

한국일보 2006년 2월 9일

뉴라이트 그룹 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펴낸《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1980년대 현대사 인식에 중요한 기여를 한 《해방 전후사의 인식》(해전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점에서 역사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일부 신문이 ‘편향된 역사 접근 바로잡기’ ‘좌편향 현대사 균형 잡는다’는 식의 진단을 한 것은 이 책이 의도하는 방향을 잘 보여준다. 반면 일부 언론의 ‘우편향 시각으로 역사 재인식’같은 분석은 그러한 방향의 또 다른 편향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해방전후사 전 6권 가운데 가장 과장이 컸던 첫 권이 나온 것이 1979년이니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새로 발굴된 자료도 많을 테고, 새로운 방법론도 개발됐을 것이므로 한국 현대사의 여러 문제를 본질적으로 잉태한 해방 전후 시기를 종합적으로 재고찰할 만한 때가 되었다.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재인식》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해전사》에 대한 안티테제 던지기보다는 좀더 현대사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시도했다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지식인 사회의 흐름이 표면적으로는 뉴라이트 대 뉴레프트로 대별되면서도 좀더 합리적인 실사구시를 추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사관에 대한 이념적 비판에 치중하는 것은 역사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소지가 있다.

더구나 편집진 대부분이 뉴라이트 운동에 적극적인 학자라는 점에서 엉뚱하게 역사 해석의 문제가 현실 정치권의 정체성 논란으로 비화하거나 특정 문제 해결에 자의적으로 오용될지 모른다는 일말의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비판과 논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좌파니 우파니 하는 식의 딱지 붙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논쟁은 포스트 포스트 모더니즘이 운위되는 21세기에 걸맞지 않다. 이번 출간을 계기로 생산적인 방식으로 현대사 논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재인식》에 이어 제3의 인식, 또 다른 인식 등등이 계속 나오기를 기대한다.

24. 해방전후사 건전한 토론 기대한다

사설

서울신문 2006년 2월 10일

1979년에 첫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반공·보수 일변도였던 한국에서 학문·저술의 자유를 여는 상징적인 책자였다. 이번에는 《해전사》가 좌파 시각에서 쓰였다면서 그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 출간되었다. 다양한 학문적 견해가 보장되는 곳이 선진사회이다.《해전사》와 ‘해전사 재인식’ 논란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성숙시키는 방향으로 건전한 역사토론의 장에 오르길 기대한다.

건전한 토론에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치목적이 깔린 역사해석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해전사》의 분석이 모두 옳다고 보지 않는다. 하지만 ‘해전사 재인식’이 《해전사》 뒤집기에 너무 골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일제 식민시기의 자본주의와 경제 발전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논리는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과 연결된다. 일본인 학자의 논문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종군위안부 피해책임을 조선사회의 모순에서도 찾으려는 시도는 위험한 시각이다.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아직 과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일본 지도자들에게 자칫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

‘해전사 재인식’이 탈민족주의에 주목한 점은 기존 보수와 다른 관점으로 주목된다. 앞으로 학계 논의와 후속연구를 통해 국가장래에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반면 분단책임, 한국전쟁과 이승만·김일성 평가 분석에서 보수·진보라는 이념적 이분법에 매달린 부분은 아쉽다.《해전사》를 반박만 할 게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편이 나았다.‘해전사 재인식’ 발간은 뉴라이트 네트워크 소속 학자들이 앞장섰다. 정치권과 거리를 두어야 순수성이 유지된다.

동국대 이사회의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은 《해전사》 논란과 맥이 통한다.‘6·25는 통일전쟁’이라는 강 교수 발언의 옳고 그름을 떠나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징계를 서두른 것은 유감스럽다. 미국 등의 한국학 교수들이 우리 학문의 획일화를 우려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새겨야 한다.

25. 해방前史 《재인식》 너무 다른 여야

전병역

경향신문 2006년 2월 10일

현대사를 재조명하겠다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 발간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진보적 성향의 386운동권 출신이 많은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에 맞서는 보수세력의 움직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해전사》 등에 의해 편향된 역사인식을 바로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 여 “보수세력 정치 목적 발간”

우리당은 《재인식》에 비판적이면서 《해전사》 옹호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80년대 노동운동가 출신인 이목희 의원은 “《재인식》은 뉴라이트 운동 등 보수 수구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쓴 것 같다”며 “《해전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대협 2기 의장 출신인 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해전사》는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하면서 올바른 역사인식과 역사관을 찾기 위해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민족주의를 조명한 책”이라며 “함부로 폄하하거나 소홀히 할 가치는 아니다”라고 평했다. 다만 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역사적 진실은 사학자가 연구하고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정치권이 할 말은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 야 “左편향 바로잡기” 환영

반면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피땀으로 일군 현대사를 좌편향의 자학 역사로 왜곡해온 것에 안타까움이 컸다”며 “《재인식》은 자유민주적 시장경제라는 국가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로, 선진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국민정신 재무장의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재원 의원은 “대학 때 《해전사》를 읽으면서 비분강개하기도 했지만, 살면서 역사 인식과 접근법이 영터리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재인식》이 《해전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근

대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80년대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이번 책은 좌·우 대결이 아닌 좌·우 통합을 지향했어야 한다는 당시의 평가에 반하는 책”이라고 말했다.

26. [시론] 이제 계몽된 역사 상상력이 필요하다

유중호 (연세대 석좌교수)

중앙일보 2006년 2월 10일

☞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보고

제작년 유소년기의 경험과 목격담을 다룬 '나의 해방전후'란 회상록을 펴냈다. 우호적인 반응이 제법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의외의 반응도 있어 새로 깨우친 바가 많았다. 나는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을 당시 충북 증평이란 면소재지에서 살고 있었다. 우리 집에선 그 소식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았다. 신문을 놓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부모가 걱정스레 대화를 나눈 장면을 적었다. 집에선 아사히신문을 보고 있었다.

이 장면을 읽은 어떤 젊은 후배가 당시에 아사히신문을 면소재지에서 구독했다는 것이 놀랍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나로서는 후배 반응이 더 놀라웠다. 아사히는 관부연락선을 통해 수송돼 철도망을 타고 한반도 전역에 배달되었다. 이 당연한 사실이 젊은 후배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오늘의 시점에서 옛일을 상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쉽게 말해 당시 한반도가 일본 제국의 일부였으며 일본이 결코 외국이 아니었다는, 속상하나 엄연한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당시 우리말 신문은 모두 폐간되고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문이 유일한

한글신문이었다.

또 하나, 내가 일본 헌병을 처음 본 것은 광복 직후다. 읍 소재지에서 일부 일본인을 극장에 수용하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놀라움을 표시하는 젊은 독자가 있었다. 일본 헌병이 무시로 출몰해 한국인을 억압하는 연속극의 장면으로 일제시대를 축약 이해했기 때문이다. 무단(武斷) 정치 수정 이후 일본의 한국 지배는 그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됐다.



유종호
연세대 석좌교수

그림 16: 유종호 연세대 석좌교수

사소한 사례지만 살아보지 않은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절감했다. 그러나 살아남은 경험자라고 반드시 과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광복 직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과정을 허구로 적은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저자는 일본 고관의 딸로 여중생 때 종전을 맞고 귀국한 뒤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원제는 '대나무 숲에서 멀리'이고 '요코 이야기'란 표제로 우리나라에도 소개됐다. 감동적이고 교육적 가치도 있는 책이다.

그러나 기술된 내용은 사실에 너무 어긋나 신빙성이 없다. 오해의 소지도 크다. 저자는 나남에서 살았는데 옛집에 대나무 숲이 있었다고 적었다. 북위 42도 땅에 대나무가 자랄 리 없다. 다른 나무를 착각한 것이다. 또 7월 15일 예금을 찾고 29일 나남에서 도망쳤다고 했는데 소련군이 참전한 것은 8월 9일이다. 아무리 비밀정보를 갖고 있었다 해도 불가능한 얘기다.

그 무렵 인민군이 자기 부친을 지명수배했다고 했는데 그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소설을 읽고 사실(史實)로 착각하는 일이 많다.

과거 이해가 어려운 것은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위배되는 문서가 너무 많이 유포되고 수용자 쪽에서도 계몽된 역사적 상상력을 갖지 못한 때문이다. 6.25를 누가 먼저 일으켰는가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정평 있는 방대한 실증적 연구서가 나와 있는데도 '복침설'을 믿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 놀란 적이 있다.

그게 지난 20년 사이 대학 교단에서 내가 매일 같이 느꼈던 점이고, 현대사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였다. 가령 임박한 한국 자본주의 붕괴에 대한 희망적 관측에 기초한 역사책이 온전한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역사 쓰기와 계몽된 역사적 상상력의 연마가 절실히 요망되는 시기다. 출간 전부터 화제였던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보며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끼친 과도한 영향력을 염두에 두면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해 너무도 자연스럽다. 온전하지 못한 역사관은 잘못된 미래 설계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27. [기자수첩]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과 언론

김태식

연합뉴스 2006년 2월 10일

8일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라는 책이 언론에서 대대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상당수 중앙 일간지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재인식》 편집대표인 서울대 박지향 교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전면에 배치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보도는 분량은 많으나 거의 같은 요지의 말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즉 《재인식》과 '뉴라이트 운동'과의 연결이다.

《재인식》은 출간도 되기 전부터 일부 언론에서 ‘뉴라이트 운동’과 연결해 해석되기도 했다. 다른 누구보다 이 책 집필진이 이런 반응이 나올까 우려했음에도 말이다.

편집대표 박지향 교수만 해도 그 머리말에서 “우리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에서 드러난 역사해석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것이 ‘좌파적’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그렇다고 ‘재인식’이 우파적 역사해석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재인식》 출간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 대부분은 이에 아랑곳 없이 이 책을 ‘뉴라이트’ 혹은 보수우파적인 학계의 집단 산물로 규정했다.

《재인식》 집필진의 공언과는 달리, 여기에 수록된 논문 상당수가 ‘우익보수층’으로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만한 구석이 많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친일파라든가, 이승만·박정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그것이다.

게다가 《재인식》에 대한 대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곳이 ‘과거 청산’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언론들이라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재인식》에 대한 또 다른측 언론 반응에서도 역설적으로 확인된다. 출간 이틀이 지나도록 소위 ‘진보좌파적’으로 분류되는 언론들은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책이 나왔다는 사실 자체도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들 언론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보도가 이뤄진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중계방송식’ 보도가 나올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아마도 호된 비판이 담길 것이다.

그렇다면 《재인식》은 ‘보수우파’ 언론에는 구세주가 되며, 그 반대편 성향의 다른 언론 그룹에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일까?

이번 《재인식》이 강렬한 ‘탈(脫) 민족주의’를 주창한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이들에 의하면 민족주의는 또 다른 파시즘이라는 것이다. 민족을 지상의 절대선으로 간주하는 민족주의에서 자유로운 언론은 없다.

그럼에도 적어도 당분간은 언론은 물론이고, 학계 지식인들도 《재인식》이 표명한 ‘탈민족주의’는 탈각시킨 채, 상대에 대한 공격의 빌미로 활용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예상할 수 있는 《재인식》의 딜레마이며 비극이다.

28.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서점가 돌풍

김희선

연합뉴스 2006년 2월 10일

지난 8일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 2권)이 출시 초반부터 서점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0일 교보문고에 의하면 9일 판매를 시작한 이 책은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광화문점에서만 모두 100여 권(제1권 기준)이 팔렸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9일 광화문점에서는 처음 들어온 책 15권이 1시간여 만에 동이 나 긴급 추가 주문에 들어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도 이 책은 주문이 몰리면서 역사 분야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단숨에 9위에 올랐다.

초판 2천부를 모두 배포한 책세상 출판사는 서점들로부터 주문이 쇄도하자 추가 인쇄에 들어갔다.

서점 관계자는 “인문 서적이 하루만에 100권 가까이 팔리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라며 “이 책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출시 초

반부터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9. 박지향 [조선] 인터뷰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대통령 발언에 《재인식》 출판”

김달중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년 2월 10일

《해방 전후사의 인식》(한길사)에 반기를 든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의 출간을 앞두고 논란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사실상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두고 좌편향적 한국현대사로 평가하고 잘못된 역사인식이라고 규정하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출간을 첫 발의한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9일자 ‘조선닷컴’(이하 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작업이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선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04년 가을 노무현 대통령이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고 말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재인식’ 어떤 책 이길래…

조선에 따르면 박 교수는 먼저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박 교수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는 많은 필자의 여러 논문을 실었지만 핵심 관점은 민족지상주의와 민중혁명론이다. 즉 민중혁명을 통한 민족통일과 분단극복을 현재의 민족사적 과제로 보고 이를 위한

역사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박 교수는 “그러나 왜 민족이 모든 사람에게 지고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민족은 여러 개의 중요한 가치 줄 하나일 뿐”이라며 “더구나 객관성을 추구해야 할 학문까지 민족이 지배하게 되면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중(인민)’을 누구보다 내세우는 북한은 실제로는 스탈린주의적인 전체주의 체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건전한 애국주의로 지향해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박 교수는 “민족주의는 18 19세기 서양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이념이었다. 자기 민족이 올라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눌러야 하는 ‘제로섬(Zero Sum) 게임’인 것”이라며 “이제 상대방도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건전한 애국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위원들이 우파적·뉴라이트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박 교수는 “편집위원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입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정치적인 선입견을 갖고 평가하지 말고 먼저 책을 읽어보고 판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박 교수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좌·우의 구분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고, 한국현대사 인식을 대폭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자부한다. 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독자에게 자신의 시각을 강요한다



그림 17: ▲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대통령역의 역사인식에 대해 비판적 접근을 하기 위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펴냈다고 밝혔다. ©SBS

면, 《재인식》은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며 자신의 저술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박 교수의 발의와 김철 연세대 국문학 교수,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학 교수, 이영훈 서울대 한국경제사 교수 등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30. “역사를 현실문제 해결 도구로 봐선 안돼”

권재현

동아일보 2006년 2월 10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약칭 재인식)의 출간은 좌에서 우로 수평 이동한 것이 아니다. 한국 현대사 연구의 수준을 질적으로 수직 상승시킨 것이라고 자부한다.”

《재인식》을 기획한 박지향(朴枝香 · 53 · 서양사) 서울대 교수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약칭 해전사)의 편향성 극복을 기치로 내걸고 출간된 《재인식》의 의의를 이렇게 강조했다. 9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만난 박 교수는 《재인식》을 기획한 경위부터 설명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한국 사회 정책결정권자들의 역사 인식이 여전히 《해전사》에 머물고 있다면 올바른 정책 결정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다른 하나는 2004년 《해전사》 출간 25주년을 맞아 1권이 초판 그대로 재출간된 것에 대한 우려였다. 현대사 연구의 불모상태였던 1979년 《해전사》가 처음 출간되기 시작한 것은 의미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초판 당시의 낮은 학문 수준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책을 낸 것은 한국 사회의 지적인 지체 현상을 보여 준다고 생각했다.”

—《해전사》를 언제 처음 접했나?

“유학 갔다가 1987년 귀국해 처음 봤는데 ‘이런 식으로 역사를 봐도 되는가’ 하고 충격을 받았다. 《해전사》는 분단 극복과 민족 통일을 진리로 삼고 여기에 헌신하는 것만 옳고 다른 것은 반역으로 바라봤다. 나도 진보적이라고 자처해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을 지닌 에릭 홉스봄(영국 런던대 명예교수) 아래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홉스봄도 학문과 현실정치를 엄격하게 구분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재인식》을 ‘우파의 해전사’로 보거나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시각에 대해 썰기를 박았다.

“일부에서는 《재인식》에 이념적 색채를 입히려고 하는데 우리 편집위원들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가 이 책을 기획한 것은 역사를 역사로 보지 않고 현실문제 해결의 도구로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풍토를 바로잡자는 취지였기 때문이다.”

—《재인식》의 정치적 과장을 우려해 기고를 꺼린 학자들도 많았 다던데….

“기획단계에서 국사학자들과도 깊이 논의를 했지만 다들 못하겠다고 물러섰다. ‘우리만이 한국현대사를 다룰 수 있다’는 폐쇄성도 느껴졌다. 몇몇 젊은 학자들은 민족 통일을 지상과제로 하는 《해전사》의 역사관이 국사학계의 정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가 됐다고 토로했다. 국사학계에 일종의 ‘자기검열’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해전사》의 필진도 이념적으로 다양한데 너무 한쪽으로 몰아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다.

“《해전사》에 다양한 성향의 학자들이 참여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해전사》가 일천했던 현대사 연구에 불을 붙인 것도 사실이다. 문

제는 분단 극복과 민족 통일만이 역사적 진리라고 선언한 논조가 이후 근현대사 연구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될 뿐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용납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해전사의 관점과 다른 실증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가 사장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인식》은 《해전사》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승화이고 극복이다.”

—그렇다면 《재인식》이 생각하는 역사적 진리는 무엇인가.

“《재인식》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해전사》의 역사인식이 놓치고 있는 다른 수많은 연구 성과를 보여 주려 할 뿐이다.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 판단은 학자의 몫이 아니라 시민의 몫이다. 학자는 시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풍부한 사료를 제시하고 현실의 관점이 아니라 당대의 관점에서 당대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설명해 줘야 한다. 이런 과정을 생략한 채 역사적으로 단죄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박 교수는 《재인식》의 편집위원들이 1950년대까지 다룬 《재인식》에 이어 1960년대를 재조명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지향 교수는

- △ 1953년 서울생
- △ 1975년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 △ 1978년 서울대 대학원 서양사학과 석사
- △ 1985년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 박사(유럽사학 전공)
- △ 1985~87년 미국 뉴욕 프랫대 교수
- △ 1987~92년 인하대 문과대 교수

- △ 1992~현재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 2003~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31. “현대사 시야 넓힌것... 이념적 재해석 아니다”

이선민

조선일보 2006년 2월 10일

‘좌(左)편향적 한국현대사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전2권·이하 《재인식》)의 산파는 박지향(朴枝香·53)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다. 박 교수는 이 책을 처음 발의했고, 김철(金哲) 연세대 교수(국문학)·김일영(金一榮) 성균관대 교수(정치학)·이영훈(李榮薰) 서울대 교수(한국경제사)와 함께 편집위원으로 수록 논문 선정과 제작 과정을 1년 반 동안 주관했다. “정말 긴 터널을 통과한 느낌”이라는 박지향 교수에게서 《재인식》 간행의 배경과 의의,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림 18: 박지향 교수

—영국사를 전공한 서양사학자가 한국현대사 정리 작업을 자임한 동기가 궁금하다.

“2004년 가을 노무현 대통령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고 말했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외 학계에서는 그동안 한국현대사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들

이 축적됐는데도 일반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철 지난 주장들

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주변 학자들에게 최신 연구성과를 한데 모으는 작업을 제의했고,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일을 시작했다.”

—책이 나오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

“두 권의 책에 담긴 28편의 논문을 고르고 정리·번역·감수 과정이 끝난 것은 2006년 봄이었고, 2권 끝에 실린 편집위원 대담까지 마쳤다. 그러나 출간 작업을 진행하던 출판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해 오는 일이 두 차례나 벌어졌고, 출간을 교섭했던 다른 두 출판사도 난색을 나타내는 바람에 출간이 예정보다 훨씬 늦어졌다. 아마도 이 책의 출간이 출판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염려한 것 같았다.”

—《재인식》은 제목에서부터 《해방 전후사의 인식》(한길사·전 6권·이하 《인식》)에 대한 대항 의식이 두드러진다. 《인식》의 어떤 점이 문제라는 것인가.

“《인식》에는 많은 필자들이 여러 논문을 실었지만 핵심 관점은 민족지상주의와 민중혁명론이다. 즉 민중혁명을 통한 민족통일과 분단 극복을 현재의 민족사적 과제로 보고 이를 위한 역사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왜 민족이 모든 사람에게 지고(至高)한 것이 되어야 하는가. 민족은 여러 개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일 뿐이다. 더구나 객관성을 추구해야 할 학문까지 민족이 지배하게 되면 곤란하다. 또 ‘민중(인민)’을 누구보다 내세우는 북한은 실제로는 스탈린주의적인 전체주의 체제일 뿐이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지배이념이었다. 이제 그 효용이 끝났다는 것인가.

“민족주의는 이전보다는 많이 약화됐지만 최근 황우석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아직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민족주의(Nationalism)

는 18 19세기 서양에서 만들어질 때부터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이념이었다. 자기 민족이 올라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눌러야 하는 ‘제로섬 (Zero Sum) 게임’인 것이다. 물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착은 본능적이지만 이제 상대방도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는 건전한 애국주의 (Patriotism)를 지향해야 한다.”

—《재인식》은 특히 일국사(一國史)적 관점을 비판하고 비교사적 관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만 보는 일국사적 관점을 벗어나야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가능하다. 우리는 흔히 우리 민족만 우수하고, 또 비극적 역사를 경험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민족도 우리 못지않게 우수하고, 또 고난의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좋지만 그러려면 우리의 장단점과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망국(亡國)의 경우도 남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자성(自省)하는 것이 미래에 도움이 된다.”

—《재인식》은 시종 ‘균형 잡힌 시각’ ‘정파적 이해와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피’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편집위원들의 면면 때문에 ‘우파적 해석’ ‘뉴라이트적 역사 인식’이라는 평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의 목표는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성과를 토대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편집위원들 사이에도 정치적 입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구나 수록된 논문들은 다양한 성향과 주제를 드러낸다. 따라서 정치적인 선입견을 갖고 평가하지 말고 먼저 책을 읽어보고 판단하기 바란다. 《재인식》을 좌·우의 구분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고, 한국 현대사 인식을 대폭 업그레이드시킨 것으로 자부한다. 또 《인식》이 독자에게 자신의 시각을 강요한다면, 《재인식》은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인식》을 낸 출판사와 필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

“1980년 전반 《인식》이 한 역할을 평가한다. 당시 우리 현대사에 대한 우파적 해석만 일방적으로 통용되던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갖고 작업을 했고, 한국현대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연구를 촉발한 것은 큰 공헌이다. 그러나 그 결과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도식적 인식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더구나 그 후 25년 동안 상당한 연구의 축적과 발전이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지난 2004년 《인식》을 그대로 재출간한 것은 문제다. 우리는 앞 세대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수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재인식》 출간을 한국현대사 연구를 도약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삼자.”

—한국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데도 편집위원은 물론 수록 논문의 필자에도 국사학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국사학자를 참여시키려 했지만 국사학계의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다. 국사학계의 현대사 전공자, 특히 젊은 학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기대한다. 책의 내용에 잘못이 있다면 서평 등을 통해 짚어주면 발전적인 논쟁이 가능할 것이다. 《재인식》 필진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도 계획하고 있다.”

—후속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를 다룬 《재인식》에 이어 1960 70년대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는 책을 펴낼 예정이다. 그 분야를 전공한 학자들로 편집위원을 구성할 것이다.”

32. 역사, 색안경을 벗자 [上] 역사는 하나가 아니다

이한우

조선일보 2006년 2월 10일

다양한 史觀 없는 한국사 교육... ‘외눈박이’ 길러

역사 논쟁은 이제 시작이다. ‘해방 전후’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이 지난 25년을 왼쪽으로 지배했다면, 이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란 28인 학자들의 책이 다원적 균형론으로 새로운 물꼬를 트고 있다. 9일 서점에는 《재인식》의 주문이 쇄도하고 있고, 미처 책을 구하지 못하자 《인식》이 매진되는 기현상마저 일어나고 있다. 시작부터 뜨겁다.

☞ ‘학문 나침반’ 없어 좌파 민족주의로 쉽게 빠져

☞ “일부 학자는 역사연구를 운동수단으로 착각”

왜, 지금, 《재인식》인가. 잠깐 80년대 말로 돌아가 보자. 당시 사회주의 붕괴 이후 정치학·사회학 등 다른 분야의 좌파성향 연구자들은 대부분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유독 역사학, 그중에서도 한국사 전공자들 사이에 좌파민족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 자신 대학시절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세례를 받았던 송실대 강원택 교수(정치학)는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공부하면 입문 단계에서 나라별 비교를 하는 등 다양한 입장들에 대한 훈련을 받기 때문에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도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국사학자들은 역사연구를 운동의 수단 내지 자신의 도덕성 과시로 착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지적이다. 좌파 민족주의를 주도하는 일부 국사학자들이 학문활동보다는 대중서 출간이나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런 지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학연과 인맥을 통해 ‘좌파 민족주의’를 사수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편집에 참여했던 성

균관대 김일영 교수(정치학)는 “이번에 책을 준비하면서 후배인 국사학 교수 2명이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자신들이 쓴 글이 《재인식》에 실리는 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학계에서 ‘파문’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림 19: ▲ 1980년대 이후 쏟아져 나와 대학가를 풍미했던 역사 서적들. ‘좌(左) 편향’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봉재석 인턴기자 (한림대 방송통신 4년)

학술토론을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하는 요인을 지적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재인식》의 필자인 서울대 전상인 교수는 “사실 학계에서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한국전쟁에 대한 수정주의 해석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현대사에 대한 좌파 민족주의적 해석이 ‘운동 과잉’과 ‘자료 부실’로 판명돼 수세에 몰려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불필요한 이념논쟁이 오히려 그들을 피해자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시대착오적인 ‘좌파 민족주의’의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켜왔다”는 것이다.

근본 원인은 뭘까. 서울대 국사학과에는 역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는 서양의 사론(史論) 혹은 사학사(史學史)에 관한 강좌가 없다. ‘학문의 나침반’이 없었던 셈. 그 바람에 서양사학과의 전공분야로 분류된 사학 방법론이나 역사철학을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도 없었다. ‘한국사’를 독립된 학과에서 가르치는 고려대 국민대 가톨릭대 영남대에서도 사정은 같다.

고려대 이상신 교수는 “동서양사와 한국사가 같은 학과에 통합돼 있을 때에 사학사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하는 한국사 연구자들은 하나같이 통일 민족 민중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외눈박이가 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국사학도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교수나 선배가 ‘강요’하는 시각을 무의식중에 받아들여온 것이 현실이었고, 그 빈자리를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메워주었다. 민족 통일 민중의 입장에서 반(反)외세 반(反)대한민국 반(反)자본주의에 젖어들게 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역사학을 공부한 명지대 강규형 교수는 “현재 국사학 전공자들의 주류가 갖고 있는 ‘사론(史論)’은 70년대 박정희식 민족주의의 잔재와 80년대 커밍스류의 낡은 수정주의가 묘하게 결합된 좌파 민족주의”라고 단정했다. 지금도 국사학과에 입학하는 대학생들은 현대 역사 연구의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 신(新)사회사, 구조사 등과 같은 최신 학술조류를 학교에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버드대 역사학과의 교육지침은 이렇게 써 있다. “역사 학도는 개인 그룹 민족 국가들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각종 연구기법들을 활용해 상상 가능한 모든 전망을 통해 연구하는 것이다. 역사만큼 다양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구할 수 있는 분야도 없다.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를 선택해도 좋다.”

33. 역사, 색안경을 벗자 [上] 역사는 하나가 아니다

이한우

조선일보 2006년 2월 10일

‘일제청산’을 보는 두가지 시각

《재인식》 출간에 따른 첫 번째 발화(發火)는 ‘일제시대’를 보는 시각에서 벌어질 전망이다. 《인식》은 일제시대를 다루진 않았지만 친일파 청산에 대한 단일한 시각을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이며 반민특위 와해로 친일청산에 실패했다. 반면 북한은 완벽한 친일청산을 이뤄냈다. 따라서 민족사의 정통성은 사실상 북한의 김일성에게 있다….’ 이것이 《인식》이 은연중에 만들어내 온 남북한 현대사에 대한 도식이다.

《재인식》이 두 권 중 한 권을 일제시대와 북한의 친일청산 문제에 할애한 것도 이 같은 ‘거대한 왜곡’에 대한 수정작업이 만만치 않은 일임을 편집진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철 교수(연세대 국문과)는 “(《인식》이 상상하듯이) 소수의 간악한 민족반역자와 이 제나저제나 저항의 칼을 갈고 있는 대다수의 민중이 존재하는 식민지 사회였다면 처음부터 이 나라가 식민지가 되지도 않았겠지요”라고 반문한다.

반민특위 와해 운운하지만 대한민국은 당대 최고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박사가 세운 나라일 뿐만 아니라, 친일파의 경우에도 ‘악질적인’ 인사들은 대부분 사회적 매장을 당했다는 것이 《재인식》의 시각이다. 김일영 교수는 “지금도 이광수 최남선 등 대표적인 친일인사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금기시될 만큼 일정한 청산과정을 거쳤다”며 “대한민국 초대내각에 친일인사가 단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친일파의 나라가 아님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북한의 친일청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인식》은 친일청산 운운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 ‘신인간’ 운운하며 인간개조를 시도했고 그것은

천황제를 닮은 또 하나의 전체주의인 김일성 수령체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불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인식의 결론이다. “대한민국은 당대 최고의 독립운동가 이승만 박사가 세운 나라이고 친일파 청산은 남북 모두 미진하게 이뤄졌고 북한은 또 하나의 전쟁동원체제를 세웠다.”

34. 역사, 색안경을 벗자 [下] 《해전사》세대의 자기 극복

이한우

조선일보 2006년 2월 11일

“민족·민중 버리니 ‘현실’이 보였다”

☞ “해전사는 당시 사회 분위기 반영한 최신의 연구 성과

☞ 《재인식》은 《해전사》 비판 보다는 연구수준이 높아진것”

《해방 전후사의 인식》(한길사·이하 《인식》)은 리영희씨의 ‘전환시대의 논리’(창비)와 함께 ‘386’을 전후한 세대에게는 90년대 초까지 필독서였다. 40만권 이상 팔렸다. 분명 시대적 의미도 있다. 그러나 마치 이 책 하나 때문에 80년대 대학사회가 ‘좌향좌(左向左)’를 했다고 본다면 오산(誤算)이다. 당시 한국사회에는 오랜 군사정권으로 인해 좌선회하는 분위기가 있었기에 사회변혁을 꿈꾸던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책은 신념을 다지는 한 계기가 됐을 뿐이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이하 《재인식》)이 이 같은 당시의 절박성을 외면한다면 자기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재인식》을 주도하고 있는 학자들 대부분이 대학 시절 《인식》의 영향권에서 지적인 성장을 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편집위원 박지향(서울대 서양사), 김철(연세대), 김일영(성균관대), 이영훈(서울대) 교수 4명 모두 30대까지는 자기 분야에서 손꼽히는 진보성향 학자들이었다. 그 뒤 《인식》에서 《재인식》까지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결국 《인식》의 세례를 걷어내는 자기부정이 《재인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양쪽 모두에 글을 쓴 이완범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46)는 먼저 《인식》에 실린 글 전체를 좌파민족주의로 보는 데 반대했다.



그림 20: '해전사' 세례를 받은 40대 학자들

“분명 그런 성향의 글들이 있었고 그런 글들이 특히 당시 운동권 학생들에게 지침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식》의 필자 전체를 좌파 민족주의의 범주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동시에 이 교수는 “《인식》과 《재인식》 사이에는 사회주의 붕괴, 한국사회의 변영과 민주화, 북한의 몰락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덕주의, 이상주의에서 현실주의로 생각이 점차 바뀐 것도 영향을 주었다고 했다.

도면회 교수(대전대 한국근대사·47)의 고백.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인 도 교수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연구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데 비해 근현대사 연구자들은 ‘좌파 민족주의’라 부를 수 있는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고 했다. “나도 전형적인 《인식》세대였다. 민족지상

민중혁명이 늘 머릿속에 있었고 역사를 보는 틀도 자연스럽게 마르크스의 역사 5단계에 맞춰져 있었다.” 도 교수의 경우도 사회주의의 몰락이 자 기부정과 전환의 계기가 됐다. “좌파의 준거들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족·민중·통일이 쉽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오랜 고민과 노력을 통해 겨우 벗어났지만 한동안 무중력(無重力) 상태에 봉 떠 있는 느낌이었다.” 민족·민중·통일을 버리고 나니 뒀가 눈에 들어왔을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들어왔다”는 대답이다. 결국 《재 인식》론자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좌파운동권에서 우파운동가로 선회한 나라정책원 김광동 원장(45) 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책을 읽은 ‘386’ 들이 그 후 세상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식》으로부터 배운 세계관을 버 리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자신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크게 보면 남북한 격차의 심화, 사회주의 몰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변화 그리고 개인적인 성숙 등이 어우러지면서 사상적 전환을 겪어왔 다”고 밝혔다.

《인식》에 필자로 참여했던 김명섭 교수(연세대 국제정치사상·44) 는 《인식》과 《재인식》이 좌우(左右)이념대결 형태로 맞붙는 것에 동 의할 수 없다고 했다. 《재인식》은 《인식》을 읽고 성장한 40대와 50 대 초반 학자들의 자기극복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 인식》의 기획자인 박지향 교수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재인식》 은 《인식》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연구수준의 업그레이드라는 것 이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된 한길사 김언호 대표는 “20여년 전에 나온 책을 대상으로 좌우이념논쟁을 벌이려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분명 틀린 자료들도 있고 다소 편향된 해석도 없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책이 당시로서는 최신의 연구성과들에 바탕을 둔 참신한 책이었다는 생각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35. 역사, 색안경을 벗자 [下] 《해전사》세대의 자기 극복

이한우

조선일보 2006년 2월 11일

《재인식》의 편집위원 김일영 교수는 이승만 정치체제를 나폴레옹의 보나파르티즘과 비교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승만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에게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도록 한 결정적 요인의 하나가 바로 《인식》이었다.

해당 시기가 이승만 시대여서 그렇겠지만 《인식》에 묘사된 이승만은 교활한 독립운동가, 술수에 능한 정치인, 무능한 경제대통령, 부정부패의 수괴, 친미주의자 등이다. 따라서 이런 이승만이 통치했던 50년대는 ‘무능과 부패’만을 연상시킨다. 국내 좌파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커밍스 교수의 부인이기도 한 우정은 교수(미국 미시간대 정치학)는 《재인식》에 기고한 글에서 그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경제 대통령’ 이승만의 한 단면을 생생하게 복원한다.

이승만이 주도한 수입 대체 산업화는 실패했다는 것이 그동안의 평가다. 그러나 우 교수에 따르면 이승만은 자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담보로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공갈 협박을 하면서 최대한의 ‘지대(地代)’를 극적으로 우려낸 지도자다. 그리고 이승만은 그렇게 얻어낸 자분을 곧바로 강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재투자했다.

이승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수입 대체 산업화를 추진했던 속뜻은 지역패권국가를 꿈꾸는 일본에 대한 견제였다. 6·25로 인해 일본은 대 도약을 할 수 있었다.

반일주의자 이승만은 속이 쓰렸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승만은 한국 재건의 혜택이라도 일본에 돌아가지 않게 하는 데 주력했다. “수입 대체 산업화의 강력한 이유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원조로 받은 달러를 가지고 일본 상품을 사느니 한국 산업을 일으켜 스스로 물건을 만드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휴전 직후인 1954년 1억달러로 예상되던 한국의 일본 상품 구매총액이 6400만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아이젠하워는 일본이 한국의 빅 브러더가 되어 한국을 후원하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이승만은 설득당하지 않았다.” 우 교수는 “경제 기적은 꿈도 꿀 수 없던 시절인 50년대에 중화학공업이 3배 이상 성장하고 경공업은 250% 성장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36. 새로운 역사쓰기 시도 ‘해전사 재인식’ 불티

김남중

국민일보 2006년 2월 11일

‘386세대’의 역사교과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을 좌파·민족주의·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역사쓰기를 시도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 서점가에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재인식》을 출간한 책세상 출판사는 “책 주문이 쇄도해 10일 중판 제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두 권짜리(총 가격 6만1000원) 초판 2000

질을 하루만에 다 배포한 책세상은 서점들로부터 책을 보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자 4000질 추가 인쇄에 들어갔다.

서점에서는 책이 깔리기 무섭게 사라지고 있다. 교보문고 북마스터 최희남(서울 광화문점)씨는 “9일 책이 처음 도착했는데 1시간도 안돼 모두 팔렸다”면서 “예전에 ‘로마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반응이 이렇게 뜨겁지 않았다”고 놀라워했다. 그는 구매자들은 주로 장년층과 직장인들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서점의 반응도 뜨겁다. 예스24에 따르면 9일 오전 판매를 시작했는데 하루만에 두 권을 합해 300권가량 나갔다. 이 회사 조선영(인문·사회 담당)씨는 “신간 인문서는 하루 50~60권이 팔리면 베스트셀러에 진입하는데 《재인식》의 초반 판매상황은 그보다 두세 배나 높은 편”이라며 “주말을 지나면서 베스트셀러 상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책세상측은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풀어썼다고는 해도 학술논문집이나 마찬가지로 《재인식》에 일반독자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일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이런 반응이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중의 갈망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책에 쏟아진 언론의 엄청난 관심 때문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전사》의 출판사인 한길사는 10일 예정했던 김언호 사장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강옥순 주간은 “《재인식》을 검토한 결과, 필자 일부가 《해전사》의 글을 문제삼은 건 사실이지만 대다수 필자들은 특별한 의도없이 자신의 연구결과를 수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학자들의 의견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출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입장발표 취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37. ‘해방전후사 재인식’ 이념논쟁 가열

조태성

서울신문 2006년 2월 11일

지난 9일 발매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 도서출판 책세상)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한국 현대사를 표방한 《재인식》은 한국 현대사의 주류적 역사해석을 제공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 1979년 제1권 출간)을 좌파적 시각에서 씌어진 책으로 공격하고, 여기에 일부 보수언론이 가세하면서 이념논쟁화할 조짐이다. 이처럼 화제가 되면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만 2권짜리(총가격 6만 1000원)인 《재인식》이 100여권 팔리고 출판사측이 추가 인쇄에 들어가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책 출간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은 《인식》을 진보와 좌파적 역사관을 대변하는 책으로 간주하는 한편, 《재인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뉴라이트 혹은 보수우파적인 학계의 집단 산물로 규정한다.

《재인식》 필자들은 이번 공동연구 성과물이 ‘보수우파’로 비쳐지는 데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재인식》 편집대표인 서울대 박지향 교수(서양사학과)는 “우리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서 드러난 역사해석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것이 ‘좌파적’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그렇다고 《재인식》이 우파적 역사해석이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이 책의 또다른 필자는 “서울대 이영훈 교수나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처럼 뉴라이트 운동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 필자로 참여하긴 했지만 그들의 한국 현대사 해석이 반드시 ‘뉴라이트’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이런 입장과 달리 《재인식》에 실린 논문의 상당수는 ‘보수 우파’적 시각이 짙은 것이 사실이다.

일제강점기와 친일파 문제,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이 대표적인 예다.《인식》의 필진으로 참여한 한 인사는 친일파의 대명사격인 춘원 이광수를 ‘친일 내셔널리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좌파계열 민족주의자로 간주되는 작가 이태준을 일본제국주의자적 성향을 지닌 인물로 규정하는 것을 어떻게 학문적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느냐고 반박한다.

이번 《재인식》을 둘러싼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성역’처럼 군림해온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 ‘탈(脫)민족주의’를 주창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학계나 언론이 《재인식》이 표명한 탈민족주의 화두는 접어둔 채 소모적인 이념 공방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점은 우려된다.

38. ‘해방전후사 재인식’ 대담

김종면 (문화부 차장)

조태성 (정리)

서울신문 2006년 2월 11일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을 비판하겠다고 며 지난 8일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을 놓고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무릎을 맞댔다. 이 책의 출간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 10일 서울신문 회의실에서 열린 대담에서였다. 이 교수는 《인식》《재인식》 모두에 글을 실었고, 김 교수는 《인식》의 집필은 물론 기획에도 깊숙이 관여했던 학자다.

☞ ●“《인식》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

이완범 《재인식》뿐 아니라 《인식》의 집필에도 참가한 사람으로서 두 책을 동등하게 봐달라고 하고 싶다. 우선 《재인식》은 뉴라이트가 아니다. 책임편집을 맡은 박지향 교수는 민족에 기댄 반지성주의적이고 운동만능주의적인 풍토를 비판하는 것이지 ‘뉴라이트’라는 이름까지 동의하지는 않는다. 《인식》 역시 민족중심적이기는 해도 민족지상주의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

김명섭 《인식》이 좌쪽에 가깝긴 하다. 그러나 당시 시대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넓혀줄 수 있었다.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사보타주’를 끝내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렇다고 당시 집필에 참가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의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계속해서 후속 연구결과를 내면서 변화·발전하고 있다. 또한 가지는 미국에서도 끝난 ‘수정주의’를 아직도 한국에서 하고 있느냐는 식의 얘기다. 참 어이가 없다. 수정주의가 옳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끝내면 우리는 더이상 연구하면 안 되냐? 정말 주변적인 사고다.

☞ ●“재인식 주장에 이의 있다”

이완범 《인식》이 북한의 일제청산을 완벽하다고 평가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재인식》은 300만명을 남으로 내쫓았으니 북의 청산은 청산이 아니라는 데 나는 그것도 어쨌든 청산이라 생각한다. 또 일제 천황제가 북한의 수령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에서 일제청산이 안 됐다는 대목에도 이의가 있다. 카스트로의 독재가 스탈린의 독재에서 보고 배웠다 해서 카스트로가 청산을 안 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기에다 에커트는 박정희가 만주 모델을

베껴 와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뤘다고 말하는데 흥미로운 주장이며 검증해볼 주장이다. 그런데 만주 모델 때문에 박정희한테 친일잔재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에커트 주장에 대한 확대해석이다. 오히려 만주국군 출신 정일권을 국무총리에 앉힌 것에서 친일과를 등용했다면 모를까.

김명섭 스탈린의 세계전략으로 한국전쟁이 발생했다는 《재인식》의 주장은 정말 세계학계에 안 먹힐 주장이다. 스탈린의 세계전략이 원인으로 꼽혔던 것은 유럽중심적 연구 때문이었다. 서구 연구자들이 김일성과 북한은 잘 모르니 소련과 스탈린에다 초점을 맞췄고, 그러니 스탈린의 세계전략으로만 모든 걸 설명하려 든 것이다. 《인식》은 그게 아니라 한국전쟁은 김일성이 이니셔티브를 쥔 전쟁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사실 당시 대학가에는 북침설과 미국에 의한 남침 유도설 등이 번지고 있었을 때였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인식》이 외려 남침설을 가장 확실하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완범 앞뒤도 안 맞다. 분단 초기에는 스탈린이 한국에 관심도 없다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전쟁을 키웠다고 설명한다.

김명섭 그것도 중요한 결점이거니와 스탈린의 심경변화를 드러낼 자료를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 “비교사·문명사·미시사적 연구? 아무 내용 없다”

김명섭 《재인식》의 가장 큰 문제는 《인식》을 일국사·민족사로 폄하하면서 비교사·문명사를 얘기하는데, 정작 비판에 걸맞은 연구성과물은 없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이분법적인 친일·반일구

■ 해방전후사의 인식과 재인식 비교표

인식 (79~89년)		재인식 (2006년)
단정수립을 주창한 이승만의 정읍선언	분단책임	스탈린의 지령이 결정적
남침, 북침보다 통일을 위한 내전으로 봐야	한국전쟁 원인	스탈린에 의한 국제전쟁
외세의존적인 독재자	이승만 평가	주어진 환경에서 국가건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지도자
항일투쟁의 성과를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했으나 이후 독재로 귀결된 인물	김일성 평가	일본의 천황제를 본뜬 수령제로 독재자
북한은 성공, 남한은 좌절	일제 청산	북한은 일제의 전시동원체제를 그대로 수용
농민이 배제된 개혁	농지개혁	지주제 해체라는 중대한 진전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일제에 굴복	이광수 등 친일파 문제	행위만 보지 말고 친일한 동기까지 보면 이광수 같은 이들은 단순친일이라기보다 친일민족주의자
송건호 (전 한겨레신문) 진덕규 (전 이화여대)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강만길 (고려대) 최장집 (고려대) 임종국 (독립운동연구자) 장상환 (경상대)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 조동길 (국민대) 김윤식 (전 서울대) 한준상 (연세대)	필진	이영훈 (서울대) 김일영 (성균관대) 박지향 (서울대) 김영호 (성신여대) 이정식 (펜실베이니아대) 이만갑 (서울대) 전상인 (서울대) 김낙년 (동국대) 우정은 (미시간대) 기무라마쓰히코 (아오야마가쿠인대) 카터 에커트 (하버드대)

그림 23: 비교

도를 비판하기 위해 조선어학회가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굴한 것까지는 좋다. 그렇다면 일제가 동남아지역을 침략하면서 동남아 원주민 언어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기울였던

사실과 비교해야 비로소 비교사가 된다. 특히 인도·미얀마 같은 지역은 영국과 일본의 침략을 동시에 받은 경우인데 이런 경험에 대한 이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 《재인식》이 비교사적 작업인지 회의가 든다. 또 이영훈 교수는 문명사 얘기를 하는데, 참 좋은 얘기다. 주목할 점은 문명사 바람이 불고 있는 프랑스에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책이 주로 노예무역을 다룬 책이라는 점이다. 문명 건설과정에서 팽창과 확대만 보는 게 아니라, 숨어 있는 검은 그림들까지 다 드러내보자, 명(明)뿐 아니라 암(暗)까지 함께 보자는 것이다. 왜 이런 측면은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동시에 일반인의 생활상을 드러내는 미시사·문화사적 접근도 좋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를 다루면서 어떻게 그 관점만 고집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1937년 중·일전쟁으로 완전한 전시체제가 들어서는데 이 틀은 무시한 채 모던 보이, 모던 걸만 얘기할 수 있나.

④ ●《인식》,《재인식》보다 더 흥분한 언론들

이완범 어떤 기자는 뉴라이트로 쏠린 보도에 자기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해명전화를 했다. 원래 처음 책 출간 소식을 알린 신문은 그 뉴스를 특종으로 생각하고 다른 신문은 이미 예전에 다 나왔던 기사로 생각하더라. 그런 것들을 보니 특종 욕심 속보 욕심에 싸움 붙이고, 그런 것에 언론이 더이상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명섭 학문적 논쟁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인식》과 《재인식》 필자들이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언론에서 차별하게 따져 보기보다 그냥 《인식》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니까 문제다. 더구나 《인식》의 저자들은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매도하면 《인식》의 저자들은

모두 ‘천박한 프로파간다나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인식》은 기본적으로 몇몇 학자들이 동원되다시피 해서 쓴 책이 아니다.

㉠ ●생산적 논의로 이어져야

이완범 어쨌든 기존의 틀에 박힌 현대사를 재인식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다만 평행선을 달리는 것처럼 논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재인식》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다면 《인식》이 가지고 있던 사회사적인 의미나 학술운동적인 의미 등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평가해 주는 바탕 위에서 《재인식》이 진행돼야 한다. 왜 선학들의 고민이 쌓인 책을 ‘빨갱이 책’으로만 몰아가야만 하나.

김명섭 어떤 분들은 사회가 한쪽으로 쏠렸을 때 지식인들이 반대쪽 얘기를 해서 ‘물타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도 한다. 그래서 《인식》과 《재인식》이 자꾸만 맞물려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프랑스와 비교할 때 한국사의 경계가 더 넓어져야 한다. 프랑스는 ‘어디까지가 프랑스의 역사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프랑스사가 아니라 역사를 가르친다. 이에 반해 우리는 한국사와 서양사간의 골이 너무 깊다. 넘나드는 역사인식이 필요할 듯하다.

39. ■ “이광수 친일적 민족주의자 평가도 모순”

조태성

서울신문 2006년 2월 11일

‘재인식’ 출간에 대한 진보쪽 인사들의 평가는 냉혹하다. 한국 근·현대사 박사학위 1호인 성균관대 서중석 교수는 “한국사의 몇몇 특징적인

계기만 잡아내 확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 전반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결국 양측이 앞으로 계속 내놓을 논문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또 일제시대·북한문학 연구자로 유명한 원광대 김재용 교수는 춘원 이광수를 ‘친일적 민족주의자’라고 평가한 《재인식》의 주장을 “형용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문인들의 경우 외형적으로 어떤 직위를 차지했느냐 안했느냐, 무슨 글을 발표했느냐 안했느냐와 같은 단순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그 개인의 내면논리로서 친일 여부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족주의는 식민주의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일제를 용인하는 민족주의’, ‘친일적 민족주의’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정희시대 평가를 두고 재인식의 책임편집자 가운데 한 명인 서울대 이영훈 교수와 논쟁을 벌여왔던 경상대 장상환 교수 역시 《재인식》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봤다. 장 교수는 “일례로 ‘농지개혁’문제를 다룬 성균관대 김일영 교수의 글은 《인식》의 글과 큰 차별성이 없다.”면서 “좌파적인 《인식》을 우파적인 《재인식》이 뒤집었다고 단순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일부는 기존 우익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따온 데다 대부분 특별히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인식》이라기보다 ‘재탕’에 가깝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다.

40.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이념논쟁 불 붙을까

오철우

한겨레신문 2006년 2월 11일

☞ 해방 전후사의 인식

1979년 이래 전 6권으로 출간돼 널리 읽힌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역사 왜곡의 시대’였던 1980년대에 민족운동, 미군정, 분단, 친일청산 등에 관한 현대사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지난한 노력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담긴 역사인식이 ‘민족지상주의’와 ‘좌파적 편향’에 기울어 있기에 해방 전후사의 다양한 측면을 역사 사실로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정면비판이 제기돼, 향후 관련 학계의 논쟁이 예상된다.

☞ “해전사는 좌파적 편향” 비판

☞ 박지향·김철 교수등 발표했던 글 엮여 출간

박지향 교수(서울대 서양사학)와 김철(연세대 국문학)·김일영(성균관대 정치외교학)·이영훈(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편집위원을 이뤄 일제 식민지와 해방 이후 현대사를 다룬 국내외 학자 18명의 논문 31편을 엮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전 2권을 최근 냈다. 대부분 학술잡지나 단행본에 발표됐던 논문들인데, 식민지 시기의 일상생활과 여성·지식인의 삶에 관한 논문들은 1권에, 해방 이후 미군정과 한국전쟁·1950년대에 관한 논문들은 2권에 나눠 실었다. 기획의도에 관한 편집위원 4인의 대담이 2권 말미에 보태졌다.

편집위원들은 후기 대담에서 ‘민족지상주의는 애국심과 다른, 배타적이고 폭력적 이념’이라며 우리 민족은 우수했으나 일제와 미군정 탓에 비극을 당하기만 했다는 인식은 역사주체인 ‘우리’를 무력화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책에 실린 논문 필자들은 대부분 정치·경제·법학·국문학자들이며 역사학자들은 소수만이 참여했다. 카터 에커트 미국 하버드대학 한국학연구소장 등 외국학자도 일부 참여했다.

대체로 논문들은 친일, 민족운동, 근대화, 이승만 같이 민감한 과거 사 주제들에 대해 <… 인식>과는 대비 되는 시각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식민지 전체를 친일과 민족운동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가, 식민지에 근대화는 없었으며 수탈만 당했을 뿐인가, 북한은 친일청산을 제대로 이뤘는가, 해방 후 농지개혁은 완전한 실패인가, 한국 전쟁과 분단은 이승만과 미국 때문인가 등이 주요한 논문 주제들이며, 이 물음들에 대해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게 이들의 도전적 결론이다.



그림 24: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대표적 민족운동으로 평가된 조선어학회도 당시 다른 민족단체들과 함께 경쟁적으로 총독부와 협력하며 일제의 틀 안에서 활동했으며, 친일인물로 평가된 이광수·김성수도 친일과 근대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일제시기는 ‘수탈론’뿐 아니라 ‘근대화’의 시각으로도 이해해야 한다고 논문들은 주장했다. 이승만·박정희는 부패·독재정권이지만 다층적 재평가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방 전후사 연구의 흐름에 민족지상주의와 민족혁명필연론의 이념 편향이 있다고 비판하는 <… 재인식>이, 한편으론 현대사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논쟁을 어떤 식으로 불러일으킬지 주목된다. 책세상 펴냄, 1권 3만2000원, 2권 2만9000원.

41. [스포트라이트] 균형회복 나선 한국현대사

최남진
동아일보 2006년 2월 11일



그림 25:

한국현대사 역사 인식의 편향성을 극복한다는 취지로 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의 산파 역인 박지향 서울대 교수. “비교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한국현대사는 결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다. 분단 극복과 민족 통일만을 진리라고 강요하는 좌파적 역사 인식에서 이제는 자유로워질 때”라는 그의 바람처럼 우리 사회 역사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길 기대해 본다.

42.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 하루 만에 2쇄

배영대

중앙일보 2006년 2월 11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 전 2권, 이하 《재인식》)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8일 오후 출간된 지 하루 만에 출판사의 1쇄 재고가 떨어져 2쇄 인쇄에 들어갔다.

책세상의 문선휘 과장은 “1쇄분 4000부(2000질)가 하루 만에 모두 전국 서점으로 출고돼 곧바로 2쇄분 6000부(3000질) 인쇄에 들어갔다. 출판사 창립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인문사회 관련서는 대개 1쇄를 2000부 이내로 찍고, 2쇄를 낼 경우엔 1쇄보다 분량을 줄여 1000부 정도 내는 게 보통이다. 논문집 형식의 인문사회 과학서는 통상 1000부 이상 팔리기 힘들다.

교보문고 홍보팀 홍석용 대리는 “8일 오후 늦게 《재인식》 책을 매장에 배치했는데 이틀 만에 광화문점에서만 100부가 넘게 팔렸다”며 “독자가 비교적 한정된 인문사회 분야에서 이 같은 판매 속도는 폭발적인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역사 관련 책은 많이 나왔지만 현대사 관련서는 별로 없었던 점도 수요를 일으킨 배경이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림 26:

43. [포럼] 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나

장석권 (단국대 명예교수 · 헌법학)

문화일보 2006년 2월 11일 1

1980년대, 군사정권에 항거하던 운동권 투쟁세력들이 ‘한국현대사의 교과서’로까지 신봉하면서 즐겨 읽던 책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해전사)이다. 그런데 이 《해전사》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는 책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 출판됨으로써 그동안 오도되고 편향됐던 현대사를 일부

나마 바로잡게 되어 다행이다. 문제는, 여권과 운동권 일각에서 아직도 “해방 후 남한 단독정 권의 수립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며,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는 실패한 역사”라고 고집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까지 흔들고 있다고 하는 데 있다. 그리고 남한이 단독정권을 수립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됐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 땅에서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1년 만인 1946년 8월 29일자로 이른바 ‘조선로동당 강령’을 채택, ‘조선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 강령에 “일본인, 민족반역자 및 지주들의 소유 토지와 그들의 공장 광산 철도 운수 … 문화기관 기타를 국유로 할 것, 일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들을 국유화할 것(3~5)” 등을 규정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에 비해 남한에서는 1947년 10월 21일에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석했던 소련 측 대표단이 회담 결렬을 선언하면서 전원이 서울에서 철수함으로써 미 군정청이 남조선과도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남조선과도정부헌법이 기초되어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헌법으로 탄생했다.

역사란 과거에 존재했던 ‘사실(史實)’을 객관적인 사관(史觀)에 따라 기술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사실’은 결코 왜곡하거나 가정해서도 안되며, ‘사관’에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이념을 반영시켜서도 안 된다. 그것이 올바른 역사이다. 그러나 이른바 《해전사》는 너무 많은 ‘사실’을 왜곡했고, 사상적인 편향성이 반영됐음이 입증됐다.

생각컨대 우리의 해방 전후사는 조선왕조를 계승하는 역사가 아니라 조선왕조와는 단절하는 역사였다. 세계사의 조류에 떠밀려 ‘조선왕조’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조선 없는 조선’에서 남쪽은 자유주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창건했고, 북쪽에는 공산주의 세력들이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했다. 자연히 남쪽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북쪽 사람들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인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에게 자유와 권리 그리고 재산 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그 번영의 수단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사상과 이념으로 채택했다. 반면, 북한은 인민 개개인에게 자유와 권리 및 재산 권을 인정하지 않고 통제경제 체제를 이념과 사상으로 채택하여 각기 다른 길을 가면서 전쟁까지 치렀다.

저마다 새 나라를 창건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양자 간의 차이는 번영의 차이가 아니라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체제를 옹호하면서 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를 허물어뜨리고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 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한 국가의 ‘국민’이란 그 국가와 체제가 국민을 압제와 기아로 몰아넣지 않는 한, 그 국가와 체제에 순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임기가 주어진 민주국가의 지도자들은 주어진 임기를 지나치게 뛰어넘는 정책의 무리한 착수나, 국가정체성을 의심할 만한 일을 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도 안된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과거사 정리와 친일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북한과의 무리한 교섭 등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44. [기자24시] ‘해전사’ 좌우논쟁은 침소봉대

허 연

매일경제 2006년 2월 13일

역사가 현실에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부터 이 같은 행태는 더욱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이 책을 기획한 학자들과 출판사가 “이념적 색채를 입히지 말아달라”고 읍소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이 앞장서 이 문제를 좌우 논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1979년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일제 식민사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던 당시 역사학의 차원을 벗어나 한국 현대사의 이면을 다룬 책이었다. 책이 출간되면서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반응을 얻기는 했지만 이 책 한 권이 한국 역사학의 주류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이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고 말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출간된 ‘해전사의 재인식’을 ‘해전사’와 대척점에 있는 역사서로 만들어 버렸다. 물론 종군 위안부, 이승만에 대한 평가, 식민경제의 평가 등에서 ‘재인식’이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논의는 이미 오랫동안 있어온 것들이었고 이 몇 가지 내용만을 가지고 두 권의 책을 대립 구도로 물고 가는 건 침소봉대가 아닐 수 없다.

‘재인식’을 퍼낸 학자들이 나서 “과거의 책이 놓치고 있는 문제들을 다룬 것”이라고 말해도 이미 일부 매체들은 두 권의 책을 장기판의 초나라와 한나라로 만들어가는 걸 멈추지 않았다. 현실 문제를 놓고 지나치게 역사타령을 늘어놓는 현 정부나 《재인식》이 출간되자마자 좌우 논쟁을 확대하는 일부 매체나 모두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들은 아마 경복궁이 무너져도 경복궁을 증건한 대원군의 사상을 놓고 논쟁할지도 모른다. 무너진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지 사상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한국 사회에 좌우 논쟁은 거의 유명 수준이다. 지금 한국을 배회하는 이 유명에서 도망치자.

명심했으면 한다. 지금 한국 사회의 알량한 좌우 대립도 언젠가 부끄러운 역사로 남겨진다는 사실을….

45. 해방전후사의 인식 VS 재인식 — 두 冊 주요 필자 지상 ‘대결’

한국일보 2006년 2월 13일

한국 근현대사 분야의 스테디셀러인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이 가진 역사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 출간되면서 ‘우리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새삼 쟁점이 되고 있다. 논쟁은 학계 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 등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대중적인 관심사로도 등장하고 있다. 《해전사》와 《재인식》이 한국 근현대사에 어떻게 접근하며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국 근현대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등을 두 책의 주요 필자를 만나 직접 들었다.

《해전사》 필자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박광희

《해전사》에 ‘해방 직후 지식인의 민족현실 인식’ 등의 글을 실은 임헌영(65) 민족문제연구소장은 《재인식》이 과거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눌렀던 이분법적 역사관을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흑백 논리로 역사를 재단하고 《해전사》를 한쪽 편에, 《재인식》을 그 맞은 편에 둬으로써 대결주의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림 27:

-《재인식》은 《해전사》가 민족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비판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 민족지상주의가 무엇인가.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고 다른 민족은 배제하는 것 아닌가. 《해전사》는 결코 그런 책이 아니다. 다만 강대국에 의해 위낙 시달렸기 때문에, 우리 민족도 다른 민족과 동등하게 살수 있어야 한다는 시각을 견지했을 뿐이다. 외세가 생존권을 위협할 때, 우리 민족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이것을 민족지상주의라고 몰아붙여서는 안된다. 민중혁명 필연론, 이데올로기적 편향 등을 지적하는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이 잘못된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민중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다. 독재 권력을 그냥 두고 보라는 것인가.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해방 이후 집권세력이 가장 편협했었다.”

-필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전사》를 평가하면.

“1979년 제1권이 나올 당시만 해도 대학에서조차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지식인 사이에서는 현대사를 제대로 보지는 인

식이 팽배했고 《해전사》는 그런 요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책이다. 당시 《해전사》는 해방 공간의 한국 역사에 대한 가장 깊이 있고 진지한 연구의 성과였다. 글을 쓸 때도 고민이 많았다. 가령 친일문제를 다룰 때, 식민지배의 폭력성 앞에서 누구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필자들 역시 잘 알고 있었기에, 친일 인사 개인에 대한 원한보다는, 그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 되겠다는 일념에서 글을 썼다. 이후 수십 만 명이 책을 구입했다. 《재인식》은 이런 책의 성격을 좌파민족주의라는 말로 너무 쉽게 규정했다.”

-그같은 성격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단 말인가.

“역사를 냉전적인 시각으로 보려는 것 같다.《해전사》의 내용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왜 틀렸는지를 명확한 근거를 대서 지적하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 두 책에 나타난 역사 인식의 차이를 대결주의의 관점에서 부각시키는 것 같다. 물론 《재인식》에도 우리 역사를 진지하게 살피는 글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몇몇 글들이, 내용 전체를 압도하고 있다.”

-해방 당시의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국민이 자기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시기였는데 외세와 그에 영합하는 정치 세력 때문에 좌절됐다. 민족적 역량도 이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

-《해전사》나 《재인식》 모두 역사를 보는 다양한 시각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현상이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 다양한 시각,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은 학문과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서로 견해가 다를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논거를 찾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에 근거한

치열한 논쟁은 학문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재인식》이 그 같은 학문적 논쟁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흑백 논리에 매몰돼 있어 아쉽다.”

해전사 vs 재인식-〈재인식〉 편집위원 이영훈 서울대 교수

박광희

이영훈(55)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인식》에 실린 첫 글 ‘왜 다시 해방전후사인가’를 통해 《해전사》의 여러 논문들이 ‘1980년대 좌파 민족주의 진영의 정치학에 충실한 실천적 역사쓰기에 다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재인식》 편집위원 4명 중 한 명인 그는 “학술적인 글로는 거의 한계에 이를 정도의 표현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해전사》의 비판적 극복을 모토로 내건 이유는.

“최근 10년 동안의 선진적 연구성과를 소개한다는데 의미를 뒀고,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해전사》를 과녁으로 삼은 것뿐이다. 특정 집단을 비판하거나 이데올로기 편향이라고 매도할 의도는 없다. 다만 국내에서 좌파민족주의의 역사관에 근거한 역사서술이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그런 인식이 정치권과 결합해 사실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없이 과거사 청산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두고볼 수 없었다.”

-《해전사》의 어떤 역사의식이 문제인가.

“제1권에 실린 송건호 선생의 글에도 나타나 있듯이 《해전사》는 소수의 친일, 사대주의자가 나라를 망쳤다는 식의 역사의식에 근거한다. 이런 경향은 젊은 학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제5권까지 마찬가지로. 친일파의 청산을 말하는데, 아직 제대로 연구조차 돼있지 않은 상황에

서 근본주의나 선악 이분법적 사관에 빠져 일방을 몰아부치는 식이 돼 선 안된다. 이런 방식의 과거사 청산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과거사 청산은 안된다는 말인가.

“죽은 자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역사학자만의 몫이다. 역사학자들은 사실과 자료에 근거한 연구 결과물로 역사를 성찰할 수 있는 화두를 던진다. 대중이 판단하고 깨치도록 돕는 것이다. 죽은 자의 망령이 현실 정치를 붙들게 해선 안된다. 정치는 미래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80년대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해전사》를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복합적인 시대상을 반영했지만 그 책을 당시의 한국 지성계를 포괄적으로 대변하는 책으로 입을 순 없다. 80년대는 억압의 시대였지만 개항 이후 100여년만에 처음으로 수출 흑자가 난 시대다. 그런 점을 모른 척하거나 아예 부정한다면 당시를 살았던 대부분의 실업가와 공직자, 나아가 다수 국민은 미아(迷兒)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해전사》는 실증적 틀이 너무 약하다.”

-《재인식》 필자 중에서도 《재인식》에 실린 이 교수의 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사람이 있다.

“책에 실린 글들은 이미 국내외 우수 학술지에 발표된 실증적 조사와 연구에 근거한 뛰어난 논문들이다. ‘탈민족주의로 다시 쓴 한국 근현대사’라는 기획 취지에 찬성해 게재를 허락받은 것일 뿐, 필자들이 모여 의견을 제시하고 책의 세세한 성격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어서 이견이



그림 28:

있을 수 있다. 나의 글도 그 중 한 편일 뿐이다. 그래서 총론이 없다. 독자들이 읽고 판단하라는 거다. 내 글의 표현이 심하다는데, 《해전사》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해전사》가 우리 역사를 비하하고, 그런 역사인식이 대중에 퍼져 있는 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느꼈다.”

이 교수는 “역사학자는 자기가 본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역사를 이야기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의 정통성, 흥망성쇠를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가의 “존귀”한 역사를 충분한 근거도 없이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전사·재인식 재인쇄 돌입‘뜨거운 관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면서 서점가에 서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출판사인 책세상은 1쇄분 2,000질로 9일시판에 들어갔으나 재고가 떨어지자 12일 2쇄(3,000질) 인쇄를 시작했다. 독자가 한정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최근 이렇게 빨리 다음 판을 찍는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다. 이에 대해 책세상 관계자는 “독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자 서점측이 책을 충분히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가 공급을 요구, 2쇄를 찍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길사도 《해방 전후사의 인식》 제1권을 조만간 시중에 다시 내놓기로 했다. 《해전사》 1권은 79년에 처음 나왔고 2004년 개정판이 출판됐으나 이마저 다 판매돼 최근 개정판 2쇄 인쇄에 들어갔다. 한길사 관계자는 “1권의 재인쇄는 《재인식》의 출판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면서도 “《재인식》이 나온 뒤 《해전사》를 구할 수 있는냐는 문의가 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한길사는 전자책으로만 낸 26권 개정판도 적은 분량이나마 책으로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6. [책세상]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 박지향 등 엮음

최학림

부산일보 2006년 2월 13일

㉸ 단편적 역사 인식의 한계를 넘어...

머리말에 쓰여진 구절이다.

“우리는 인간 삶의 중층적 모습에서 애뜻함을 느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책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1권 3만2천원, 2권 2만9천원)이 던지고 있는 화두이다.

그 화두는 다분히 인문학적이고, 인간적이지만 급기야 정치적으로 변져가고 있다.

학문적 표명도, 삶처럼, 복잡하고 중층적이기 때문이다.

‘...재인식’은 제목부터 386세대를 키웠던 ‘해방 전후사의 인식’(전6권)에 분명히 맞서 있으며, 특히 ‘...인식’의 키워드인 ‘민족’과 ‘혁명’을 지극히 의심한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고 말한 것을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방기하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을 편집하게 됐다”는 언급이 ‘정치적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박지향(서울대) 김철(연세대) 김일영(성균관대) 이영훈(서울대) 교수가 공동 편집위원을 맡아 두 권에 이철순 부산대 교수, 한수영 동아대 교수 등의 논문 28편을 모았다.

편집 의도는 “민족 지상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이 우리 역사 해석에 끼친 폐해를 우려한다”는 데 있지만 모든 논문들이 그 의도를 따라 일사분란하지는 않다.

하지만 논문들은 다분히 논쟁적인 주장들을 지녔다.

예컨대 북한의 수령체제는 인간 본성에 거슬리는 반문명이었다, 일제는 아주 치밀하게 조선에 근대 국가의 모습을 만들어갔다, 이승만 체제의 1950년대는 인정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위안부는 일본이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가부장제가 부추긴 일면이 있었다, 이광수와 김성수의 내적갈등과 분열은 식민지 민족주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등. 역사적 사실에 미세하게 들어가면 그것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간 두 번 출간 거부를 당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지적인 자기 검열과 경직성, 비판과 토론의 인색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책이 그것을 허무는 데 과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책은 “역사가는 오로지 역사를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적고 있다.

47. “‘해전사’ 읽고 피가 거꾸로…” 노 대통령, 발언한 적 없다

손병관

오마이뉴스 2006년 2월 13일

최근 출간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 머리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 전달한 사실이 밝혀졌다.

책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은 박지향 서울대 교수(서양사)가 쓴 《재인식》의 머리말. 박 교수는 1월에 작성한 글의 첫 단락에서 “책의 구상이 구체화된 것은 2004년 초가을이었다”며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그 무렵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지면을 통해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13일 “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교수의 주장에 가장 근접한 대통령의 발언은 2004년 8월 25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행해진 것으로 다음과 같다.

“반민특위의 역사를 읽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직접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 실천은 못하지만 가슴속에 불이 나거나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을 다 한번씩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제대로 밝혀지고 평가되지 않았고 여전히 그 시대를 거꾸로 살아오신 분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냉소하고 이 역사가 계속되는 한 우리 한국사회에 미래가 없다.”

박 교수의 주장은 상당수 신문들이 책 소개에 인용하면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0일자 인터뷰에서 박 교수의 왜곡된 주장을 되풀이해 전달했고, <문화일보>도 같은 날 사설에서 이를 근거로 “(노 대통령이) 386운동권의 경전중 하나인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썼다.

노 대통령이 2003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을 겪었다”고 말하고, 2004년 국회에 친일파재산환수특별법 통과를 주문하는 등 비판적인 현대사 인식을 드러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해전사》를 언급한 적이 없고, 그 자신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을 한다”는 얘기를 전한 것이기 때문에 박 교수의 글과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 왜곡’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림 29: ▲ 조선일보 10일자 4면에 실린 박지향 서울대 교수의 인터뷰. © 조선일보 PDF

머리말을 쓴 박지향 교수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2004년 8~9월 사이에 나온 칼럼에서 그런 말을 본 적이 있는데, 두세 번 건너뛰면서 왜곡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내가 정확하게 짚어보고 썼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 발언의 사실 관계가 아니다”며 “당시 과거사청산 얘기가 한창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분위기를 걱정했던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박 교수는 《재인식》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승화시키려는 일부 언론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나도 인터뷰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읊소했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걸 어떻게 막냐”고

반문했다. 박 교수는 “책이 이미 2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쇄 짤 때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인식》은 조선어학회와 이광수 등을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사 연구에 있어서 ‘탈민족주의’ 화두를 던지는 등 학계에 신선한 자극을 준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정치적인 이슈화에 집착하는 일부 필진의 시각이 《재인식》 출간의 의미를 도리어 깎아내리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재인식》의 필자로 참여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학과)는 《해전사》의 주요 필자인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장과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를 겨냥해 “민족만이 역사 쓰기의 유일무이한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실증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역사학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각각 공격한 바 있다.

그러나 《해전사》와 《재인식》 양쪽 모두에 필자로 참여한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는 13일 오전 <CBS 뉴스레이다>와의 인터뷰에서 “그 분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할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때의 맥락을 무시하고 그 때의 발언을 끄집어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선학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좌파적 인식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좌·우파적 역사 인식이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는 것,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48. 해전사·재인식 모두 글썫던 이완범 “우리가 좌파 편향이라고?”

조은영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년 2월 13일

⊕ 13일 CBS-R 인터뷰, 박지향 교수 발언엔 반대, 좌우 팽팽한 긴장관계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집필에 참여한 박지향 교수의 대통령 관련 발언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좌파적 인식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얼마 전 출간되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역사책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집필에 참여한 이완범 한국중앙연구원 교수는 13일 CBS 뉴스레이다와 갖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 후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역사인식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런 좌파적인 역사인식과 우파적인 역사인식이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는 《해방 전후사의 인식》은 좌편향적인 이론으로 《재인식》은 우파, 그러니까 뉴라이트의 일원으로 보는 양분법적인 도식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좌우이념갈등은 학계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강만길 교수나 최장집 교수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선 1980년대 이른바 운동권의 이념적 지주였다고 할 수 있는 두 교수의 발언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할 이야기를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시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선학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교수는 해방 후 독재정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등 과거 정부를 지나 참여정부가 갖는 성격적 특성과 관련 “우리 시대의 개혁과

제를 잘 캐치를 해 나름대로 집권에 성공하신 분들이고 그러한 개혁의 과제는 예를 들어서 과거청산이라든지 역사재인식 같은 문제들에 대해 일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부”라고 밝혔다.

49. “盧, '《해전사》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고 하지 않았다”

강양구

프레시안 2006년 2월 13일

198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필독서로 꼽혀 온 〈해방 전 후사의 인식〉(《해전사》, 한길사)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내용으로 보수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재인식》, 책세상)에 필자로 참가한 일부 학자들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 “노 대통령은 《해전사》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고 말한 적 없다”

이 책의 편집위원장을 맡은 박지향 서울대 교수(서양사학)는 《재인식》의 머리말에서 “2004년 초가을 노무현 대통령이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고 언급했다는 소식을 지면을 통해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책의 구상이 구체화된 것은 그 때”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다.

하지만 정작 노무현 대통령은 이같은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는 13일 “2004년 8월 25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역사를 읽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직접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 실천은

못 하지만 가슴 속에 불이 나거나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을 다 한번씩 한다”고 언급했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재인식》의 필자로 참여한 이영훈 교수는 총론 격인 첫 번째 논문 ‘왜 다시 해방 전후사인가’에서 《해전사》를 아예 “1980년대 좌파민족주의 진영의 정치학에 충실한 실천적 역사 쓰기”라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해전사》의 주요 필자들인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장과 최장집 고려대 교수(정치학)를 겨냥해 강한 비판론을 개진했다.

☞ 이완범 교수 “이영훈 교수는 토론의 예의부터 지켜라”

이런 상황에 대해 역시 《재인식》에 필자로 참여한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정치학)는 13일 CBS라디오 〈뉴스레이다〉와의 인터뷰에서 “학문은 학문일 뿐 정쟁의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며 “《해전사》는 좌편향적인 이론이고 《재인식》은 우파라는 양분법적인 도식화는 학계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완범 교수는 특히 ‘박지향 교수의 노무현 대통령 관련 언급’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 전체가 좌파적 인식으로 편향돼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역사인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더 큰 문제는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토론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범 교수는 또 이영훈 교수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영훈 교수가 강만길 위원장과 최장집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문제다’라고 비판했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며 “그 분들은 그 당시 상황에서 할 이야기 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완범 교수는 “이제 와서 그때의 맥락을 무시하고 그때의 발언을 끄집어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선학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

각한다”며 “만약 그 분들과 토론하고 싶으면 그 분들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그 분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몇 글자로 그 분들의 학문적 저작이 거두절미돼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완범 교수는 《재인식》이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해전사》의 필자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1979년에 대학에 입학해 《해전사》 1권을 읽고 자란 이른바 《해전사》 세대로서 30년 동안 계속 《해전사》를 공부했고 3, 4, 6권에는 글을 신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번에 (《재인식》 편집위원회에서) 새 책을 낸다고 해서 1990년대 후반에 발표한 글을 수정해서 신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림 30: (왼쪽부터) 이용악, 유치환, 서정주, 정지용, 김동환, 이광수

50. 계간 '시인세계' 논쟁 — 친일문학 수용 온당한가

최윤필

한국일보 2006년 2월 14일

최근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발간을 계기로 친일 문제 등 한국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문학세계사의 계간 '시인세계' 봄 호가 친일 문학 특집을 마련했다.

'시인세계'는 '단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형의 족쇄'를 풀어주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밝혔다. 문학성이 박약한 몇몇 친일 작품 혹은 작가 생애에서 극히 일부의 시간을 쏙아내 그것을 준거로 문학적 생애 전체를 저울질하는 어리석음을 그만두자는 것이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과오의 경중(輕重)을 가리자는 것이다.

단죄 일변도는 곤란

❧ 마지못한 친일로 문학자체를 저울질

친일 문학인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견지해 온 문학평론가 유종호(연세대 특임교수)씨는 '친일 문학에 대한 소견'에서 그 입장을 상술한다. 즉, 일제 말기의 특수 사정을 무시한 채 현상만을 두고 반일과 친일의 획

일적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친일파에도 원조가 있고 아류가 있다.

또 경중의 차이가 있다.…일제 말 전시 국민 총동원 체제에 동원된 인사들을 주로 거론하고 규탄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는 혐의가 있다.…(일제 말 전시체제에서 이뤄진) 마지못한 친일 언행을 문제 삼는다면 남아 날 국내 잔류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임종국의 ‘친일 문학론’에 거론된 친일 작가가 160명에 육박하는 반면 친일 문장을 남기지 않은 작가는 윤동주 변영로 등 15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단죄 일변도보다는 정황에 대한 검토와 개개 문인에 대한 변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일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정지용 이용악 유치환 시인을 별도로 지칭, 이들의 사소한 흠 혹은 ‘협력의 시늬’를 들어 문학 자체를 폄하하기보다는 “과도한 읽어 넣기를 철회해서 우리 문학의 자산으로 수용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친일 수행

⌘ 역사적 부산물 아닌 내적 욕구를 반영

단죄 일변도는 곤란 마지못한 친일로 문학자체를 저울질 적극적인 친일 수행 역사적 부산물 아닌 내적 욕구를 반영 반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평론가 박수연씨는 “친일 문학은 문인들의 내적 요구가 일정하게 반영된 언어 구성체”이며 “단순히 일제의 강요에 따른 역사적 부산물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광수 주요한 김동환 김억 등의 ‘국민주의’, 서정주 김종환 등의 ‘언어미학주의’, 김용제 이찬 등의 ‘전체주의’를 들며 “시대적 이념을

내재화했던” 적극적 친일 문학의 사례로 들었다.

논쟁의 한 가운데에는 미당 서정주가 있다. “(미당의 노골적 친일)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시인으로서 그의 전 생애에 쌓아올린 창작의 성과가 그 정치적 책임으로 무시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평론가 이경호) “(해방 이후 생의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친일시’는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통어하는 프로그램이 노출된 형태였다고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된다.”(평론가 심원섭, 와세다대 객원교수)

심 씨는 또 주요한과 이광수를 들며 “이들의 친일시는 일본인보다 더 엄숙하고 비장하면서도 그 이면에 작위성이나 상투성, 무성의함이랄 할 만한 것이 느껴지는 것은 그들이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신념형 친일’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종호씨는 무솔리니에게 봉사하며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 에즈라 파운드를 미국의 사회집이 배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흠집 없는 영혼에서 나온 문학만을 허용하고 수용한다면 세계의 문학은 대책 없이 황폐화하고 말 것”이라고 썼다.

51. ‘시인세계’ 친일문학특집…친일문학, 변호와 반론

윤승아

헤럴드경제 2006년 2월 14일

뉴라이트 학자들의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이 역사에 관한 논쟁을 낳고 있는 가운데 계간 ‘시인세계’(문학세계사) 봄호가 친일문학특집을 마련했다.

‘친일 시인의 수용과 비판’이라는 타이틀로 마련된 이번 특집은 유종호 연세대 특임교수 등 옹호론과 문학평론가 박수연 심원섭씨 등의 비판론을 함께 실고 있다.

온건한 입장을 보이는 유종호씨는 “문학사에서 반일과 친일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피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며 “친일에도 원조와 아류가 있으니 차별화된 감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문인들은 작업의 특성상 사회적 책임이 더 막중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일제시대 민족어로 글을 쓴 문인들은 준룸펜 프롤레타리아트에 불과했다”며 “중죄인 취급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각론에서 유씨는 친일 ‘문학’이라 불리는 것 상당수가 문학 수준에 오르지 못하는 ‘문서’ 수준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의 성취도라고 강조했다. 작품을 중시해야 하는 까닭은 독서행위가 작자가 아니라 독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번역자 에즈라 파운드의 작품이 미국 시사에서 누락되지 않는 것은 “작자의 불량한 비행을 괄호 처리하는 것이 문학사의 상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흠집 없는 영혼에서 나온 문학만 허용한다면 세계문학사는 대책 없이 황폐화되고 말 것’이란 설명이다.

유씨는 한두 편의 시 때문에 친일 시비에 오르내리는 정지용 이용악 등을 변호하는 한편 일어서를 쓴 이상 등을 위한 변도 달아 놓았다.

하지만 젊은 평론가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박수연씨 등은 미당 옹호론을 펼친 이경호씨에 대해 “문학이 하나의 구조물인 이상 작가의 이념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며 “미당 전생애에 걸친 친 권력적 친 파시즘적 경향을 무시할수 없다”고 반박했다. 문학평론가 심원섭씨도 “서정주의 일본어 시는 1회성 사건이 아니라 세계관의 일단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52. [사설] "편향된 역사 다시 쓰기 검증하겠다"

사설

조선일보 2006년 2월 14일

시민단체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現현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사 청산 작업을 검증할 ‘과거사 진상 규명 모니터링단’을 다음주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정부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그 과거사위의 활동을 검증한 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현 집권 세력과 코드를 맞춰온 재야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하는 과거사 청산작업을 시민단체가 감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작년 12월 출범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아래 정원만 120명이나 되는 매머드 조직이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비롯, 國情院국정원·軍군·경찰도 각각 과거사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런 과거사 청산에 배정된 예산은 2005년 465억원에서 올해는 1000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일부 과거사위는 구체적 물증과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기보다 하나하나한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형욱 실종사건과 민청학련·인혁당 재건위사건 발표가 그렇다.

보통의 常識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현 정부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은 무엇보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정치적 동기가 의심스럽고 주도 세력의 역사 인식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사 청산작업을 총괄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송기인 위원장부터가 과거사 청산을 기득권 세력과 反반기득권 세력의 투쟁으로 해석했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해방 후 한국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機會主義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로 규정했다. 이런 史觀사관으로 100년 근·현대사를 다시 쓰겠다는 것이다.

이념적으로 偏向편향된 정부 과거사위원회들이 다시 쓰는 역사를 검증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시민단체 한두 곳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화제를 모은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처럼 현대사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중견 학자들의 활약에 기대가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력의 不純불순한 의도를 파헤치고 편향적 역사 다시 쓰기를 바로잡아줄 지식인의 사회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

53. [시론] ‘解前史’, 그 난폭한 도그마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사)

조선일보 2006년 2월 14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 서점가에 깔린 지 하루 만에 초판 2000질이 다 팔렸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였다. 소수의 친일배(親日輩)들이 미국과 결탁하여 민족분단의 비극을 초래하였다. 6.25는 혁명적인 통일전쟁이었다.” 이런 난폭한 이야기에 지난 20년간 시달려 온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은 “뭐 좋은 읽을거리 없느냐”라고 기다려온 심정이었다. 그러한 국민적 여망이, 인문사회계 출판에서 전례가 없다는 출시 당일의 매진 현상을 빚어낸 것이다.

물론 입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책의 서문에 서도 소개되었지만, 이 책은 편집 도중 두 차례나 출판사로부터 출간 취소를 당하였다. 다른 두 출판사로부터는 검토 일주일 뒤 출간 불가(不可)라는 대답을 들었다. 약속된 출간일을 고작 보름 앞두고 출간을 취소해 온 출판사 사장은 “말이 안 되는 줄 알며 출판사로서도 금전적 손해가 크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책의 취지에 도저히 공

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나는 그 사장의 비(非)금전적인 계산과 사상적 지조를 존중한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역사 인식에서 더없이 커다랗게 분열되어 있다. 왜 분열되었는가? 다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도그마가 강요될 때 공동체는 분열하고 해체된다. 도그마란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있으며, 세상만사의 인과응보(因果應報)가 어떤 단일한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는 근본주의적 사고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중세적이다. 반면에 근대과학은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다원주의적 사고방식을 특징으로 하며, 객관성의 기초로서 경험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중시한다. 근대과학에서 도그마는 있을 수 없다.



그림 31: ▲ 이영훈 교수

죽은 사람들이 남긴 자료나 데이터는 불완전함이 보통이기 때문에 근대역사학에 요구되는 객관성의 기초 역시 언제나 불완전하며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는 언제나 역사에 대해 겸손해야 한다. 근대과학의 객관성은 궁극적으로 신(神)에 대한 연구자 개인의 정직성 고백에 기초한다는 막스 베버의 주장은 다른 어느 분야에서보다 역사학에서 가장 타당하다. 역사학자에게 겸손의 미덕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그가 살고 있는 국가의 성립 과정과 도덕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살아있는 천만생령(千萬生靈)들의 공존공영을 보장하는 문명기구로서 그 공리성이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공자님이 조정에서 말을 서슴고 말을

부족하게 하였듯이 역사학자는 국가의 역사를 다룰 때면 두려워하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내가 ‘해방 전후사의 인식’(약칭 ‘해전사’)이란 책에 비판의 날을 세운 기본 이유는 이렇게 근대 역사학에 요구되는 겸손과 두려움의 미덕을 거기서 찾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무슨 근거에서 미국의 식민지였던가. 반면에 북한은 무슨 근거에서 혁명적인 민주기지였던가. 이런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 그 책의 주요 필자들은 아무것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몇 번이고 이리저리 뒤적였으나 그런 기초적 질문과 그에 상응하는 논증은 시도조차 없었다. 그저 해방 전후 시기를 살면서 대한민국에 적대적이거나 비판적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리저리 나열하고 있을 뿐이었다.

엄밀히 말해 그런 이야기는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정치’였지 오늘을 사는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근대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을 역사의 근본요인으로 치환한 중세적 근본주의 사고방식의 연장 형태일지 모른다. 근본주의에 근거한 도그마는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살아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려 한다. 그러나 인간 정신의 본질은 자유이기 때문에 도그마가 강요되면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윽고 공동체는 분열하며 사회는 반목한다. 내가 ‘재인식’의 편집에 기여이 참가한 것은 드디어 그 도그마가 권력화하여 이른바 역사를 청산한다고까지 하여 공동체의 분열과 사회의 반목이 더없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54. [사설]과거사궤 활동, 감시와 검증 필요하다

사설

동아일보 2006년 2월 14일

정부 산하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모두 16개에 이르고 그중 12개가 현 정부 들어 만들어졌다. 핵심적인 기구인 ‘친일 반(反)민족행위 진상 규명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과거사 청산’의 회오리가 예고되고 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어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감시하는 모니터링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정략적 이용의 우려가 높은 사안에 감시와 검증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밀어붙였던 과거사 청산은 ‘역사 전문가가 할 일에 정치권력이 나선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벌써부터 이들의 활동은 ‘비효율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립기구로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군, 경찰, 국가정보원, 국방부에 따로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보면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다. 그 범위도 ‘동학혁명’에서 6공(共)에까지 이를 정도로 포괄적이다. 그러다 보니 동학혁명위원회, 의문사위원회 등 별도 위원회와의 차별성이 모호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만큼 낭비 요소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위원회 구성원들이 보이고 있는 역사인식의 편향성은 더 큰 문제다. 위원 가운데는 야당 추천 인사도 포함되어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여권 측 인사들이 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다.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 중에도 운동권 경력자들이 있다. 이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검증돼야 할 사안이다.

최근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서 나타났듯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면 역사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역사해석에서 ‘나만이 옳다’는 사고방식은 금물(禁物)이다. 시효(時效)가 지난 과거의 역사

인식을 갖대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가 ‘재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55. [문학]대표적 親日소설 ‘야국초’ 새롭게 해석

권재현

동아일보 2006년 2월 14일

“모든 것을 일제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다.”(‘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중)

“비(非)민족주의적 반(反)식민주의’는 민족주의가 범한 자(自)중독 중심주의를 피해가면서도 탈식민주의의 주체 해체를 극복하는 방안이다.”(‘탈식민주의를 넘어서’ 중)

지난주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과 ‘탈식민주의를 넘어서’(소명출판)는 일제강점기 문학작품에 대해 민족주의적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러나 ‘재인식’이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이 문학작품의 다층적 해석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넘어서’는 “친일 협력을 민족주의가 아닌 다른 관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전자가 친일파라는 특정인들에게만 겨냥된 칼날을 우리 내면으로 돌리고자 한다면, 후자는 그 칼날을 민족주의가 아닌 보편주의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민족주의 극복’이라는 새로운 지평 내에서 떠오르는 이런 관점의 차이는 구체적 작품에 대한 해석을 통해 뚜렷이 읽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정희의 ‘야국초’(1943년)에 대한 두 책의 분석은 ‘탈민족주의’와

‘비민족주의적 반식민주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 준다.

‘야국초’는 유부남과의 혼외정사로 아들을 낳은 미혼모가 열 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일본군 지원병 훈련소를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아들을 천황의 병사로 보낼 결심을 한다는 내용. 친일소설의 전형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최경희 시카고대 교수는 ‘재인식’에 실린 ‘친일문학의 또 다른 층위’라는 글에서 ‘야국초’가 조선의 봉건적 가부장문화에 대한 원한 어린 비판으로 읽힐 수 있다고 분석한다. 남성중심주의에 의해 희생된 여 주인공이 조선에서는 사생아인 아들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아들을 일본의 신민(臣民)으로 만드는 것에는 ‘조선 남성들의 위선과 허약성에 대한 가일층 신랄한 비판이 담겨 있다’는 것.

또한 작품 초반에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 낙태를 강요하는 ‘식민지의 아버지’와 헤어지고 아들을 낳아 키운 여인은 작품 후반에 ‘제국의 아버지’(천황)를 위해 아들을 사지(死地)로 내모는 역설적 상황에 처한다. 작가가 이런 역설적 상황의 비극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은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것을 ‘제 자신과 당신(조선인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표현한 것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서영인 경북대 강사는 ‘넘어서’에 실린 ‘순응적 여성성과 국가주의’라는 글에서 최경희의 작품들이 “국가주의의 강압적 이데올로기에 순응한 결과인 동시에 결핍된 가부장을 욕망하는 순응적 여성성의 발로”라고 비판한다. ‘야국초’에서 결핍된 가부장의 대체물로서 군국주의적 국가를 받아들인 것은 여성의 독립적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반여성주의적 작품이라는 비판이다.



그림 32: 일제강점기 문학에 대한 인식 차이 주요 사례

또 작가가 제시한 ‘군국주의적 모성’은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모성의 말살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㉔ 민족주의

“일제의 식민지배에 저항한 민족주의의 관점에서 식민주의에 부화뇌동한 작가와 작품에 대해 엄정한 비판이 가해질 때 역사적 교훈이 확립될 수 있다.”

㉕ 탈민족주의

“식민지의 상황을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저항,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으로 재단하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오히려 식민지의 복잡다단한 상황을

올바로 인식하고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데 방해가 된다.”

☞ 탈식민주의

“식민지배로 인해 내면화된 ‘나(주체)와 너(타자)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중족중심주의’를 벗어나는 것이 인적 청산보다 더 중요한 식민주의 청산이다.”

☞ 비민족주의적 반식민주의

“민족주의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식민주의의 문제점과 친일 협력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탈식민주의는 자칫 식민주의의 폭력을 용인하고 연장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56. 새 사회 현상... 역사의식 충돌

한애란

중앙일보 2006년 2월 14일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계기로 우리 역사를 재평가하자는 뉴라이트 층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 대한 해석을 진보 진영이 독점해 편향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정치 차원에선 정부의 과거사 정리작업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나섰고, 교단에서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유교원노조가 전교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교단의 역사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역사의식이 서로 충돌하는 새로운 사회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거사 진상규명 조사 편향적인 경우가 많아" 뉴라이트, 정책토론회

정부의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을 놓고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안병직 서울대 교수(서양사학과)는 13일 "한국 현대사에 대한 과거사 진상 규명이 자칫 균형 감각을 잃고 흑백논리에 의한 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인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이날 주최한 '과거사 규명, 그 실태와 문제점'이란 정책토론회에서다.

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 규명 특별법'은 조사대상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목적의 순수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 규정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유신헌법을 공부해 법관이 된 사람은 유신시대 과거사 규명의 조사대상이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내전·독재 시기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일대 사면조치를 단행한 스페인처럼 과거의 족쇄에 얽매이지 않는 게 더 현명한 결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헌 변호사도 주제발표를 통해 "과거사법은 '가해 공무원 재임 동안 공소시효 정지'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범위에 국가 적대 세력을 포함시킨 것은 타당하지만,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제외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홍진표 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국정원과거사위원회와 의문사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한 명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등 진상 규명 조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 측은 21일 과거사 위원회 활동을 감시하는 '과거사진상규명 모니터링단(가칭)'

과거사 관련 위원회 현황

위원회 명칭	설치일	조사 내용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	2006년 1월	군복무 중 발생한 의문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2005년 12월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2005년 5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2005년 5월	12·12사태, 5·18 민주화운동 등 군 관련 의혹사건
경찰청 과거사 진상규명위	2004년 11월	서울대 깃발 사건, 민청학련 사건 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	2004년 11월	일제시대 강제동원된 노무자·군인 등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위	2004년 11월	부일장학회 헌납, KAL기 폭 파 사건 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	2004년 9월	동학농민혁명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	2004년 9월	삼청교육대
의문사 진상규명위	2000년 10월(활동 종료, 보고서 작성 중)	위법한 공권력으로 인한 의문사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	2000년 8월	제주 4·3 사건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	2000년 8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 희생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	1996년 4월	거창 양민학살 사건

그림 33: 과거사 관련 위원회 현황

을 출범,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뉴레프트 측 "과거 잘못 옹호 땐 소모적 논쟁 되풀이"

☞ ◆ 뉴레프트, "편향성 교정에 초점 맞춰야"

뉴레프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과거사 위원회들에 대한 비판이 이념 논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좋은정책포럼'의 김형기 공동대표(경북대 교수)는 "편향성을 교정하기 위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뉴라이트 측이 과거의 잘못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다시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새희망포럼'의 오세제 운영위원장은 "잘못된 것을 정상화시킨다는 면에서 과거사 진상 규명은 필요한 작업"이라며 "우파 쪽에서 이를 너무 이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거사 규명 작업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과거사 관련 기구 13개

동학농민혁명, 일제 강제동원, 제주 4.3 사건, 삼청교육…. 각종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과거사 관련 기구는 13개에 달한다. 이 중 8개가 2004년 이후에 생겼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진실화해위는 특별법에서 다루는 사안을 제외하고 일제시대부터 김영삼 정부 출범(1993년) 이전까지의 모든 영역에 대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기관도 자체적으로 과거사 진상 규명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청학련·인혁당 사건의 경우 의문사위가 내린 결론을 국정원 과거사위가 재검증하는 등 같은 사안에 대해 두 번 조사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국방부 과거사위와 '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가 중복조사를 벌이고 있다.

57. [TODAY] “정권주도 편향된 과거사정리 견제하겠다”

이수곤

헤럴드경제 2006년 2월 14일

☞ 바른사회 시민회의 모니터링단 발족… “공공성·중립적 역사관 유지” 강조

역사를 다시 보더라도 균형적 시각으로 올바르게 평가하자는 시민단체(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나와 신선한 자극을 주고 있다. 현 정권이 중심이 돼 주도하고 있는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에 제동을 걸겠다며 이른바 우파 중심의 시민단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관 주도 ‘과거사위’의 경우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를 재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사위가 주관적으로 흐르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가 충분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주관하는 ‘과거사 규명, 그 실태와 문제점’이란 정책토론회를 가진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사실 역사문제에 시민단체가 나선 것은 좌파시각의 현대사 서적인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나타난 문제점을 젊은 학자들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출간해 바로잡은 최근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균형잡히고 미래지향적 역사인식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의 ‘과거사 진상규명 모니터링단’을 이끌고 있는 박효종 서울대 교수도 “정부 주도 과거사정리위가 무려 11개가 있는데 이들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

지의 사건을 평가하는 데 과연 효율적이고 공공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라며 역사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일부 과거사위가 많은 비용을 쓰고도 내놓은 성과물을 보면 딱 부러지는 것이 없을 뿐더러 선입관을 갖고 이에 결과를 끼워맞췄다는 의혹이 드는 것도 없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과거사나 역사를 균형적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향후 위원회의 중립성 여부를 꼼꼼하게 지켜볼 것임을 시사했다.

즉 그 정도 결과물이라면 민간 분야에서도 가능한 일이며, 위원회 중복이 많아 기구 축소와 참여한 위원들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13일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역사를 한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한 가지 해석의 절대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권력에 의한 과거사 정리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다.

이 부분들이 시민단체의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검증이 필요한 배경이고, 더 나아가 시민단체 활동이 올바른 역사 세우기에 일조할 것이란 기대도 던져주고 있다.

58. [유승삼 칼럼]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대한 곡해

유승삼 (언론인 · KAIST 초빙교수)

내일신문 2006년 2월 14일

막스 웨버의 책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맑스’와 발음이 비슷한 것이 죄였다. 한 신문기자는 유고의 반체제 인사 밀로반 질라스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젊

은 세대에겐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불과 한 세대 전에 있었던 실화이다.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조차 공식적으로 금서목록에 올라 있던 시절이었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란 그런 풍토에서 나온 책이고 또 바로 그런 풍토였기에 높이 평가 받은 책이다. 모든 게 오로지 '반공·친미·친일'의 잣대로만 재단되던 그 황폐한 시대에 민족운동, 미군정, 분단, 친일청산 등 해방전후사의 예민한 문제들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민족 주체적인 입장에서 평가했으니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다. 지금 와서 보면 미흡한 점도 많고 그래서 수정도 많이 되었다. 그러나 역사의 왜곡과 편향을 시정해 현대사 인식의 폭을 확대하려 한 시도는 당시로서는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물론 학문적으로도 의미 있는 것이었다.

'재인식' 비판은 너무 편향적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그런 책에 대해 25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느닷없이 시비를 걸고 나섰다. 학문은 끊임없는 비판과 반성 속에서 발전한다는 점에서 비판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는 물론 없다. 그러나 책의 편집 동기부터가 학문적인 비판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감정적이고 정치적이며 선동적이고 우 편향적이다. 그러니 보수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증폭해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좌 편향의 책으로 몰아쳤다.

편집 책임자중 한 사람은 2004년 초 가을 노무현 대통령이 '해전사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대로 두고 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책을 구상했노라고, 그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편집 동기를 솔직히 털어 놓고 있다. 그의 피도 거꾸로 흘렀던 셈이다. 그래서 '재인식'은 당시 시대상이나 학생들의 그 지적 갈증, '해전사 인식'이 가져온 학문적 지평의 확대에 대한 평가나 이해는 없이 '인식'을 그저 '좌편향'이라고 몰아치고만 있다.

더구나 보수 언론들은 한술 더 떠서 ‘재인식’에 실린 것들이 대부분 오래전에 발표된 논문이나 잡지 기고문 내용들인데도 마치 그것을 새로운 것처럼 대서특필하면서 다시 한번 색깔론을 전개했다. 그러나 실은 ‘인식’의 필진 가운데는 보수 인사가 여러명 끼어 있을 뿐 아니라 대다수가 중도 성향이다.

현대사에 대한 논란은 의미 있고 필요한 것이지만 이번처럼 감정적 정치적 동기에서 출발할 것은 아니다. 의도했건 아니건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활용된다면 그것은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가 색깔론으로 변진 것은 보수 언론의 편향적인 기사 취급에도 원인이 있지만 편집 책임자들의 편향성에 그 원초적인 책임이 있다.

말로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서술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해전사 인식’에 대한 혹평과 보수 편향적 해석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재인식’은 부분적으로는 ‘인식’의 약점을 보완하기도 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감정적 정치적 동기만 아니었다면 결과는 훨씬 더 생산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서울 시청 앞에 플래카드 들고 모여 고함지르는 것보다는 100배 나은 태도이다. 보수 언론의 상업주의와 맞장구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성적인 자세이다. 우과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고함이나 욕설이 아니라 말과 이성적인 논리로 대결해야 한다. 욕설과 행동 위주의 이제까지의 대응 패턴에서 ‘말 대 말’의 단계로 넘어 가고, 다시 그것이 ‘논리 대 논리’로 성숙시켜 나갈 때 좌·우는 우리 사회의 두 바퀴가 될 수 있다.

현대사 ‘숨은 그림’부터 찾아라

사실 본격적인 현대사 연구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일 뿐이다. 이제까지는 너무도 많은 정치적 제약 때문에 충실한 연구를 할 수 없었다. 좌도, 우도 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우선 구체적인 사료를 토대로 아

무런 제약도 없이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수궁할 수 있는 역사적 진리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려면 현대사 연구의 큰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보수 진영에서도 합심해야 한다. 현대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는 우선 현대사의 '숨은 그림'들을 낱낱이 찾아 역사 연구의 도마 위에 올려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석과 평가는 그 다음 문제이다. '재인식'의 출간은 좌와 우,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대결의 시작이 아니라 상호 보완과 역사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

59. 해방전후사의 '인식' 뒤집는 '재인식' 출간

배영대

중앙일보 2006년 2월 15일

현대사 해석 놓고 논쟁 본격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말한다. 과거를 보는 눈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현대사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다.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은 한국인의 역사 보는 눈을 진보·좌파 쪽으로 바뀌게 한 중요한 역사논문집이다. 해전사 이전 우리 현대사는 주로 반공 이데올로기 중심의 우편향적 시각에서 쓰여졌다. 1979년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연장선에서 등장한 해전사는 이전의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로서의 역사관을 뒤흔들었다.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은 27년간 변창해 온 진보적 역사관을 다시 진단하고 해체하려는 시도로 풀이될 수 있다. 해전사의 좌파 논리를 정면으로 비판한다는 점에선 보수·우파 성향으로의 선회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탈민족주의를 주요 논리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전의 보수 논리와 차별화된다. 해전사가 우파 반공이데올로기를 비판하며 좌파 민족주의를 일으켰다면, 재인식은 다시 이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우파 탈민족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양상이다. 탈민족주의를 전파해온 박지향(서울대 서양사) 교수는 "최근 발표된 한국 근현대사 연구물 가운데 대표적인 28편을 엄선했고, 각 필자들이 대폭 가필해 실었다"고 밝혔다.

❧ ◆ 좌파 민족주의 비판

박 교수는 해전사를 '민족 지상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총론 격인 첫 번째 논문 '왜 다시 해방 전후사인가'를 쓴 이영훈 교수는 해전사의 역사인식을 "민족과 혁명의 이중주"라고 단정했다. 해전사류의 인식은 과거의 역사를 이분법적으로 재단하고, 현재의 잣대로 과거의 시행착오를 비난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이다.

해전사가 민족 지상주의로 도배돼 있다면 재인식은 탈민족 혹은 민족 해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민족이란 말 자체가 20세기에 만들어진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민족과 탈민족의 시각은 식민지시대와 친일잔재 청산, 한국전쟁과 이승만 평가 등에서 모두 대립각을 세운다.

친일잔재 청산의 경우, 해전사는 북한에 비해 남한의 청산이 미비해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왔다고 한 반면, 재인식은 남북 모두 단절보다는 식민지시대와의 연속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총독부 산하 각급 관료기구와 학교 등에서 복무한 테크노크라트적 협력자들은 해방 후 국가 건설에 크게 기여했다"며 "박정희 같은 인물들이 성장한 사실에서도 식민지 유산을 찾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② ◆ 20세기 문명사관 제시

이 교수는 문명사관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일제 식민지시기를 "조선의 전통문명과 일본을 통해 들어온 서유럽 기원의 근대문명이 상호 융합하는 시대"로 보고 있다. 그리고 해방.분단.건국.전쟁.복구.한미동맹, 그리고 4.19로 이어지는 해방 전후사의 후반을 "나라 세우기 과정으로 이해하고 평가하자"고 제안했다.

문명사관은 결국 식민지 근대화론과 연결된다. 식민지 시절의 자본주의와 경제 발전을 인정하는 논리다. 박 교수는 "1910 40년 세계 자본주의가 침체와 위기를 겪는 동안 조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고 산업 구조도 근대화했다"고 했다. 그는 또 "식민지 시절

대중의 일상적 삶은 협력과 저항, 친일과 반일의 잣대로 구분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이영훈 교수, 진보학자 실명 비판

이영훈 교수는 해전사의 주요 필자인 강만길(전 고려대 교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장과 최장집 고려대 교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강.최 두 교수는 진보 성향의 역사.정치학계의 간판으로 꼽히는 학자다.

이 교수는 강 위원장의 '해방전후사 인식의 방향'(해전사 2권)과 최 교수의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해전사 4권)을 비판했다. 각각 '민족 지상주의'와 '혁명의 이념'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 교수는 최 교수의 글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실증에 바탕을 둔 근대적인 역사학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의 민족주의 강조에 대해서는 "모든 역사를 제쳐 놓고 민족만이 역사 쓰기의 유일무이한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법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 ◆ 학계는 신중한 반응

해전사 필자인 한 진보학계 중진 교수는 "우선 책을 구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겠다.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 역사학계의 중진 서중석 교수(역사문제연구소장) 역시 "책을 본 학자들 간에 평가 논의가 있을 것이다.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60. [바로잡습니다] 2월 1일자 1면 '뉴라이트판(版) 해전사 나온다' 기사

배영대

중앙일보 2006년 2월 15일

2월 1일자 1면 '뉴라이트판(版) 해전사 나온다' 기사, 9일자 1, 5면의 '뉴라이트판 해전사 나왔다' 기사, 13일자 1면 '과거사위 활동 검증할 것' 기사 등에서 언급한 '뉴라이트'란 표현은 맞지 않기에 바로잡습니다. 8일 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란 책은 진보·좌파 연구서인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을 전면 비판하는 성격의 논문집입니다. 본지는 8일자 '바로잡습니다'에서 "뉴라이트라는 표현은 지적 흐름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연구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9일자 보도 이후 이를 혼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새 책의 편집위원인 이영훈(서울대), 김일영(성균관대) 교수 등은 지식사회의 뉴라이트 흐름을 대표하는 연구집단인 '뉴라이트네트워크'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집위원인 박지향 교수 등 일부는 탈민족주의적 역사관을 지닌 학자입니다. 박 교수는 책의 머리말에서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을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본다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출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8명의 필진이 집필에 참여한 동기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학문적 성향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성향의 필진이 참여해 만든 책을 '뉴라이트판'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인식'을 '뉴라이트판 해전사'라고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61. [오늘과 내일/황호택] '전환시대의 논리'와 非논리

황호택 (논설위원)

동아일보 2006년 2월 15일

이영희 씨의 회고록 ‘대화’는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해방전후사의 인식(해전사)’을 출간한 한길사에서 나왔다. ‘대화’는 이 씨가 대담 형식을 통해 진보적 지식인으로서의 삶과 학문을 되돌아본 책이다. 이 씨가 1970, 80년대에 저술한 ‘전환시대의 논리’ ‘우상과 이성’ ‘8억 인과의 대화’는 ‘해전사’와 마찬가지로 대학가에서 널리 읽히며 1980년대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했다. 중국이 ‘죽(竹)의 장막’으로 가려져 있던 시대여서 이 씨의 책을 통해 마오쩌둥(毛澤東)과 문화대혁명을 이해한 사람이 많았다.

필자는 1980년대 후반 중국에 처음 들어가 지식인들에게서 문화대혁명 체험담을 듣고 이 씨의 책에 나오는 기술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문화대혁명 깃발이 오르면서 베이징대 교수들은 머리에 자루를 뒤집어쓰고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사상 개조를 받기 위해 시골로 하방(下放)됐다. 목사들은 교회를 빼앗기고 강제노동을 했다. 학생들은 공부를 중단한 후 홍위병 완장을 차고 편을 갈라 총싸움을 벌였다. 중국을 황폐화한 10년 내전(內戰)이었다.

이 씨의 회고록 ‘대화’에는 30년 전 문화대혁명을 잘못 평가했음을 인정한 대목이 있다. ‘30년 전의 평가와 실제적 검증 사이의 괴리는 전 세계 중국 현대사 연구자들에게 거의 공통된 사실이요. 외국 학자들에 비해 월등히 열악하고 한정된 범위의 정보밖에 없던 나에게도 그 후 알려진 이른바 ‘홍위병’의 반(反)문화적 파괴 행위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그림 35: 황호택

부정적 사실은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었어요.’

이 씨는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스탈린과 달리 마오쩌둥의 개인숭배는 괜찮다고 평가했다. ‘스탈린은 당과 정부로 구성된 관료화된 권력체제의 거대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앉아 숭배를 강요했지만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통해 스스로 지휘한 당 관료 기구의 타파(打破)로써 민중과 자기를 직결시켰다.’ 비(非)논리다.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누가 됐든 권력자에 대한 개인숭배는 나쁜 것이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권력을 잡아 개혁개방으로 나서면서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의 국민총생산(GNP)이 2025년경 미국에 근접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 씨가 덩샤오핑을 보는 눈은 회의적이다. 그는 ‘대화’에서 ‘문화대혁명 때 덩샤오핑이 번번이 주자파(走資派·자본주의 노선을 가는 사람)로 비판받고 거둬 낙마한 것은 반대 세력의 탓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덩샤오핑을 나는 좋지 않게 평가했어요. 본국의 혁명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프랑스 유학생들이 분초를 아껴 기술과 학문을 배울 때, 덩샤오핑은 브리지 게임(카드놀이)에 탐닉했어요. 적수가 없을 정도로 브리지 게임의 명수였어요. 나는 덩샤오핑에게 호감이 가질 않았어.’

조선일보 박승준 중국전문기자는 ‘전환시대의 논리’는 팩트의 오류 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자잘한 팩트도 정확해야 하겠지만 더 중대한 것은 관점의 오류이다. 이 씨의 글은 전반적으로 문화대혁명을 추동(推動)하던 쪽의 시각에 가깝다. ‘브리지 게임의 명수’ ‘씩은 주자파’ 덩샤오핑의 실용주의가 경제대국 중국을 만들어 냈다. 이 씨는 ‘죽의 장막’이라는 신화(神話)는 일방적인 미국의 주장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했지만 중국은 마오쩌둥의 사후(死後)에야 본격적인 개방 정책을 펴 장막을 걷어 냈다.

‘해전사’나 ‘전환시대의 논리’는 편향된 해석의 문제도 있지만 이 씨의 회고처럼 정보의 제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오류도 있었을 것이다. 30년 동안 새로 축적된 연구 업적과 자료를 통해 오류를 시정하고 재인식을 시도하는 것은 학문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더욱이 1980년대 학계와 젊은 세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책이라면 회고록에서 몇 문장으로 해명하고 넘어가는 것으로는 모자란다.

62. [사설] 뉴라이트, 역사의 망각을 요구하는가

사설

한겨레신문 2006년 2월 15일

이른바 뉴라이트 학자들 사이에 과거사 정리 논쟁이 폭넓게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좌파적 시각으로 해석된 현대사’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좌파가 주도하는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은 근본적으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실 복원 차원의 논쟁은 언제나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엔 우려스런 점이 있다. 이들은 공백 투성이의 근현대사 연구를 해석, 재해석의 문제로 본다. 권위주의 시절 현대사 연구는 금기였다. 권력에 맞서 진실을 복원하려 했던 학자들은 대부분 강단 밖으로 밀려났다. 때론 투옥되기도 했다. 이들이 문제삼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은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 나온 시론이었다. 근현대사는 여전히 복원 단계다.

최근 이뤄지는 과거사 진상규명은 사실 발굴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다. 국제사회는 과거사 문제를 두 가지 원칙에서 정리해 왔다. 하나는 사회 구성원의 알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기억 의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 등 많은

나라가 이런 원칙에 따라 과거사를 정리했다. 우리는 뒤늦게 시작했을 뿐이다.

그런데 뉴라이트 학자들은 사실의 발굴보다는 해석에, 진실의 복원보다는 절충에 관심이 더 많은 듯하다. 엇그제 바른사회 시민회의 토론회에서 한 사학자는 과거사 정리의 모델로 극히 예외적인 스페인의 ‘망각의 협정’을 언급했다. 싸그리 잊어버리자는 것이다. 사학자로서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이것이 뉴라이트 쪽 생각이 아니길 바란다. 스페인의 망각 협정은 이미 부작용과 함께 파기될 처지에 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기억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이가 역사학자다. 발굴엔 좌도 우도 없다. 학자적 양심만 필요하다.

63. 한나라당 1.3.5.7에 대한 ‘재인식’요구

손봉석

경향신문 2006년 2월 15일

정치권이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까지 ‘사자성어’공방을 벌인데 이어 지방선거에 관한 ‘숫자놀이’로 한차례 신경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이 여당 민병두 의원이 제기한 5.31 지방선거에서의 한나라당 공천비리 의혹에 대해 “1.3.5.75, 7에 대한 재인이 필요하다며 받아쳤다.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나왔듯이 열린우리당의 당직자가 시중에 떠돈다는 ‘1, 3, 5, 7’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어서 한나라당 대변인실에서 재인식의 고을 낸다”고 당 내외에 퍼진 공천을 위한 금품 수수 ‘공정가’ 소문에 대해 해명했다.

이 대변인은 “‘1.3.5.7’은 열린우리당이 시중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잘하면 광주지역에서 하나, 전남지역에서 셋, 전북지역에서 다섯, 그리고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두 합쳐 일곱 군데 정도 이길 것이라는 목표치라는 것”이라며 “(여당이) 잘못 인식한 것 같다.”고 받아쳤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집행위 회의에서 “(한나라당)당사 주변 커피숍에서 ‘1.3.5다, 아니다 1.3.7이다’란 말도 떠돈다”고 지적했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는 ‘기초의원 공천에 1억원, 광역의원 3억원이며, 광역단체장은 5억원이다. 아니다 7억원이다’라는 말을 두고 당내 인사들끼리 싸운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었다.

64. [시론] '미결사'와 '재인식'

정용욱 (서울대 교수·한국현대사)

경향신문 2005년 2월 15일

얼마 전 한국전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서 W대의 한 교수님이 자신은 ‘과거사’라는 용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이 된 사건들이 역사로서 제대로 다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것을 흘러간 과거의 역사로 돌리는 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딱은 그렇다.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그날부터 한국인들은 민족반역자·부일협력배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지만 이승만 정권에 들어서 반민특위가 와해됨으로써 그것은 역사적 미제(未濟) 사건이 되었다. 또 4.19 이후 ‘거창 양민학살 사건’ 등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 기회가 있었으나 이 역시 5.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최근 과거사 정리의 대상이 된 각종 ‘공안사건’들 역시 공안기관의 ‘발표’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역사’로서 성립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 교수님은 대신 미결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해전사’에 대한 생뚱맞은 인식

최근 1970년대 말부터 나오기 시작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의 제목을 따다 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논문집이 출간되었다. 한 쪽에서는 여전히 미결사를 과거사로 만들려는 노력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재인식’을 천명할 정도로 연구가 축적되었다면 그것은 한국현대사 연구의 발전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대개 이미 발표된 것들이고, 출간 후 필자들 가운데 몇몇이 편집인 측의 관점을 비판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논하는 것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흥미를 끄는 것은 이 책의 출간을 둘러싼 몇몇 언론사들의 호들갑과 편집인들의 발간의 변이다.

편집인들의 생각인지, 일부 언론의 생각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나 그들은 ‘해전사’를 민중혁명론의 관점에 선 민족주의 과잉의 좌경화된 역사인식으로 간주한다. 탈냉전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의 흐름이 된 지도 한참이 지났고, 남북관계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의 흐름이 대세가 된 시점에서 좌우 구분에 입각한 연구사 정리도 생뚱맞은데 거기다 민중혁명론이라니. ‘해전사’가 집필되고 출간된 80년대 전반은 전경과 사복 형사들이 대학 캠퍼스를 유린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는 억압될 대로 억압되어서 각종 필화로 얼룩진 시기였다. 그 당시 ‘해전사’를 통해 민중혁명론이 공개적으로 유포되었다면 그것은 공안기관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고, 그때 공안담당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 할 소리이다.

90년대 들어 탈냉전이라는 세계사적 변화가 한국 사회에 몰아치고 때마침 집권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의 민주화·개혁 정책이 수구세력의 위기감을 한껏 증폭시키자 일부 언론들은 색깔논쟁과 이승만·박정희 등 과거 독재자들에 대한 예찬 일변도의 되살리기를 통해 이에 대응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90년대 들어 본격화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4.3항쟁, 노근리 사건과 각종 민간인 학살사건,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는 오히려 그 시기 국민들의 현대사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역할을 했다. 이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의 역사, 독재와 폭정의 역사, 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민초들의 자각과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 ‘편의적’ 좌우 구분엔 독자 외면

제2, 제3의 ‘해전사’ ‘재인식’이 계속 나와서 한층 높아진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확장하고 심화시키는 것은 현대사 연구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몫이다. 그리고 그 책은 미결사까지 포함한 보다 원숙한 역사의식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반면 그 책이 현실 정치와 결합한 편의적인 좌우 구분이나 냉전시대의 유물인 낡아빠진 좌우 이념대립에 얽매었다면 독자들의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책의 독자들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해 수일 만에 수억원을 모아내는 이 땅의 각성한 국민들이 아닌가.

65. 먹고사는 문제가 으뜸이다

孫榮澈 (논설위원)

대전일보 2005년 2월 15일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이 중국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후진타

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비롯한 200여명의 행정 및 군 간부들이 모여 일주일동안 새마을운동에 대한 학습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한국을 찾아 벤치마킹 해온 중국정부가 새마을운동을 적극 도입키로 한 것은 농민이 9억에 달하는 농촌 개혁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표면상의 이유일 뿐이고, 실제 노리는 것은 한국이 새마을운동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협력발전과 소득향상을 이룩했다는 사실에 매료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강 中 새마을운동에 느낀 바 없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흘러나와 국민들의 바쁜 하루를 재촉하곤 했다. 1971년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지역사회개발운동이다. 5공들어 민간주도로 전환되며 여러 부작용을 낳기도 했으나 농촌 근대화의 업적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다. 보릿고개를 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오늘의 국부(國富)를 누리게 된 것은 싫든 좋든 이 덕분인 것이다.

아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새마을운동을 다시 평가한다는데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경제적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해방전후사 재인식’에 이어 ‘동반성장 보고서’가 세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전사 재인식은 좌파 시각에서 쓰여진 해전사에 대항하기 위해 출간되었다고 하는데 정치적 목적의 역사 해석이라는 공방에서 자유롭지 못하긴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그렇지만 동반성장 보고서는 현 정부가 외면해온 국민들의 염원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내놓은 이 보고서는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적정

성장을 달성하며 소득분배를 개선해 가려면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고, 산출 증대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면 내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민간경제전문가들이 몇 년간에 걸쳐 무수히 외쳐온 주장이다. 더욱이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역설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 논란과 얽혀 특히 돋보이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5공 이후 현재까지 성장률과 분배율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현 정부 들어 유독 성장과 분배가 동반악화되었다는 분석자료까지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에 진입하면서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소득분배가 양호해지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면 성장세 둔화에 소득분배까지 악화된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둔 정부로서 가슴아픈 일이겠지만 이제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옳다는 생각이다.

❧ 보고서 읽었으면 실천 옮겨야

다행스러운 것은 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보고서를 극찬했다는 사실이다. 이제 열흘 뒤면 현정부가 출범한지 만 3년이 된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이 없다. 한번 읽어보라는 권유에 그쳐선 안 된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맥을 짚었으면 곧바로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

국내경기가 확실히 살아나지 않은 가운데 더욱 커진 빈부 격차·중세 부담 등에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보고서도 주요정책간의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사 등이 국민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왜 남들이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더 높이 평가하는지 진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 국민소득이 언제 2만불, 3만불이 되느냐는 현재로선 사치스러운 공상으로 비친다.

66. [특집 논쟁합시다] ‘解前史의 인식 VS 재인식’ 릴레이 공방 (1)

김명섭

조선일보 2006년 2월 16일

문명사관 내세우면서 ‘해방’ 단어 왜 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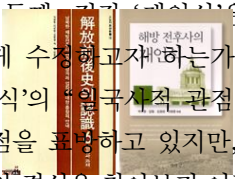
② ‘인식’ 필자 김명섭 교수 “재인식, 이래서 문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을 계기로 지식 사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979년에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공과(功過)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변화된 사회상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재인식’이 던진 논점의 공정성 등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진영에 얽매인 소모적 좌우(左右) 논쟁을 넘어 ‘인식’과 ‘재인식’의 인식차를 둘러싼 관련학자들의 논쟁을 신는다. 첫번째 기고는 ‘인식’의 필자였던 김명섭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가 ‘재인식’의 시각을 문제삼는다.

최근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으로 인해 이 책이 겨냥하고 있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을 썼던 필진 중 한 명으로서 이러 저러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논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식’이라는 책에 대한 재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해방전후사 자체에 대한 재인식이다.

첫째, 1989년 제 6 권으로 마감된 ‘인식’의 제한적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당시는 현대사에 대한 한국지성의 인식적 사보타주에 종지부를 찍겠다던 취지로 서울언론문화클럽이 발간한 ‘현대사’라는 학술지마저 강제 폐간되었던 시대였다. ‘인식’은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았던 학문적 열정의 산물이었다. ‘인식’이 일국사적 관점에 머물렀다는

비판은 일면 정당하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반국(半國)사적 관점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었으며, 이후 ‘인식’에 참여했던 필진들은 동아시아 전체사와 국제사의 관점으로 학문적 관심을 확대해오고 있다. ‘인식’이 당시까지 발굴되었던 사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해방전후사의 실체를 보다 정확히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단 ‘인식’의 필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에 의한 새로운 사료의 발굴을 통해 ‘인식’이 지녔던 한계는 보정되어 왔다. 수정주의는 고개를 숙였다고 하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수정되는 것이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해방전후사를 어떻게 수정하고자 하는가? 우선 ‘재인식’이 ‘인식’의 “비교사적 관점”에 맞서 비교사적 관점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비교사적 연구의 결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총독부가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지원했던 사실에 관한 ‘재인식’의 주장은 새롭다. 하지만 진정 비교사적 관점을 취한다면 아시아 전역에서 원주민들의 문화를 후원하면서 유럽제국주의에 맞선 봉기를 유도하고자 했던 당시 일제의 전략이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또한 영국의 지배 하에 있던 인도의 봉기를 부추기기 위해 당시의 버마전선에서 일본이 벌였던 인도진공작전(5만 여명 사망)과 그것이 인도의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들로까지 시야가 확대되어야 비로소 이 시기에 대한 비교사적 관점이 관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양사학자가 왜 한국사를 다루냐는 비판은 옹졸하다. 정작 문제는 학제적 접근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재인식’은 민족사관을 뛰어넘는 문명사관도 표방한다. 그렇다면 굳이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 필요가 있었을까? 아울러 문명을 단위

로 한 역사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문명 대 야만의 도식을 통해 특정 문명의 이면에 있는 야만을 은폐하는 것이다. 진정한 문명사는 그러한 야만도 함께 드러내야 한다. 일본은 서양문명의 야만을 내세워 일본왕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문명을 표방했다. 정작 요한 바오로 2세가 십자군과 신대륙정복 과정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 이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야스쿠니참배와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도된 문명사관이다. 오늘날 유럽학계가 노예무역과 십자군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또한 ‘재인식’은 ‘해방’ 전사를 지나치게 미시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미시사적 관점이 역사적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당대를 지배하고 있던 전쟁에 관한 거시적 인식을 외면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림 39: ▲ 6·25 서울 전투. ‘인식’은 6·25는 김일성이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끝으로 ‘인식’이 남긴 중요한 인식적 유산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인식’이 나오던 무렵 대학가에서는 해방전후사를 일단락 지은 6·25전쟁에 관해 북침설과 남침유도설이 창궐하고 있었고, 동아시아사에 대한 이해가 일천했던 구미학계 일각에서는 스탈린주도설이 지배하고 있었다. ‘인식’은 이러한 주장들과는 달리 6·25전쟁이 내부의 권력투쟁과 항일무장투쟁경험의 연장선 위에서 김일성이 선택했던 전쟁노선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인식’이 명확히 했던 이 사실은 전쟁 혹은 패전의 책임을 국내공산주의 계열인 박헌영파에게 전가시켰던 북한지배체제가 오늘날

[특집 논쟁합시다] ‘解前史의 인식 VS 재인식’ 릴레이 공방 (1) 159

까지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사이며, 역으로 오늘날까지 작동하고 있는 북한지배체제의 동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인식적 열쇠이다.

67. [특집 논쟁합시다] ‘解前史의 인식 VS 재인식’ 릴레이 공방 (1)

김명섭

조선일보 2006년 2월 16일

문명사관 내세우면서 ‘해방’ 단어 왜 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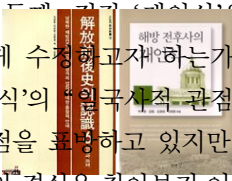
② ‘인식’ 필자 김명섭 교수 “재인식, 이래서 문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을 계기로 지식 사회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979년에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공과(功過)에 대한 점검을 비롯해 변화된 사회상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 ‘재인식’이 던진 논점의 공정성 등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진영에 얽매인 소모적 좌우(左右) 논쟁을 넘어 ‘인식’과 ‘재인식’의 인식차를 둘러싼 관련학자들의 논쟁을 신는다. 첫번째 기고는 ‘인식’의 필자였던 김명섭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가 ‘재인식’의 시각을 문제삼는다.

최근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으로 인해 이 책이 겨냥하고 있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을 썼던 필진 중 한 명으로서 이러 저러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논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식’이라는 책에 대한 재인식이다. 다른 하나는 해방전후사 자체에 대한 재인식이다.

첫째, 1989년 제 6 권으로 마감된 ‘인식’의 제한적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당시는 현대사에 대한 한국지성의 인식적 사보타주에 종지부를 찍겠다던 취지로 서울언론문화클럽이 발간한 ‘현대사’라는 학술지마저 강제 폐간되었던 시대였다. ‘인식’은 이러한 상황에 굴하지 않았던 학문적 열정의 산물이었다. ‘인식’이 일국사적 관점에 머물렀다는

비판은 일면 정당하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반국(半國)사적 관점보다는 진일보한 것이었으며, 이후 ‘인식’에 참여했던 필진들은 동아시아 전체사와 국제사의 관점으로 학문적 관심을 확대해오고 있다. ‘인식’이 당시까지 발굴되었던 사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해방전후사의 실체를 보다 정확히 드러내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단 ‘인식’의 필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자들에 의한 새로운 사료의 발굴을 통해 ‘인식’이 지녔던 한계는 보정되어 왔다. 수정주의는 고개를 숙였다고 하지만, 역사는 끊임없이 수정되는 것이다.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은 해방전후사를 어떻게 수정하고자 하는가? 우선 ‘재인식’이 ‘인식’의 “국사적 관점”에 맞서 비교사적 관점을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비교사적 연구의 결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총독부가 조선어학회의 활동을 지원했던 사실에 관한 ‘재인식’의 주장은 새롭다. 하지만 진정 비교사적 관점을 취한다면 아시아 전역에서 원주민들의 문화를 후원하면서 유럽제국주의에 맞선 봉기를 유도하고자 했던 당시 일제의 전략이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또한 영국의 지배 하에 있던 인도의 봉기를 부추기기 위해 당시의 버마전선에서 일본이 벌였던 인도진공작전(5만 여명 사망)과 그것이 인도의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들로까지 시야가 확대되어야 비로소 이 시기에 대한 비교사적 관점이 관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서양사학자가 왜 한국사를 다루냐는 비판은 옹졸하다. 정작 문제는 학제적 접근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재인식’은 민족사관을 뛰어넘는 문명사관도 표방한다. 그렇다면 굳이 ‘해방’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 필요가 있었을까? 아울러 문명을 단위

로 한 역사가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은 문명 대 야만의 도식을 통해 특정 문명의 이면에 있는 야만을 은폐하는 것이다. 진정한 문명사는 그러한 야만도 함께 드러내야 한다. 일본은 서양문명의 야만을 내세워 일본왕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문명을 표방했다. 정작 요한 바오로 2세가 십자군과 신대륙정복 과정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자행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한 이후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야스쿠니참배와 역사교과서의 왜곡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도된 문명사관이다. 오늘날 유럽학계가 노예무역과 십자군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 또한 ‘재인식’은 ‘해방’ 전사를 지나치게 미시사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미시사적 관점이 역사적 이해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1937년 중일전쟁 이후 당대를 지배하고 있던 전쟁에 관한 거시적 인식을 외면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림 43: ▲ 6·25 서울 전투. ‘인식’은 6·25는 김일성이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끝으로 ‘인식’이 남긴 중요한 인식적 유산을 강조해두고자 한다. ‘인식’이 나오던 무렵 대학가에서는 해방전후사를 일단락 지은 6·25전쟁에 관해 북침설과 남침유도설이 창궐하고 있었고, 동아시아사에 대한 이해가 일천했던 구미학계 일각에서는 스탈린주도설이 지배하고 있었다. ‘인식’은 이러한 주장들과는 달리 6·25전쟁이 내부의 권력투쟁과 항일무장투쟁경험의 연장선 위에서 김일성이 선택했던 전쟁노선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인식’이 명확히 했던 이 사실은 전쟁 혹은 패전의 책임을 국내공산주의 계열인 박헌영파에게 전가시켰던 북한지배체제가 오늘날

[특집 논쟁합시다] ‘解前史의 인식 VS 재인식’ 릴레이 공방 (1) 163

까지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과거사이며, 역으로 오늘날까지 작동하고 있는 북한지배체제의 동학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인식적 열쇠이다.

68. [새책]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외

데스크
뉴스메이커 2006년 2월 17일

☞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8명의 학자가 일제시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우리나라를 조명한다. 저자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일상사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정 이념에 치우쳐 서술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썼다고 한다. 특히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난 새로운 연구들이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질곡을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을 듯하다. [박지향 외 지음, 책세상, 전2권, 1권 3만2000원 2권 2만9000원]

69. "좌파적 해방전후사 인식 강만길, 최장집교수 책임"

윤승아
헤럴드경제 2006년 2월 17일

☞ 이영훈 서울대교수 실명비판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유명한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 전2권)에서 강만길, 최장집 교수를 실명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재인식' 서두에 놓인 '왜 다시 해방 전후사인가'란 글에서 "한국 역사가들의 식민지 서술엔 실증적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며 "그 근거에는 민족과 혁명이란 인식론적 배경이 깔려있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각각을 키워드화한 인물로 강만길 전 고려대 교수와 최장집 고려대 교수를 꼽는다. 강만길 전 교수는 민족을 상위개념으로 모든 것을

복속시킨 학자로, 최 교수는 반혁명적 남한정권과 혁명적 북한정권의 대립항을 설정한 인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이들 덕분에 수립된 좌파민족주의 역사관은 일종의 ‘선악 사관’이라며 이에 토대한 중세식 마녀사냥, 혹은 문화혁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 교수는 또 일제시대에 대해서도 "문명의 이종교배가 이뤄진 시기로 새로 조명해야 한다"며 "일방적 수탈론 등의 신화는 오류"라고 말했다. 제국주의에 의해 강요된 근대화는 실제로는 전통과의 진정한 융합과정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또 "한국사 연구자들의 오류는 비실증적이고 관념적이란 것"이라며 "지난 1세기 동안 벌어진 일에 객관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었냐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70. [특집 논쟁합시다] ‘解前史의 인식 VS 재인식’ 릴레이 공방 (2)

김일영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조선일보 2006년 2월 18일

71. 역사를 변혁운동의 도구로 격하

☞ ‘재인식’ 필자 김일영 교수 “인식, 이래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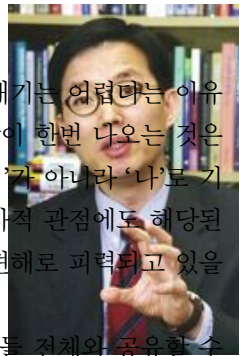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편집자의 한 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맙지만 논쟁이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언론은 성급한 편 가르기나 낙인찍기에 급급해 보이고, 지면을 통해 소개되는 학자들의 평가도 아직 총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책 전체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각론 수준의 문제가 제기되기를 바라면서 향후 논쟁이 비생산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해두고자 한다. 우선 편집진의 견해와 개별 필자의 의견을 구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문명사관은 이영훈 교수 개인의 입장이지 이 책을 관통하는 편집진 전체의 의견은 아니다.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교수의 글을 총론으로 실으려고 검토한 적은 있었다.

㉠ 그 당시 평민들의 삶이 그 시대를 가장 잘 설명

㉡ 역사는 이분법 불가 “총론보다 각론 논쟁을”

하지만 그 글이 펼친 전체의 공통된 입장을 드러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개인의 논문으로 실었다(대담에 총론이란 말이 한번 나오는 것은 편집상의 실수이다). 이 교수의 글에 주어가 ‘우리’가 아니라 ‘나’로 기술되어 있음에 주목해주시 바란다. 이 점은 비교사적 관점에도 해당된다. 이 역시 대담의 말미에 편집진 중 한 사람의 견해로 피력되고 있을 뿐이다.



편집진이 ‘재인식’에 글을 흔쾌히 실어준 필자들 전체와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 최소한의 공통분모는 역사연구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성찰(Upgrade)이며, 그 점은 머리말에 잘 나타나 있다.

기왕에 나온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이 민족과 혁명이라는 증명되지 않은 가정에 근거해서 해방전후사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고 있고, 그 시기에 대한 연구를 변혁운동의 도구로 격하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 ‘재인식’ 편집의 출발점이었다. 친일·반일, 민족·반민족, 통일·반통일, 혁명·반혁명 등의 이항대립으로 재단하기에는 한국 근현대사가 너무 복잡적이고 중층적임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었다.

친일 문제는 ‘인식’처럼 해방 이후 반민특위가 좌절되고 친일경찰이나 관료가 재등용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인식’처럼 식민지 시대의 일반인과 여성 그리고 지식인의 생활을 재조명함으로써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지닌 중층성을 드러내는 것이 선부른 친일파 규정과 단죄보다 더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

‘인식’처럼 북한의 건국과정을 인민민주주의의 혁명론의 시각에 맞추어 해석하거나 소위 ‘민주기지’의 건설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당시 북한에 살았던 일반 주민들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었겠는가? 이런 역사기술은 자칫하면 정치로 채색된 선전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재인식’에는 북한의 건국을 하나의 전체주의에서 또 다른 전체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글들이 실려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인식’이 중시하는 민중의 관점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다.

해방 공간이나 한국전쟁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인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변혁운동에의 열망이다. 당시의 혁명노선을 자세하게 분석한 글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글에도 ‘좌절된 혁명’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다.

명시적 언급 여부를 떠나 많은 글에 ‘무르익은 혁명’을 좌절시킨 미국과 보수 우파(특히 이승만)에 대한 반감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변혁운동의 도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역사의 목적은 사실을 드러내는 데 있지 개입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재인식’은 흔히 ‘잃어버린 10년’으로 취급받고 있던 1950년대까지 인식의 지평을 넓혔다. 이 책은 이승만 시대가 지닌 복합적 차원을 드러냄으로써 당시 정치를 단순히 민주와 독재의 이분법으로만 짚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변혁운동의 관점에서 휴지기(休止期) 정

도로만 재단되어 온 이 시기 민중의 삶을 농촌의 실상을 분석함으로써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도 한다.

향후 논쟁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런 각론에 대한 반론이다. ‘재인식’에 실린 개별 논문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그에 대해 편집진보다는 개별 필자가 답하는 식의 논쟁이 훨씬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식’이 ‘제한적이지만 그 시점에서의 발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같은 논리가 ‘재인식’에도 적용되기를 바란다.

72. [중앙포럼] 역사가 뭐길래

오병상 (문화데스크)

중앙일보 2006년 2월 18일

1982년 초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전대미문의 이변이 일어났다. 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서 학과를 지원했는데, 10개과 가운데 사회학과 커트라인이 가장 높았다. 항상 최고점수를 자랑하던 경제학과가 2등으로 밀렸다. 이후 사회학과가 경제학과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이변은 당대의 사회적 산물이다. 당시 사회학과는 투쟁을 모의하고 혁명을 꿈꾸던 곳이었다. 절정에 달한 전두환 군부정권의 폭력성은 대학생들에게 취직·출세보다 투쟁·혁명을 먼저 생각하도록 강요했다. 386은 그렇게 자랐다. 그 무렵 386의 정신세계를 압도한 책을 꼽자면 서슴지 않고 ‘역사란 무엇인가’(이하 역사란)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이라 말하겠다. 역사책은 세계관·인생관을 바꾸는 힘이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가 쓴 ‘역사란’이 먼저다. 역사를 보는 눈

을 길러 주는 역사철학서다. 간단히 줄이자면, '역사란 역사가들이 현재의 눈을 통해 과거의 사실들을 선택하고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래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 역사가들이 역사를 해석하는 기준은 진보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한다.

'역사란'을 읽고 '해전사'를 읽으면 앞뒤가 꼭 맞춰진다. '역사란'이 가르쳐준 역사관에 담기에 안성맞춤인 내용물이 '해전사'다. '해전사'는 좌파.민족주의 성향의 학자들이 미래의 진보를 상정하고 역사를 해석한 책이기 때문이다. 무리하게나마 '해전사'의 역사의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해방전후사(1945 53년)는 실패한 혁명'이다. 혁명의 주체는 민중 혹은 좌파 지식인들이며 혁명을 좌절시킨 반혁명 세력은 친일 기득권층과 미국이랄 수 있다.



오병상
문화데스크

그림 46: 오병상 문화데스크

유신과 5공 시절 중.고등학교에서 입시용 역사만 배우다가 '역사란'과 '해전사'를 읽으면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다. 독재와의 투쟁, 민중을 위한 혁명을 꿈꾸게 된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역사를 읽은 많은 젊은이가... 피가 거꾸로 도는 경험을 한다"고 얘기한 대목은 정확하다.

문제는 E. H. 카의 가르침처럼 시대가 바뀌면 역사도 바뀐다는 점이다. '해전사'가 386의 피를 끊게 했던 시절은 이미 20여 년 전 일이다. '역사란'(역사를 보는 눈)은 바뀌지 않더라도 '해전사'(역사 해석 내용)는 바뀌어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 '해전사'가 목시적으로나마 그렸던 미래의 진보는 사회주의였고, 성공한 혁명은 북한 정권이였다. 사회주의는 몰락했고, 북한의 참상은 확인됐다.

그런 점에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의 등장은 주목된다.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흘렀다는 노 대통령의 언급을 접하고, 우리 사회의 역사인식을 이대로 두고 보는 것은 역사학자의 직무유기"라는 머리말엔 더 크게 공감하게 된다.

역사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와 총리의 신사참배는 동북아의 불안 요인이다. 요미우리 신문의 와타나베 회장은 신사참배를 계속하는 고이즈미 총리를 "역사를 모른다"고 꾸짖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언론탄압'이라는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주간지 '빙점'을 정간시킨 것도 역사교과서를 비판하는 글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사 청산을 밀어붙이고, 뉴라이트 시민단체가 이를 비판하는 학술 행사를 연 것도 역사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주말에 역사책 읽길 권하고 싶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

73. [금주의 베스트셀러]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단번에 베스트셀러로

허 연

매일경제 2006년 2월 18일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최근 여러 언론을 통해 좌우 대립으로 포장되면서 책에 대한 독자 관심이 증폭된 듯하다.

이 책을 탄생시킨 책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없었다면 '재인식'도 없었을 테니 말이다. 사실 이 두 권의 책은 엄연한 학문적인 성과물이다. 책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 특히 이승만에 대한 평가와 식민지 경제론에 대한 의견 차이는 이 미 오래 전부터 학계의 중요한 논란거리였다.

역사인식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학문적인 이견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것을 두고 무슨 새로운 좌우 내전이 벌어진 것처럼 포장하는 언론의 졸렬함은 그야말로 눈뜨고 못봐줄 지경이다. 나라를 반으로 쪼개면 그들에게 뭐 남는 게 있는 모양이다. 하여튼 이 책에 대한 독자 관심은 상당 시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방 전후사의 인식' 필자들도 모임을 하고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하니 '해전사' 역시 새롭게 서점가에서 조명을 받을 게 분명하다.

2위와 3위는 오랫동안 인문 베스트셀러에 머물던 책이다.

4위에 오른 '세명의 사기꾼'이 눈길을 끈다. 이 책은 '스피노자의 정신'이라는 필명을 쓰는 익명의 저자가 17세기 말에 쓴 책이다. 예수, 모세, 마호메트 세 사람을 주인공으로 종교가 억압에 기여하는 허상이라는 주장을 논리정연하게 담고 있다. 정연한 논리와 위트 넘치는 이야기 속에서 계몽주의가 바라본 종교의 모습을 쉽게 접할 수 있다.

74. 2월 셋째주 베스트셀러(인문)

데스크

중앙일보 2006년 2월 18일

출간 하루 만에 2쇄를 찍은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2권이 다시 3쇄에 들어가면서 인문 분야 1위, 종합 순위 10위에 올랐다. 사회과학 논문집은 1000부 이상 팔리기 힘들다는 출판계의 통념을 깨뜨린 것이다. '과학과 기술로 본 세계사 강의'와 '천자문던' 등 출간된 지 얼마 안된 책들이 10위권 내에 든 것도 눈에 띈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14권도 나오자마자 인문 분야 3위에 올랐다.

═══════════ 베스트셀러 ═══════════	
2월 셋째 주 (인문)	자료: 교보문고
1. 해방전후사의 재인식1 박지향외, 책세상	
2. 조선 왕 독살사건 이덕일, 다산초당	
3. 로마인 이야기14 시오노 나나미, 한길사	
4. 세 명의 사기꾼 스피노자의 정신, 생각의나무	
5. 글쓰기의 전략 경희모, 들녘	
6. 위대한 패배자 볼프 슈나이다, 을유문화사	
7. 유쾌한 심리학2 박지영, 파피에	
8. 양반가문의 쓴소리 조성기, 김영사	
9. 살아있는 세계사교과서1 전국역사교사모임, 휴머니스트	
10. 천자문연 한경주, 포럼	
11. 과학과 기술로 본 세계사 강의 제임스 E 메달렐런 3세, 모티브북	
12. 미처야 미친다: 조선 지식인의 내면읽기 정민, 푸른역사	
13. 영국화가 열리지베스 키스의 코리아 1920-40 열리지베스 키스, 책과함께	
14. 강의 신영복, 들녘	
15. 놀이와 예술 그리고 상상력 진중권, 휴머니스트	
16.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이강무, 두리미디어	
17. 유식의 즐거움7 김문성 편저, 위닉스	
18.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들음세김	
19. 스킨너의 심리상자 열기 로렌 슬레이터, 예코의세계	
20. 대담 도정일·최재현, 휴머니스트	

그림 47: 베스트셀러

75. [Book & Life] 해방전후사 재인식과 ‘뉴라이트 콤플렉스’

김종면

서울신문 2006년 2월 18일

진보와 보수 논쟁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과연 건강한 진보 혹은 합리적인 보수라고 내세울 만한 실체가 있는가. 진정한 이념 공방보다는 맹목적인 배타와 샷대질만 춤을 출 뿐, 서로간의 대화를 차단하는 어둠의 그림자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모른다. 더군다나 이젠 일반 대중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된 뉴라이트 운동까지 곳곳에 ‘틈입자’로 나서 우리의 이념 지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최근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 도서출판 책세

상)을 둘러싼 논쟁 역시 이같은 문제를 비켜가지 못했다. ‘재인식’ 필자는 모두 28명이다. 이 가운데 박지향(서울대) 김철(연세대) 김일영(성균관대) 이영훈(서울대) 교수 등 네 명은 위은이로, 그 중에서 또 박지향 교수는 대표 필자로 돼 있다. 이와 관련, 출판사측은 “박지향 교수를 제외한 다른 필자들의 견해는 ‘재인식’ 필자들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표했다. 나아가 출판사와 이들 교수는 모든 대언론 접촉은 박지향 교수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컨대 ‘재인식’ 출간은 정파적 입장과는 상관이 없으니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단은 이미 그들의 첫 ‘작전’에 서부터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위은이 중 몇몇은 이른바 뉴라이트 세력의 ‘핵심’으로, 알려질 만큼 알려진 인사다. 그러니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재인식하는 민감한 작업을 ‘홍보’하는 데 그들을 내세우기는 좀 찝찝했을 것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색깔이 덜한



그림 48:

인물을 ‘입’으로 삼은 것 아닌가. 정치결사의 대변인도 아니고, 아무리 ‘재인식’ 깃발 아래 모였지만 각각 다른 주제로 다른 뉴앙스의 글을 발표한 필자들을 대표해 나홀로 말하겠다니... 그 반(反)학문적 발상의 유치함이란 참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모름지기 학문의 발전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이뤄지는 법이다. 진작부터 논의돼온 토픽들이지만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학자들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려 봉쇄하는 행태는 진정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창구 단일화보다 더 중요한 게 다채널의 소통 공간이다. 논쟁 풍토가 사라져가는 우리 학계이기에 더욱 그렇다. 내남없이 ‘커뮤니케이션 지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재인식’ 진영 인사들은 이제 ‘뉴라이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의도를 갖고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학술담론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외부 환경을 탓하기 전에 학문공동체 종사자들부터 먼저 순수한 학자적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 학자들 중엔 ‘정치’에 유달리 후각이 발달한, 아니 정치를 즐기는 무리도 적지 않다.

76. [특집 논쟁합시다] ‘解前史의 인식 VS 재인식’ 릴레이 공방 (3)

김언호 (한길사 대표)

조선일보 2006년 2월 20일

“6·25-분단 막을수 없었다” 문제의식 갖고 학문적 접근

☞ ‘인식’출판한 김언호씨 ‘해전사를 위한 변명’

‘해방전후사의 인식’이 탄생하는 1970년대 말은 참으로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민족적 상황과 정치현실에 대해 문제의식만 가져도 수난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해전사’는 기획되기 시작했습니다. ‘해전사’는 70년대의 유신과 80년대의 군부라는 폭압적 상황을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것인가로 고뇌하는 지식인들의 학문적 성찰이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는 책의 시대였습니다. ‘해전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책들이 고난을 무릅쓴 일련의 지식인과 출판인들에 의해 기획되었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 오히려 책이 늘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해전사’는 우리 현대사를 좀더 민족자주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자는 것이 기획의 취지였습니다. 흔히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좀더 잘했더라면 분단과 전쟁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현대사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권위주의 정치를 넘어서는 반듯한 민주국가를 건설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의식이었습니다.

☞ “유신·군부 상황을 어떻게…” 암울한 현실 개선의지 앞서

역사와 현실에 대한 치열한 문제의식으로 ‘해전사’는 그 시절에 기획된 다른 여러 책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역사인식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민족국가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고뇌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과 성찰과 행동을 토대로 우리 국가 사회는 이제 세계와 더불어 발전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이 늘 새롭게 탄생하듯이 새로운 연구와 성찰로 새로운 책이 탄생해야 합니다. ‘해전사’ 필자들은 그후 자기 주제를 계속 연구하고 있고 새 연구서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해전사’ 필자들은 물론이고 많은 연구자들이 ‘재인식’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식’의 기획 자체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인식’을 탄생시키는 그 방법과 의도에 대해 그리고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연구자들은 얼마든지 학문적 연구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책을 내놓으면서 편집위원들과 출판사는 지난 날 우리가 많이 경험한 공안수사관들처럼 두 책의 내용을 단순 도식화시키고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대비표까지 만들었습니다.

‘해전사’ 열독 현상을 시대적·역사적 조건과 더불어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이성적 언설로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면서 오히려 흑백 용어를 동원해서 그 내용을 난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는 70, 80년대에 수많은 책들을 판금시켰던 권위주의 권력의 그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학문연구를 지난 시대로 되돌리자는 것인지, 민족문제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두지 말자는 것인지도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책이 출간되기도 전에 언론들은 사실까지 동원해서 ‘해전사’에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면 책의 내용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회의 이성적 인식을 제공해야 할 언론의 사설이 이렇게 한다면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정당의 대변인이 논평까지 내놓았습니다. 학문의 일, 연구의 세계를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이렇다저렇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 脫이데올로기 시대인데… 흑백용어로 난도질해서야

몇 년 전 우리 출판사가 ‘해전사’를 재간행하면서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인식’의 어느 편집위원은 뭐라고 했는데, 책의 내용을 출판사가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한 시대의 역사적 존재가 된 책들을 어떤 방향으로 뜯어고치자는 생각이야말로 참으로 위험한 비학문적 발상입니다. ‘해전사’는 이미 ‘해전사’로 존재할 뿐입니다. 다만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새 책으로 간행될 뿐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환상을 넘어서는 지적 성숙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민족자주적인 담론을 피거나 북한사회주의를 적극적으로 연구하면 좌파로 몰아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전사’ 전6권에는 60여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고, 이들 논문의 필자 가운데는 진보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학자도 있겠지만 보수적인 연구자도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학문적 인식을 통틀어 한쪽으로 매도하는 일이 안타깝습니다.

77. [하영선 칼럼] 관악산의 봄, 한반도의 봄

하영선 (서울대 교수·국제정치학)

중앙일보 2006년 2월 20일

연구실 창문 너머 바라다보이는 관악산에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고 있다. 봄은 해마다 찾아오지만 늘 새롭다. 몇 년 동안의 유학생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처음 강단에 섰던 1980년 관악의 봄은 유난히 뜨거웠다. 그 봄소식을 먼저 전한 제비는 ‘해방전후사의 인식’(이하 ‘인식’)이었다.

민족과 민중의 해방이라는 기치 아래 한국현대사를 다시 쓰려는 '인식'의 첫 권이 박정희 정부의 종말을 고한 1979년 10.26 사건 직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이후 10년에 걸쳐 여섯 권이 나왔다. 이 책들은 80년대 대학가의 필독서였다.

오늘의 관악에서 '인식'을 더 이상 찾아보기는 어렵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역사의 주인공과 무대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가운데 2000년대의 대부분 젊은이는 더 이상 경직화한 민족과 민중의 투쟁 얘기에 80년대와 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80년대의 젊은이들이 2000년대 현실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이다. 일단 받아들인 인식과 언어는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담기 어려워도 쉽사리 버리기 어렵다. 80년대의 인식과 언어로 2000년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혁신의 방향을 찾아보려는 무리함을 우리는 청와대의 말씀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열변에서, 신문과 방송의 기사와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영화의 화면에서 끊임없이 만나고 있다.

최근 출판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이하 '재인식')이 서점가에서 작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편집자의 한 사람인 박지향 교수는 머리말에서 민족 지상주의와 민중혁명 필연론이 우리 역사 인식에 끼치는 폐해를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은 역사학자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인식'이 80년대의 제비였다면 '재인식'은 2000년대의 제비로 봄을 알리러 날기 시작했다. '재인식'은 '인식'의 운명을 반복하지 않고 2030년 이 땅의 역사학자들에게 또 한 번 '직무유기'의 비애를 느끼지 않도록 날 수 있어야 한다.

'재인식'이 그런 길을 찾으려면 단순히 '인식'과의 대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인식'과 '재인식'을 동시에 품고 전개되는 '세계사 속의 한국현대사 새 인식'(이하 '새 인식')을 찾아 나서야 한다. 2030년 세계사의

전개를 한반도의 입장에서 제대로 읽으려면 복합사의 안목을 하루빨리 키워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벌어질 민족국가들의 힘의 각축은 이 지역 20억 인의 삶과 죽음, 번영과 빈곤에 여전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목해야 할 것은 민족국가라는 주인공 이외에 새롭게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는 지구조직, 지역국가, 지방단체, 시민사회조직, 그리고 개인의 그물망이다. 국제관계와 그물망 관계를 복합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이상 21세기의 역사 무대에 설 수 없다. 힘의 내용도 복합적이다. 전통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식력.문화력.환경력.국내외 조종력을 품는 매력을 새롭게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 2030년 무대의 주인공들은 이런 복합적 안목에서 자기 역사를 새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주체와 협력적 자주의 얘기나 탈식민과 탈근대의 얘기는 잊힌 전설이 될 것이다.

'인식'은 민족과 민중만의 날개로 하늘만 보고 날아오른 탓에 땅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변화를 놓치고 역사의 지각생이 됐다. 이제 막 날기 시작한 '재인식'이 전하는 관악의 봄소식이 '인식'이 전했던 관악의 봄소식과 같은 운명을 겪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인식'과 '재인식'이 함께 날아올라서 21세기 한반도의 진짜 봄소식을 전할 수 있는 '새 인식'과 '새 얘기'를 찾아 나서야 한다. 제대로 된 복합 모델하우스를 미리 마련하고 힘을 합쳐 이 땅에 개인.민족.지구가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건물을 지어야 한다. 그래야 한반도는 세계가, 그리고 동아시아가 부러워하는 2030년의 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78. '재인식' 출간으로 '해전사' 관심 급증

김희선

연합뉴스 2006년 2월 20일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하 해전사)의 역사관을 비판하면서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책세상, 2권)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해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일 전자책 기업 북토피아에 따르면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출간을 계기로 현재 전자책으로 팔리고 있는 ‘해전사’(송건호·강만길·백기완 외 지음, 전6권, 한길사 펴냄) 시리즈의 판매량이 평소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

출판사도 최근 이 책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면서 절판된 책을 복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한길사 관계자는 "책을 어떻게 구하나"며 걸어온 독자들의 전화문의만 300건 가량에 달하고 있으며 인터넷 게시판에도 독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책을 복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979년 처음 출간된 후 총 6권이 나온 ‘해전사’ 시리즈는 현재 절판됐으며 2004년 출간 25주년을 기념해 1권만 다시 나와 이를 제외하고는 종이책으로 구하기 힘든 상태다.

전자책으로는 작년 3월 복간돼 북토피아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북토피아 관계자는 "학계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한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해전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7일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은 교보문고 2월 둘째주 종합 베스트셀러 목록 10위에 오르는 등 출간 초기부터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찾아보기

<p>【 기호 】 106</p> <p>【 】 92</p> <p>【 S 】 SBS 8시 뉴스 2006년 2월 9일 60</p> <p>【 ㄱ 】 강양구 118 경향신문 32, 64, 150, 151 국민일보 1, 21, 89 권재현 39, 47, 73, 130 김남중 21, 89 김달중 71 김명섭 156, 160 김범수 9, 27 김언호 175 김영화 2 김일영 165 김종면 92, 172 김태식 68 김희경.전승훈 43</p>	<p>김희선 70, 179</p> <p>【 ㄴ 】 남도영 1 내일신문 138 뉴스메이커 164</p> <p>【 ㄷ 】 대전일보 153 데스크 164, 171 데일리 서프라이즈 71, 117 동아일보 4, 7, 14, 19, 39, 43, 47, 73, 100, 128, 130, 147</p> <p>【 ㄹ 】 매일경제 105, 170 문화일보 2006년 2월 11일 102 문화일보 2006년 2월 9일 57, 59 민동용 7</p> <p>【 ㅂ 】 박광희 32, 106, 109 배영대 48, 101, 142, 146 부산일보 112</p>
----------------------------------------------------------------------------------------------------------------------------------------------------------------------------------------------------------------------------------------------------------------------------------------------------------------------------------------------------------------------------------------------------------------------------	-----------------------------------------------------------------------------------------------------------------------------------------------------------------------------------------------------------------------------------------------------------------------------------------------------------------------------------------------------------------------------------------------------------------------------------------------------------------------

【 스 】	장세만	60
사설	전병역	64
서울신문	정용욱	151
서울신문 2006년 2월 11일	조선일보 ...	12, 50, 76, 82, 85, 88, 125,
세계일보	126, 156, 160, 165, 175	
손병관	조선일보 2006년 2월 10일	79
손봉석	조은영	117
孫榮澈	조태성	91, 92, 97
	중앙일보 ...	48, 66, 101, 133, 142, 146,
	168, 171, 177	
【 ㅇ 】	【 ㅋ 】	
안석호	최남진	100
엄주엽	최운필	121
연합뉴스	최학림	112
연합뉴스 2월 9일	【 ㅌ 】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118
오병상	【 ㅎ 】	
오철우	하영선	177
유승삼	한겨레신문	98, 149
유종호	한국일보 ...	2, 9, 27, 32, 62, 106, 121
윤승아	한애란	133
윤정현	허 연	105, 170
이광표	헤럴드경제	123, 137, 164
이선민	헤럴드경제 2006년 2월 9일	55
이수곤	황호택	147
이영훈		
이한우		
【 ㅊ 】		
장석권		102

2월 9일자 언론의 반응은 폭발적임.

특히 그 이후에 나온 기자들이 쓰지 ‘않은’ 글과 사설을 눈여겨 볼 필요.

2월 20일자 언론까지 모았음.

계속 업데이트 할 것!